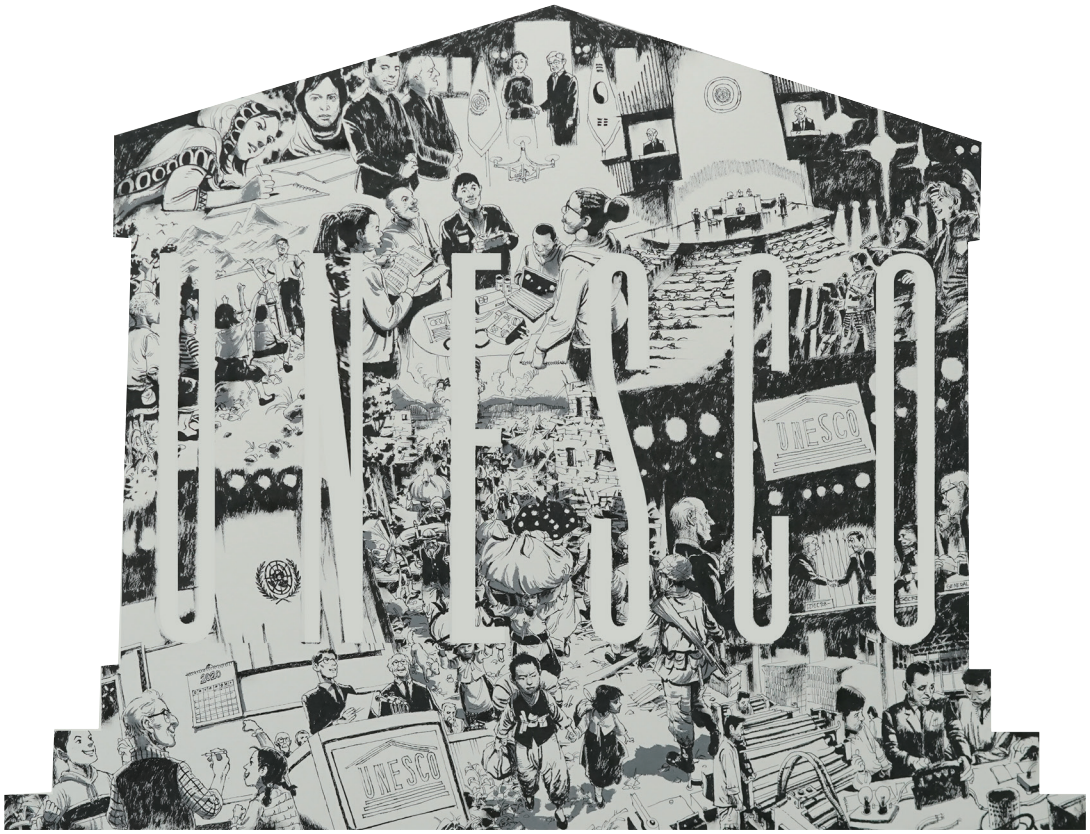
한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회고와 전망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김기헌 박환보 정준영 조두원 한유진 지음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Contents

1. 교육분야 해제 ····· 1
박환보 교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2. 자연과학분야 해제 ····· 9
한유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3. 청년 · 인문사회과학분야 해제 ····· 29
김기헌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커뮤니케이션분야 해제 ····· 41
정준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5. 문화분야 해제 ····· 57
조두원 박사(경기문화재단)

6. 한국 유네스코 70년 활동 자료목록 ····· 141

교육분야 해제

박 환 보 교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한국과 유네스코 간의 교육분야 협력은 교육과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인력, 정보, 자료의 교환과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제도와 내용의 질적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네스코 회의 참석은 외국의 교육제도와 동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였다.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가 국내에 번역·소개되었으며, 한국의 교육제도와 내용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1950년 6월 14일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직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가함에 따라, 전후 교육시설의 복구와 재건에서도 자연스럽게 유엔과 그 산하의 유네스코를 통한 교육원조가 확대되었다. 유네스코의 교육원조는 교육시설, 교과서, 교육과정, 교원,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고, 한국 교육의 토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국정교과서 인쇄공장은 의무교육 기회 확대에 필요한 교과서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방문했던 외국 교육전문가들이 작성한 한국 교육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1950년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유네스코가 개최한 각종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교육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에도 동참하였다. 1961년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 Schools Network, ASPNET) 가입을 계기로 국제이해교육, 영어교육, 인권교육, 평생교육, 환경교육 등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는 교육활동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위한 전문가 연수와 학술세미나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교육기회 확대와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협약과 권고 등에 참여하며, 한국 교육의 국제화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교육을 알리거나 외국의 교육 동향을 습득하는 일에서 벗어나, 국제 교육의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설립을 제안하고, 3년 후인 2000년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설립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국제기구가 설치되었다. APCEIU 설립을 계기로 한국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 연구 및 정책 개발, 정보 교류 및 확산, 교육 및 학습 자료 개발, 국제교사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유네스코 간의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사료는 유네스코 총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 참석, 외국 교육의 소개, 교육원조, 국제이해교육, 평화·인권교육, 외국어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교육제도, 교육과정, 국제협력'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단행자료 415건과 수록기사 58건의 총 473건의 사료를 포함한다.

교육제도

교육제도 범주의 사료는 유네스코·운크라 교육계획사절단(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이 작성한 두 권의 영문보고서와 한 권의 국문번역본을 비롯해서, 문교월보에 수록된 예비보고서 요약본, UNKRA의 학교 원조 현황과 유네스코 한국교육원조쿠폰 등 중요한 교육원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외국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소개한 잡지 기사, 교육과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자료 등을 포함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네스코의 국제 네트워크는 외국의 교육제도와 동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였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전쟁으로 피폐된 교육을 재건하기 위한 교육원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유네스코의 인적·물적 지원은 의무교육 기회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50년 12월 1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부흥과 재건을 돕기 위해 결의안 410(V) 「Resolution 410 (V).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Korea」(유엔, 1950.12.1.)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 이하 운크라)이 설립되었다. 운크라는 한국전쟁으로 붕괴된 한국경제를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재건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보건, 농업, 교육,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였다. 교육 분야의 경우, 유엔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 주관으로 기술협력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교육원조에 앞서 유네스코와 운크라는 한국에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재건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네스코·운크라 교육계획 사절단(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사범대학 학장인 Donald P. Cottrell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Mr. Vitaliano Bernardino(필리핀 불라칸주 장학관), Arthur N. Feraru 박사(미국 뉴욕), Charles Louis Jean Grosbois 교수(프랑스, 전 상해 프랑스조계지 장학관), Luciano Hernandez Cabrera 교수(멕시코, 유네스코 기초교육센터), Donald Portway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의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1952년 9월 4일부터 9주 동안 전국 각지를 방문하고, 정부관계자 및 한국인 교육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유네스코·운크라 교육계획 사절단은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1952년 12월 1일 부산에서 『한국의 교육상황(Educational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 Preliminary and Factual Report by 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Donald P. Cottrell et. al., 1952.12.1.))'이란 제목의 예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 최종보고서인 『한국의 교육재건(Rebuilding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nal Report of 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Donald P. Cottrell et. al., 1953.2.10.)'을 1953년 2월 10일 파리에서 작성한 후 유엔 본부에 제출하였다.

두 권의 보고서는 각각 한국의 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예비보고서)과 한국의 교육재건을 위한 권고 및 유엔원조 5개년계획(최종보고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보고서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종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교육현황, 국어문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기본교육, 교직원, 교육의 관리와 행정, 교육시설 및 설비, 교육의 재정적 유지의 10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유엔의 원조 계획교육재건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등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운크라 교육계획 사절단의 예비보고서는 1953년 5월 '한국의 교육상황'이라

는 제목으로 번역 소개되었고, 요약본인 「한국의 교육상황」(『문교월보』, 1953.8.)이 문교월보 제 6호에 수록되었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1954년 2월에『문교월보특집 대한민국의 교육재건: 유네스코 · 운크라 파한 교육계획사절단 최종보고서』(문교부, 1954.2.)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보고서를 번역 출판한 문교부 장학관실은 간행사를 통해 보고서의 권고안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보고서를 번역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유네스코·운크라 교육계획사절단의 보고서는 한국 전쟁 직후의 한국 교육 현실과 교육원조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한국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범주의 사료는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유네스코의 이념과 관련한 교육의 내용, 그리고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유네스코는 교육을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상호 이해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네스코의 이념은 국제이해교육을 비롯하여 평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전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교육과정, 교원연수,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1950년 유네스코 가입 이후에 유네스코 총회 및 다양한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교육 논의에 참여했으며, 상호 이해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유네스코 교육 전문가 회의 보고서-동남 아시아 제국에서 교과서 및 교육 자료에서의 서양 취급」(『문교월보』, 1959.7.)은 1958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네스코 교육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편수관실에서 번역·소개한 기사로, 교과서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교과서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이해의 증진이라는 원칙에 항시 부합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연구협의회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교육과정, 실천사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자료들이 생산되었다.

또한 1961년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 Schools Network,

ASPNET) 가입을 계기로 국제이해교육, 영어교육, 인권교육, 평생교육, 환경교육 등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는 교육활동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위한 전문가 연수와 학술세미나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62년 문교공보에 수록된 「국제협동학교와 인권존중 지도」 (『문교공보』, 1962.7.)라는 기사는 당시 유네스코협동학교(The Associate Schools)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소개되었고, 협동학교를 통해 한국사회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유네스코 협동학교를 '향토 이해와 국제 이해를 위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향토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했다는 점이다.

1974년 제 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의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는 한국 사회의 국제이해교육 확대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국제이해교육지침서』(유세희, 1974)를 발간하며, 국제이해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0-90년대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국제이해교육 발전계획연구』(김종서, 1985), 『국제이해교육현장 연구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7), 『국제이해교육의 길잡이』(김종서, 1988), 『국제이해교육 연구사례집』(김종서 외, 1991), 등 다양한 출판물이 발간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97년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설립을 제안하고, 3년 후인 2000년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설립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국제기구가 설치되었다. APCEIU 설립을 계기로 한국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 연구 및 정책 개발, 정보 교류 및 확산, 교육 및 학습 자료 개발, 국제교사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중등 영어교육을 위한 학습지도안 개발 및 보급, 영어교육 연구협의회, 교원연수 등 등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6 영어교육 발전 쎄미나 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6), 『Aural-Oral Approach를 위한 학습지도안』(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1968년도 영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제3집)』(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A-O-A

를 통한 영어교육 : 모범학습지도안을 중심으로』(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0) 등의 사료는 유네스코가 한국 영어교육 발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협력분야

국제협력 범주의 사료는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과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인력, 정보, 자료 등의 교환 및 공유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주로 유네스코 총회 및 각종 교육관련 국제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유네스코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와 자료, 외국 방문과 초청 등 인적 교류 사업의 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는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후에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교육상황을 알리고 원조를 요청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1952년 11-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 7차 유네스코 총회에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의 개회 연설문은 「한국의 교육, 과학, 문화: 1952년 파리 유네스코 총회 개회연설」(『사상계』, 1953.5)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총회 개회연설을 통해 백낙준은 운크라와 유네스코가 한국 교육을 위해 제공한 원조와 교육전문가의 활동 등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극동의 민주주의 승전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955년 11-12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 8차 유네스코 총회에도 백낙준이 한국 대표단의 단장으로 참석하여, 유네스코 · 운크라 교육계획사절단의 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대표연설」(『교육문화』, 195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 8차 유네스코 총회 참석 보고서는 『유네스코 제8회 총회 한국대표단 보고서』 (문교부, 1955)로 별도로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의 교육전문가들이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감상을 작성한 글들도 잡지 기사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 교육전문가들은 유네스코의 교육분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의 교육제도나 교육내용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동향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문교월보를 비롯하여 당시의 교육관련 잡지에 수록되었다. 유네스코 가입 이전에도 「UNESCO 런던창립회의보고」 (『신교육건설』, 1947.9)와 「UNESCO 파리 제일차 총회 회의보고」 (『신교육건설』, 1947.9)

와 같이 미국 대표의 유네스코 관련 회의 참석 보고를 국내 잡지에 소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헌장은 「국제교육정보-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의 헌장」(『신교육건설』, 1947.9), 「UNESCO헌장」(『문교월보』, 1954.1), 「유네스코헌장」(『교육문화』, 1955.2), 등 다양한 잡지에서 여러 차례 번역 소개되었고, 「유네스코와 한국」(『교육문화』, 1955.2), 「유네스코는 언제 생겼는가」(『교육문화』, 1955.2), 「유네스코기구의 사명과 목적」(『문교월보』, 1956.5), 「유네스코의 활동-유네스코가 하는 일 운영방법」(『문교월보』, 1959.8), 등 유네스코의 이념과 활동,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등이 다양한 잡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과학기준표」(『문교월보』, 1953.11.), 「세계 여자교육의 현황」(『교육문화』, 1955.5.), 「고아구제를 위한 국제운동」(『교육문화』, 1956.6.), 「아시아의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교육문화』, 1955.2.), 등 유네스코의 조사보고 및 외국 전문가의 글이 번역·소개되었다. 반대로 『Review of educational studies in Korea』(1972),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75-76/1976-77』(1977), 등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교육제도와 내용을 영문으로 외국에 소개하는 활동도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유네스코와의 협력도 선진국의 교육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한국교육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제 교육의제 설정에 관심을 갖고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과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뿐 아니라, 한국의 교육 관련 정책연구기관들은 유네스코본부 및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교육 관련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학술세미나 개최, 전문가 초청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아태지역 저개발국 교육발전 지원사업』(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기본계획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아태지역 국제교육협력 강화연구-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천세영, 2001), 『유네스코와 교육: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교육사업과 한국의 참여전략』 (김상진 외, 2006)」, 『KEDI-UNESCO방콕세미나』(한국교육개발원, 2005)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과학분야 해제

한 유 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설립초부터 유네스코는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인가?”,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과학 분야에 관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유네스코는 초기부터 평화와 인본주의에 기반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별국가들에게 있어 과학기술은 자산으로 생각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상인 ‘세계평화’와 현실인 ‘국익’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해 왔다. 이러한 고려는 ‘과학과 사회’ 분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수문학, 생물권 보전지역, 해양학 사업 등 유네스코의 다른 사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네스코는 ‘국제 및 지역 협력’과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대체로 유네스코 설립 초기에는 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후자에 보다 힘을 쏟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들도 이러한 유네스코의 기본적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이 해체되기 2년 전인 1956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제9차 유네스코 총회에 국가 재건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원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음 해 유네스코 과학 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재건을 위한 설계 및 대규모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과학기술의 기반이 전무하던 시절,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1) 과학기술 교육, (2)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설치, (3) 국내외의 주요 자연과학 관련 이슈 논의 주도, (4) 과학자들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5) 환경 및 기후변화, (6) 과학기술과 사회, (7) 과학기술과 인권, 윤리, (8)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라는 8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5년 서울 명동 동방문화회관에서 '과학사진 전시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일반 대중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폈다.

6.25 이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매우 보잘 것 없었다. 대학은 물론 초·중등 교육기관에서조차 제대로 된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먼저 초등 교육은 1955~1958년 국정교과서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뒤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과학교육시범사업(1967), 화학교육 시범사업(1968)을 진행하고, '화학교육연구협의회'를 만드는 등 현대적인 과학기술 교수법을 국내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69년부터는 3년간 매해 '과학교육 개선 촉진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양질의 과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과학교육 사업 이외에도 기술교육과 공학교육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1980년 8월에는 문교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과학교육 커리큘럼 전문가, 교사 및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교육의 개선-발전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한국 과학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렇게 초등과정의 교육과정이 기본이 되었지만, 중등과정으로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 1985년에 돼서야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2001년 19%만이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취학률은 1990년대 들어 90%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95%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등과정의 과학교육 관련 교과서를 편찬하고, 교육을 시작하였다.

1980~1990년대 한국이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으로 떠오른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과학교육 사업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됐다. 유네스코 및 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아태지역 과학교육 및 공학교육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2005)를 개최하고, 17개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유네스코 아태 과학기술교육 포럼'(2009)을 개최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대학인 서울대학교도 1960~1970년대 전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이 미흡하였다. 이공계 교육 역시 이러한 환경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458개의 건물 중에 276개의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재건을 위해 미네소타 대학교의 원조를 받았다. 1954~1962년 미네소타 대학교로부터

받은 원조액은 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대 주한미군 원조사절단(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이 서울대학교 공대 공업교육과에 31만불을 원조하였다. 이후 아시아재단에서 대학출판부에 3년간 1.5만불을 지원한 바 있다. 1955~1957년 유네스코 본부나 미국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가 기증한 과학서적과 학술잡지 3만여권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공계 교육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원(KAI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도 1971년 미국원조청(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으로부터 600만달러를 지원받아 설립하였다. 한국과학원은 당시 드물게 "연구중심대학원"을 지향했고,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자금과 시설을 지원받았다. 재학생들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받았고, 졸업생들에게는 병역특례 혜택도 주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과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역시 이공계 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미국 및 타 원조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 편찬을 주도하였다. 1961년에는 『과학교육 지도자료』 등을 편찬하고, 1967년~1970년 『화학 및 과학 교육 개선을 통한 개선 세미나』[1]를 개최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1970년대에는 초등 과학교육 관련 아시아지역 전문가 회의를 주관하였다. 1980년대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공업 교육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과학 관련 교양과목에 대한 서적인 『과학, 우리시대의 교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학의 산학협동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과학정책 세미나도 진행하였다. 특히 1976년 『산학협동을 위한 기술혁신 동남아 지역회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최초로 주최한 국제회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협력', '과학기술과 윤리', '정보윤리와 생명윤리', '기후변화윤리' 와 같은 학문을 대학에 소개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제2회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목표(SDG4-교육 2030)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정책 및 실전방향"에 대해 논

1) 1967년~1970년 세미나 보고서 참고

의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출현과 함께 미래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역할과 이를 받아들이는 산업현장의 변화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교육분야와 중복 확인 필요 - 제(한위 안신정)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설치

유네스코는 세계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필요한 경구 연구소나 과학기술 단체를 설립하는데 앞장서 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 설치 및 토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유네스코는 UNKRA의 빈자리를 메우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유네스코 원조로 약 250만 달러 규모의 과학교육용 실험기재보수센터와 직업기술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1961년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쿠폰' 제도에 가입하여,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시절에 환전할 필요 없이 많은 해외 과학기자재를 들여와 연구 및 실험을 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쿠폰배정액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36만 6,742달러가 과학기술 기자재 구입에 쓰이기도 하였다. 해외 과학기자재들은 국내 학교 및 연구소에 보급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네스코 쿠폰'은 외환거래가 자유로워진 1990년대 들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사용이 중단되었다. 한국정밀기기센터(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직업기술학교, 전력자원연구센터, 과학실험기구보수센터 설립 지원 사업이 이 당시에 시작되었다.

중앙기술직업학교는 1961년 UNKRA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50만 달러를 제공해 인하공과대학에 설립되었고, 직업훈련의 시초가 된다.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0년대에도 다양한 직업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를 설립했다. KORSTIC은 1,300여종의 외국 과학기술 정기간행물과 문헌을 수집·분석해 『과학기술문헌 목록집』, 『외국특허 목록색인』 등을 발간하여 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초기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초기 지원에 힘입어 1965년 미국의 바텔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출연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동안 KORSTIC은 1982년부터 국제경제연구원(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과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KIET에서 정보 부문을 분리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이 설립되었다. KIST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국가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다.

1966년에는 한국정밀기기센터가 유엔특별기금으로 구로공단 내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밀기기 관련 인력 양성, 수리 기술 지도 등을 수행하면서 낙후된 우리나라의 정밀공업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센터의 설립은 언론에서 "기술 한국으로 가능 이정표"라고 보도할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KIST를 비롯해 25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존재한다. 정부출연연구소는 대학과 기업이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시절,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 기업들에게 이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더 이상 유네스코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정부출연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과학계의 선진 지식을 국내에 알리고, 직접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매우 적극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주요 자연과학 관련 이슈 논의 주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0~1980년까지 자연과학 분야의 중요한 국제교류 창구였으며,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많은 행사를 주도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행사는 2017년~2018년에 개최된 '제7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SDGs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워크숍', '제3회 국제물산업컨퍼런스',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국제 회의', '제10회 제주물세계포럼',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 및 세계유산 글

로벌 포럼', '2017 대전 세계혁신포럼', '유네스코-세계과학도시연합(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2] 과학기술단지 거버넌스 국제훈련 워크숍' 등이 있다.

이렇게 정기/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및 포럼 이외에도 설립부터 운영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연과학 관련 단체는 크게 네 분야가 있다.

첫째, 한국을 대표하여 해양과 관련하여 정부간 논의를 주도할 '한국해양학위원회(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창설되기 전까지 해양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의 주도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해류와 지류인 쓰시마 해류에 대해 연구하는 '쿠로시오 해류 합동조사(1965-1971)'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5년 한국해양학회 발기를 주도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매년 한국해양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렇듯 국제적인 해양관련 조사 및 연구,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해양자료 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해양과학은 분야에서 국제협력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국은 1993~2015년까지 11회 연속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지역위원회인 서태평양위원회(WESTPAC: Sub-Commission for the Western Pacific)에서도 주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 변상경 박사가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13년에는 재선되는 등 괄목할 만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둘째, 1964년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IHD: 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에 따라 수문관측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1974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연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1단계(1975년~1980년), 2단계(1981년~1983년), 3단계(1984년~1989년), 4단계(1990년~1995년), 5단계(1996년~2001년), 6단계(2002년~2007년), 7단계(2008년~2013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8단계(2014년~2021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제 20차 UNESCO-IHP 정부간위원회에서 "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정하고, 물과 관련된 재해 및 수문학적 변화, 지하수, 물부족 및 수질평가, 미래의 물, 지속가능한 생태수문, 물안보 교육의 6개 분야를 세부 주제로 정하였다.

또한 IH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65년부터 국토해양부에 "수자원 개발 및 IHP 국내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가장 먼저 시험유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한강의 경안천(1967년~1974년)이었으며, 다음으로 금강의 무심천(1971년~1974년)이 지정되었다. 2단계 사

2) 1998년 과학기술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인류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대전광역시가 주도함.

업(1981년~1981년)부터 6단계 사업(2002년~2007년) 까지는 한강수계의 평창강, 낙동강수계의 위천, 금강수계의 보청천을 시범유역으로 운영하였다. 7단계 사업(2008년~2013년)과 8단계 사업(2014년~2021년)에서는 한강의 청미천 유역, 금강의 대동천 유역을 대표유역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2015년~2017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담 시험유역에서 수문 계측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인간과생물권계획(MAB: Man and the Biosphere)'은 유네스코가 파리에서 개최한 '생물권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for Rational Use and Conservation of Biospher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가 1970년 제16차 총회에서 MAB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동참하였다. 1971년에는 '제1차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이후 MAB는 IOC와 함께 과학과 관련한 유네스코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이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에 대한 최신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이전까지 활발하지 못했던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2년부터 MAB 자료를 국내에 보급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다. 1975년에는 『MAB 연구시리즈』 11권 전권을 번역하여 발간함으로써 생태환경에 대한 학술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관련 연구 분야 발전에 큰 도움울 주었다. 198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MAB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MAB한국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에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3]을 지정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1982년 설악산이 국내최초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BRN: World Biosphere Reserves Network)'에 가입해 국제협력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워회는 2009년 MAB한국위원회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30년동안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1994~98), '두만강 하구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설립 타당성 연구'(2002~2004) 등 중요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1995년에는 '동북아 생물보전권지역 네트워크(East Asia Biosphere Reserve Network) 설립을 주도하였다.

2009년에는 환경부, 제주도와 협력해 MAB 국제조정 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the Man and the Biosphere(MAB) Programme)를 개최하고,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최근까지 설악

3) 유네스코의 '인간과생물권계획'에 따라 지정된 생물 보존 지역으로 인간 활동 억제

산(1982), 제주도(2002), 신안 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6), 강원생태평화지역(2019), 연천 임진강(2019) 등 8곳이 지정되었다.

MAB는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후 1992년에 열린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처음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프로그램(IGGP: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GGP)이 있다. 이는 2015년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IGCP)과 세계지질공원프로그램(UNESCO Global Geoparks, UGG)이 통합된 것이다.

먼저 역사가 오래된 IGCP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는 1972년 국제지질과학연합(IUGS: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과 공동으로 IGCP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직은 자연재해, 자원고갈, 환경파괴와 같은 전 지구적 지질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 연구를 강조한다. 1975년 IGCP 한국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크게 5개 연구분야를 다루고 있다. 첫째, 광물, 지열, 공기 등 지질자원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기후, 육지 및 해양 퇴적물, 화석 등 지구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화산, 지진,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재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지표수, 지하수, 해수 등 수자원 확보, 오염 등에 관한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물리학, 지구역학 등 지질학적 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IGCP는 1972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젊은 지구과학자들이 협력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괄 책임자와 다수의 공동 책임자로 운영된다. 2018년에는 105개국에서 4,485명이 참가하여 27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김용제, 김희수, 2019).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56%는 젊은 과학자들이고, 65%가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이다. 유네스코 IGCP 국가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며,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협력을 유도하는 조직이다. 유네스코 IGCP 한국위원회는 1973년 서울대학교 정창희 교수를 초대위원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박용안교수가 위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IGCP는 국가위원회로서의 활동보다는 지질학 관련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등과 협의하여 IGCP 한국위원회의 활동

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한 사무국 등을 설치할 필요가있다(김용제, 김희수, 2019)[4].

UGG는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UGG 지정은 2004년부터 유네스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회원국들이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 IGCP와 함께 IGGP로 통합 운영되면서부터이다. 현재 UGG는 전 세계적으로 41개 국가에서 147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UGG 지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제주도, 2017년 청소, 2018년 무등산권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부터 UGG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표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과학기술 관련 국제적 활동

구분	IOC	IHP	MAB	IGGP[5]
국내위원회 명칭	한국해양학위원회 (KOC: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IHP 한국위원회	MAB 한국위원회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프로그램(IGGP: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GGP)
설립 근거	해양수산부 훈령	환경부 훈령	환경부 훈령	한국지질학회 관계자의 참여
관련 규정	한국해양위원회 규정 (2018년 개정)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2019년 개정)	유네스코인간과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규정(2007년 제정)	없음
위원 구성	총 25인 이내 - 당연직 11인 - 위촉직 14인	총 30명 이내 - 공동위원장 2명 - 부위원장 1명	총 25명 이내 - 당연직 7일 - 위촉직 18인	고정 위원 없음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자 바뀜)
사무국 소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없음
위 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환경부	없음

자료: www.ihpkorea.or.kr

4) 김용제, 김희수, 2019,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과 IGCP 한국위원회 활성화, 지질학회지 55(3), 343-352.
5) 2015년부터 IGCP와 UGG가 통합 운영되는 조직

과학자들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6년 산학협력 관련한 동남아 지역회의를 주최하였으며, 1977년 '동남아시아지역 천연물화학 연수과정', '동남아 지구과학 워크숍'을 개최하며 아시아의 지역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1978년 동남아 인삼화합물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후 매년 천연물화학, 미생물학, 지구과학 분야의 동남아 지역 연수과정과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1994년 우리나라의 주도로 중국, 몽골, 일본, 북한 5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생물권 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가 설립되었다. 이후 러시아와 카자스흐탄이 가입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EABRN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이 네트워크에 신탁기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천연물화학연구소, 미생물학과, 지질학과는 물론 KAIST 등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에서 자연과학분야 국제협력을 이끄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서울대 생약연구소(현 천연물과학연구소)는 1978년 유네스코로부터 '동남아 천연물화학 연구센터'로 지정받아 공동연구와 훈련을 담당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과학자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유네스코 동남아 공학교육협회(AEESEA: Associ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for Southeast Asia)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아시아 공학 네트워크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고, 이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국내로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아시아 물리교육 네트워크(Asian Physics Education Network)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물리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회의'를 전북대에서 개최하였다. 천연물화학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한 동남아 각국의 학자들에 대한 장단기 훈련, 워크숍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IGGP를 통해 아시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아태지역 과학교육과 공학교육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개발도상국 과학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다. 같은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11개 국가들과 함께 '제1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과학기술교육 포럼'을 주도하였고, 한국은 아태지역의 과학기술교육 교사 훈련을 맡기로 하였다. 2010년에는 과

학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매년 1~2회 동티모르에서 '과학과 수학 교사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및 기후변화

유네스코는 설립초기부터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은 물론 환경 및 생물권 등을 보호하는 문제에 앞장서 왔다. 따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이러한 본부의 이념을 그대로 실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2년에는 '환경문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 정책 및 교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협의회는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후속 사업의 성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던 환경 문제를 유네스코라는 공인된 틀을 활용해 개방적인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호에 대한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1975년 환경보호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자연보호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활동이 크지는 않았다.

1982년부터는 '에너지 및 환경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양 환경론』등을 발간하였다. 1993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 체택된 "지방의제 21"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면서 지역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7년~1999년 UNDP의 지원을 받아 지방 의회의원 및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1995년 서울, 1996년 설악산, 1998년 강원도에서 자연보전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중국 연길에서 개최된 '제2차 동북아 환경평화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2009년 유네스코는 '기후변화 전략과 기후변화 구상'(UNESCO Climate Change Initiative)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2011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과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해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Asian Regional Initiative on Climate Change Education Project)'를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태국의 4개국에서 7개 프로젝트, 2012년에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네팔의 5개국에

서 9개 프로젝트, 2014년에는 다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네팔의 5개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1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ta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인증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 “친환경적 사회기반시설 운영” 등을 주제 주제로 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사업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현장방문, 대응방안 도출 등의 세부 모듈이 운영되며,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운영된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기후변화 분야에서 전문적, 국제적인 역량를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 학생들이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서적을 발간하여 환경과 관련된 교육과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2012년 유네스코 보고서를 번역하여『기후변화교육 길잡이』를 출판하였으며,. 2015년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2017년『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2019년 『우리의 지속가능한 해양』 등을 발간하였다.

과학기술과 사회

최근 ‘통섭’, ‘융합’과 같은 개념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학제적(interdisciplinary)’, ‘종합적(comprehensive)’, ‘통합적(integrated)’이라는 용어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과학기술과 사회(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사업에 참여하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협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이 분야 관련 활동을 주도하였다.

1984년부터는 유네스코가 1950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해 온 『Impact of Science on Society』를 번역하여 한국어판으로 『과학과 사회』로 발간하였다. 그 당시 UN 공식어 이

외의 언어로는 한국어 번역판이 유일했으며, 이 서적에는 자원부족, 환경오염 등에 관해 세계적인 석학들이 분석한 글이 자주 실렸다. 1988년에는 과학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계속 발간되었으나, 1995년 유네스코가 발간을 중단함에 따라 폐간되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주제들은 예술과 과학의 창조 및 혁신, 천연물화학, 양자물리학, 음향학과 소음공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과학의 대중화, 행성, 발명과 사회, 신재생에너지, 지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등이 있다.

1990년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과학기술의 사회적인 측면 및 영향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개념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 『과학, 기술, 사회』, 2001년『가치를 꿈꾸는 과학』을 발간하였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2004년 『과학, 우리 시대의 교양』을 출판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과 윤리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학계 및 시민사회의 논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주최했다. 1998년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를 개최하고,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시민 패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 일반 시민들의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합의회를 운영하였다. 이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과학기술 주제는 놓고, 관심 있는 20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 패널 형태로 의견을 종합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1999년은 생명복제 기술을 주제로 한 합의회를 진행하였다. 이 합의회의 결과물은 정부, 학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집약하였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에서 우수 사례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 후, IBC와 국제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에 한국 학자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전 지구적인 이슈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를 증명하고자 '기후변화윤리포럼'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국제포럼'을 주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2년부터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을 수여하며 여성과학자들의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2019년까지 75명이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도 생

명과학 분야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대표적인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과학대중화를 위한 칼링가 상, 미생물학을 위한 까를로스 핀레이 상, 환경보존을 위한 술탄 카부스 상 등의 수상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권, 윤리

유네스코는 평화를 위한 과학기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70년대부터 생명윤리 문제에 주목해 1993년 36명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IBC를 설립하고, 매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윤리적·법적 논의를 주도해 왔다. UN 기구 중 유일하게 생명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복제양 등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기술은 유네스코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네스코는 특히 정보윤리(info-ethics)와 생명윤리(bio-ethics)를 중요하게 여겨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1997년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에 기반하여 1998년 IBC가 설치되었다. IBC는 이후 2003년「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2005년「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등을 통해 과학기술 윤리규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IBC는 임기가 4년인 생명윤리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며, 생명윤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2003년 서울대학교 법대 손은정 교수, 2006~2009년 카톨릭대학교 의대 맹광호 교수, 2012~1015년 연세대학교 손명세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IBC는 2013년 IBC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차별 및 낙인금지 원칙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명윤리 이슈'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연세대학교와 함께 유네스코 및 보건복지부 주최로 제20회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회의(20th Sess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제11차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가(IGBC: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근 이슈가 되는 생명과학 및 과학기

술 윤리분야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1998년 COMEST도 설치되었다. 초창기 COMEST는 연구자들이 모여 식수, 에너지, 정보사회 관련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우주개발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2004~2007년), 김환석 국민대 교수(2008~2011년), 홍성욱 서울대 교수(2012~2015년)가 COMEST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COMEST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같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태평양지역의 11개국 인터넷전문가 16명이 참한 '사이버 스페이스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아태지역 11개국에서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편향된 정보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접근권과 지적 소유권의 마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이 결과는 모나코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 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와 '제2차 정보윤리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9년 과학기술부와 함께 '세계과학회의 참가 보고 및 후속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권고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과학기술확동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과학정책, 과학교육, 과학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사회를 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국내 학자들의 연구와 모임을 지원하고, 『과학기술과 인권』, 『과학연구윤리』를 발간하며, 휴머니즘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인간 유전자 데이터 국제선언', 2005년 '생명윤리와 인권보편선언' 채택을 통해 생명윤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교육하여 왔다. 2006년에는 '생명윤리와 인권보편 선언 토론회'에서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1997)」,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2003) 등 생명윤리 관련 국제 선언들의 의미를 짚어보고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함께 과학기술인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 규범을 담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이 강령에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연구윤리, 보편성의 원칙, 법령 준수, 연구자료의 기록 및 보존, 저작권,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연구환경, 윤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0년 한국유네스코위원회는 199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를 기초로 하여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연구, 교육, 윤리, 문화 등을 분석하여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발간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9년 2회의 기후변화 윤리포럼을 개최하였다. 같은해 COMEST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 원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임시전문가집단(ADEG: Ad Hoc Expert Group)을 만들어 정부간 회의를 한 후 심의·수정 과정을 거쳐 내용이 만들어졌다. 2010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에 대한 논의가 COMEST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2015년 기후변화와 윤리원칙이 통과되면서, 2017년 '기후변화와 윤리원칙 선언(Declaration of Ethical Principl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을 공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2년 『기후변화교육 길잡이』, 2017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등을 발간하며 한국의 기후변화와 윤리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양대학교 코어사업단과 함께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8년 IBC 설립 25주년과 IGBC 및 COMEST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인공 지능: 복잡성과 우리 사회의 영향에 대한 반"과 "유전자 편집: 왜 윤리가 중요한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열렸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편집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일반 대중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이로 인한 변화와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공개 모임으로 진행이 되었다.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많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특히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힘써 왔다. 1974년 설치된 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와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2년~2009년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와 협력하여 교과서 등을 지원하고, 북한의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외래종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MAB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백두산, 금강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1~2014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학교의 연계사업인 아시아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Asian RICE(Regional Initiative for Climate change and Education) Project)를 진행해 왔다. 이 프로젝는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단순한 지식습득 보다도 지역 사회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현장 중심형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2012년에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에서 총 14개 기관과 협력하였으며, 2013년에도 거의 동일한 국가에서 13개 기관과 협력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4부터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지에 맞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다.

2011년 아태지역 과학기술정책 향상을 위해 '개발(development)을 위한 전략적 혁신 유네스코 워크숍'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란 등 개발도상국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STEP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연구원으로 국가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방향 및 전략 수립, 신기술 등장에 따른 국가간 협력방안 도출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STEPI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개발도상국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통부와 STEPI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2015년 '제3차 과학기술 ODA 포럼' 역시 STEPI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2012년 배냉에서는 유네스코/IOC,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한-아프리카 해양과학 공동 포럼'을 개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프리카 해양관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회의는 해양과학 분야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에 최초로 추진된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한국인 전문가 8명을 비롯하여 베냉,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세네갈, 카메룬, 케냐, 모잠비크, 튀니지 등 10개국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해양관측, 해양 양식, 인공위성 자료처리, 해양예보모델에 대해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양자 협력으로 추진하였으나 IOC가 참여함으로써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되어 보다 효과적인 네트워크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 포럼을 통해 베냉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전임 IOC 부의장국인 튀니지를 중심으로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등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과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베냉 정부는 해양 문제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구축, 항구 현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였다.

201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ICT 분야의 이점을 살려 개발도상국들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개발을 지원한 바 있다. 인터넷이 보편적인 오늘날에도 유네스코 회원국 중 40%만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정보 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리브해 지역 6개 국가(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솔로몬제도, 통가)의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관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대전광역시에 설치한 센터 운영 관련 행사 및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현 및 물 안보 개선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i-WSSM에서는 물안보의 주요 사례와 이슈를 다룬 연례 보고서인 『글로벌물안보이슈(GWSI: Global Water Security Issues)』 발간, 세계 물평가프로그램에서 발간하는 『세계물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의 한국어 출판, 물 안보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물 안보 개선을 위한 현지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안보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전파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성과 확산을 위해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개발도상국이 물 안보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과거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다방면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다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데도 앞장서는 등 글로벌 사회에서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수자원, 생물, 환경 등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해결방안을 위한 공조 등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여러 영역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새로운 역할을 발굴해 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 인문사회과학분야 해제

김 기 헌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청소년)

유네스코는 각 국가 간에 교육과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1946년에 출발한 유네스코에 한국이 가입한 것은 1950년에 가입했고 195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하였다. 유네스코는 한국전쟁으로 전후 복구가 절박했던 시기에 한국 정부의 재건 과정을 돕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소년 및 청년 분야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가장 큰 기여는 1990년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정책의 방향과 내용, 인력 및 시설에 관한 논의들을 활성화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를 설치하고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만들어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여주는 국가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된 1954년부터 '유네스코 학생건설대'를 시작했을 정도로 청년과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해 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출범한 시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대학생들로 유네스코 학생건설대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유네스코의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196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청년과 관련해 추진한 것은 청년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나 동아리 등을 만드는 것이었다. 먼저 청년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핵심적인 동력을 대학생들로 얻었으며 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 1965년 유네스코 학생회(KUSA)를 창설한 것이다. 유네스코 학생회는 국내에서 참여와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당시 매우 생소한 국제교류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청년 국제교류활동은 1966년부터 시작된 국제야영봉사로 매년 개최되었으며 현재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 Camp)로 이어졌다.

1970년대 들어 시작한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청년 사업은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해 국

토를 도로로 순례하는 '조국순례대행진'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순례는 이 때부터 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 활동의 새로운 대안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1976년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청년 수련시설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유네스코청년원이라는 명칭으로 1977년 경기도 이천에 개관하였다. 유네스코청년원은 청소년 관련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연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유네스코평화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이후 유네스코의 청년 사업은 청년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청소년 활동가 육성에 집중했던 시기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 청년 분야의 영역을 국내에서 국제적 무대로 옮겨갔던 시기였다.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이 1990년에 출범해 국제 무대로 옮겨가는 시작을 알렸고 1998년 국제자원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 평화를 위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6년 세계청소년정보망(INFOYOUTH)을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로 지정되면서 청소년 정보 분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대 들어서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와 더불어서 지속가능발전, 역사화해와 같은 글로벌한 사회적 쟁점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학술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을 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동북아 지역의 청년 학술행사로 추진하였다.

1-1 청년(청소년) 참여활동

청년(청소년) 참여 활동은 유네스코가 추진한 청년 사업에 있어서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초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초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청년이라는 용어보다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체 발간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유네스코 활동사 1954-1975'(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6)는 초기 한국의 유네스코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참여 활동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는 1954년부터 1975년 기간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청년이라는 용어보다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특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참여 사업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0년사'(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4)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로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 및 청년 참여 사업을 유네스코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30년사에 이어 가장 장기간에 걸쳐 유네스코가 추진한 청년 참여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보고서에서 청년 참여와 관련해 '제18화 세계의 젊은이 서로 어깨를 겯다'에서 국제청년야영이 어떻게 시작되고 추진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제23화 행진, 조국, 청년의 삼중주'에서 조국순례대행진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는 분야별 조장에서 '평화로 가는 청년운동의 새 길을 열다'에서 그동안 유네스코가 어떤 청년 관련 참여 사업을 전개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1-2 청년(청소년) 봉사활동

유네스코의 청소년 및 청년 봉사 활동은 유네스코 학생건설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체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시기에 학생건설대를 만들어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문해 퇴치, 생활 개선, 영농 지도, 의료 봉사 등을 펼쳤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3화 한국청년 봉사 활동의 시작'을 통해 유네스코에서 학생건설대를 시작으로 청년 봉사활동이 처음 시작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을 1989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해외로 나가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1990년 1기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으로 44명을 파견하였다. 이 사업은 1991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도국 협력사업에 대한 창구 일원화로 한국국제협력단 KOICA로 이관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38화 나눔과 섬김으로 전한 희망'에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을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 볼런티어 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1 청년(청소년) 단체활동

청소년 및 청년단체 활동의 시작은 대학가에 쿠사(KUSA)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학생회에서 출발한다. 1965년 전국 13개 대학에 쿠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새물결운동을 내걸고 출범했으며 2014년 현재 전국 30여개 대학에 지회를 두고 있고 1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학생회의 대표적인 사업은 1974년부터 시작된 조국순례대행진이다. 1974년 8월 전국의 49개 대학생 1천 500명이 참가하였으며 1993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개최되었다.

유네스코학생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동이 위축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유네스코학생회의 연합체인 유네스코학생협회 역시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2013년 2월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가 다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청년 단체활동의 시작으로 '제16화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다‘에서 유네스코학생회(KUSA)를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학생회 활동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료로 본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1965-1995)’에서 유네스코학생회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66년 한국 청년 30명과 외국 청년 19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1회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를 시작하였다. 국제양영봉사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였다. 국제야영봉사는 1979년부터 직접적인 노력 봉사 대신 청년드르이 참여와 국제적인 문화교육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청년야영(International Youth Camp)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어서 2009년 청년지역행동(Youth in Community Action)으로 잠시 불리다가 2011년투 다시 초기 명칭인 국제워크캠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18화 세계의 젊은이 서로 어깨를 겯다‘에서 국제청년야영 YC를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2015)를 통해 국제워크캠프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2-2 청년(청소년) 기관, 시설

유네스코는 한국에서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관련 시설은 유네스코청년원이었다. 유네스코청년원은 1977년 젊음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관하였으며 유네스코문화원이라는 이름을 거쳐 2006년부터 유네스코평화센터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25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에서 유네스코청년원의 개원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시설인 서울청소년문화교육센터 미지(MIZY)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설립하였다. 미지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 명동(Myungdong info Zone of Youth)의 약자로 미지의 세계라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40화 미지의 꿈을 키우다'에서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개관을 소개하고 있다.

2-3 청년 활동가

유네스코는 1990년 이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연수가 정부주도로 제도화되기 전에 청소년 및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작업을 유네스코학생회를 통해 진행하였다. 유네스코학생회는 1965년부터 유네스코학생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들을 토대로 새물결운동 추진하였다. 새물결운동은 '혼자면 독서, 둘이면 대화, 셋이면 합창, 넷이면 운동'을 표어로 청년들의 참여와 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16화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다'에서 청년 활동가의 출발을 알린 유네스코학생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어서 유네스코청년원을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학생지도자 연수과정과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대학 서클 지도자 연구과정, 청소년연수과정을 197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1979년부터 97년까지 진행한 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과정은 한국의 청소년 지도자 훈련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1990년대 이후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국가청소년정책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25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에서 유네스코

청년원의 개원과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3-1 청년(청소년) 학습활동

유네스코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네스코청년원은 1983년부터 86년까지 근로청소년 문화활동 연수를 추진했으며 청소년 문화 촉매요원 연수(1987-94),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의 재외교포 학생 하계학교(1986-88)를 위탁받아 실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MIZY)를 통해 다문화와 국제화 현안들을 체험하고 토론하는 MICC(Mizy International Club)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밖에 미지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대기 중'을 비롯하여 서울의 자매도시 청소년들을 초청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는 스터디 캠프인 브로시스 프로젝트, 일본 비영리단체인 판게아와 함께하는 온라인 컴뮤니티 프로그램, 우리 청소년을 들로벌 리더로 키우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국제회의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유네스코는 외국 청소년에게 한국을, 국내 청소년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아리랑 청소년캠프(Arirang Youth Camp)를 진행하였다. 아리랑청소년캠프에 관한 소개는 '2001년 청소년백서'(문화관광부, 2001)에서 '2001년 주한 외국 청소년과의 교류-아리랑캠프'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58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에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다루고 있다.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를 펼쳐 나갈 역량을 증진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63화 세계를 향해 꿈의 나래를 펴다'에서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와 관련하여 '2010 유네스코협동학교 Rainbow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모음'(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과 '2010 유네스코협동학교 GuideBook'(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을 비롯해 '2011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계획서 모음집'(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등을 발간하였다. 한편,

3-2 청년(청소년) 학술활동

유네스코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지원하였다. 청소년세미나는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과정의 경험과 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책 차원의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청소년 세미나는 청소년지도자 육성(1981년), 청소년 정책의 수립(1982년), 한국의 청년과 청년문화(1983년), 청소년 환경(1984년), 한국 사회와 청소년의 자아 실현(1985년)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3년 연세대학교 동북아시아 대학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공동체 형성"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제1회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는 2008년부터 유엔대학-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 세미나(UNU-KNCU Global Seminar)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으며 2009년부터 모의 유네스코 총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네스코는 본부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UNESCO Asian Youth Forum)을 개최해 한국이 아시아 지역 청년활동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제1차 청년포럼은 2007년 '평화를 향한 문화 및 종교 간 대화'를 주제로 25개국 70여 명의 아시아 지역 청소년 활동가와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제2차 포럼은 2008년 '아시아-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제3차 포럼은 2009년 '다시 그리는 우리의 미래: 아시아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제4차 포럼은 2010년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창의성과 비전'을 주제로, 제5차 포럼은 2011년 '아시아, 청년을 말하다-청체성, 외침, 변화,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47화 미래 주역들의 향연'에서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를 소개하고 있다. '제56회 역사에게 평화를 주다'에서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과 함께 청년포럼을 소개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류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영역에 관한 국제기구로 과학의 경우 자연과학분야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동시에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학제간 연구는 물론 생명윤리와 같이 공통의 영역을 발굴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4년 창립 때부터 6개의 분과위원회 중에서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분야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경제재건과 국가 기간산업 복구에 매진하던 시기로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인문사회분야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유네스코는 1954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에 관한 좌담회를 시작으로 한국철학회가 국제철학협회에 정식으로 가입하는데 일조하였다. 동시에 유네스코는 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학술지를 기증받아 한국의 대학도서관에 보급하는 일에도 나섰다.

유네스코는 1960년대부터 전 세계에 한국과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학 영문잡지인 'Korea Journal'을 1961년 창간하였고 프랑스어 계간지 'Revue de Corée'를 발간하였다. 1968년 '사회과학과 국제학술교류 세미나'를 시작으로 1976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창설을 주도하였다.

유네스코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인권, 평화, 관용, 자생적 발전,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 등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교사연수, 도서출판 등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1 인문학

유네스코에서 초기에 진행한 대표적인 인문학 관련 사업은 1957년 개원한 한국외국어학원이다. 한국외국어학원은 어학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한국이 각 분야에서 국제교류에 활발히 나설 수 있는 인적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한국외국어학원은 현재 서울대 언어교육원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4화 전후 교육 재건의 발판'에서 한국외국어학원을 소개하고 있다.

1981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철학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 교육을 통한 철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1995년 아태지역 철학교육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주의을 위한 아태지역 철학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2002년 12월에 '국제철학 인문학 협회' 및 한국철학학회와 공동으로 '21세기 인문학의 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2000년 '세계 평화 문화의 해'와 2001년 '문명 간의 대화의 해' 등을 기념해 세계 평화와 문명 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2002년 '문화와 민족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월드컵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56화 역사에게 평화를 주다'에서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소개하고 있다.

2003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다양성과 공동 가치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1년 이후 '유네스코 세계인문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54화 변화에 발맞추는 인문학'에서 세계인문학포럼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세계인문학포럼 프로그램북과 발표논문집(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2019)을 발간하였다.

1-2 생명윤리, 과학기술윤리

유네스코는 1981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협동을 모색하면서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접목시킨 계간지 '과학과 사회'를 발간하였다.

유네스코는 생명윤리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를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하였다.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한 '과학과 과학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과 '과학의제: 행동강령'을 번영해 보급하는 한편, 2001년부터 '과학연구윤리' 등을 발간해 과학 연구자의 윤리 문제를 다루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42화 윤리와 가치를 생각하는 과학'에서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논의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2-1 사회과학

유네스코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에서는 1968년 '사회과학과 국제학술교류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합체인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1976년 창설하는데 기여하였고 국내에서 생소한 개념이 '학제 간 연구 방법론' 등을 소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24화 사회과학, 한국 사회를 말하다'에서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서구 근대 사회가 발전시켜온 인권, 관용,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등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도 수용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33화 문명간 대화의 다리를 놓다'에서 실크로드 종합연구와 동서양 문화 비교사업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제35화 우리 마음에 평화의 길을 닦다'에서 관용, 민주주의, 인권, 문명 간 대화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1995년 세계 관용의 해를 기념해 '민주주의와 관용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유엔의 '인권교육 10개년'(1995-2004) 기간 중에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2000년)를 비롯하여 '인권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0개년'(2005-2014)과 관련하여 국내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소개하는데 일조하였다.

2-2 지역사회개발, 자생적 발전, 사회변동관리

유네스코는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자 양성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56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설립된 신생활교육원은 한국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자 양성을 이끌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4화 전후 교육 재건의 발판'에서 신생활교육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이 1970년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자 자생적 발전을 개념화해 한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1980년대에도 이어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로 '한국사회의 자생적 발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24화 사회과학, 한국 사회를 말하다’에서 자생적 발전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3-1 한국학

유네스코에서는 1960년대부터 한국에 대한 정보를 해외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일 먼저 시작한 한국에 대한 소개는 한국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한국총람’의 영문판인 ‘UESCO Korean Survey’(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60)를 발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교육, 문화, 철학, 전통 등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1년 영문학술지인 ‘Korea Journal'을 발간하였고 불어권에도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1969년부터 1997년까지 불문학술지인 ’Revue de Corée' 를 발간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10화 한국을 세계에 알리다’에서 영문과 불문 학술지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46화 한국학 진흥을 위한 반세기’에서 ‘Korea Journal'의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1948년 창간한 ‘UNESCO Courier' 한국어판을 1978년 6월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번역해 발간하였다. 한국어판은 ’세계로 열린 창‘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으며 1996년 발간이 중단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는 ‘제20화 열린 창으로 세례를 보다’에서 ‘UNESCO Courier' 한국어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을 알리는 단행본 책자로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The History of Korea’, ‘Traditional Performing Art of Korea’(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을 발간한 바 있다.

3-2 스포츠

유네스코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정부간 체육위원회(CIGEPS) 참가(외무부 1980, 1982,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4)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네스코 청년교육 및 스포츠장관 원탁회의(문화체육관광부, 2003)에도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 유네스코에서는 유네스코의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관련 주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설립된 국제무예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분야 해제

정 준 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교육, 문화,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과 더불어 유네스코의 핵심 사업 영역을 이루고 있는 부문이다. 이 부문에서 유네스코의 역할은 유네스코 본부의 홈페이지에 서술되어 있듯이 "말과 이미지를 이용해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시키는" 유네스코의 임무에 발맞춰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발전,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6] 이처럼 다양한 임무와 관련해 유네스코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강조점을 조금씩 바꾸어 왔다. 초기의 유네스코 활동은 주로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집중하고 '표현의 자유' 같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이른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적인 정보질서의 문제가 대두하고 국내적으로는 인종이나 계급, 성별, 연령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나 정보윤리와 같이 정보사회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 문제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었다.[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 역시 큰 틀에서 유네스코의 방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화 초기 한국 사회의 상대적인 후진성은 이 부문과 관련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에서 일종의 계몽적 역할이 두드러지도록 만들었다. 초창기부터 1980년대까지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과 관련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이 유네스코 본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진 개념들을 한국 사회에 보급하고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집중되었던 것이이 이를 보여준다.[8]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그 뒤를 이은 정보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 역시 정보사회를 성찰하고 공적인 영역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업들로 초점을 이동하게 되었다.[9] 또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본부의 사업을 단순히 매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한국을 세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도 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보화의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 사회의 위상을 반영하여

6)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themes/communication-and-information
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118.
8) 위의 책, 119.
9) 위의 책, 11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계몽적 역할은 일정 부분 종료되고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과 관련한 활동 역시 초점을 이동시키게 된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과 관련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이 주로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집중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10] 물론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고 2000년대에도 정보사회 성찰포럼과 같은 다른 부문의 사업이 무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활동의 핵심 초점 또는 한국 사회가 인식하는 주된 활동 영역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과 연관된 한국 정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그것들은 각각 유네스코 쿠폰, 커뮤니케이션, 정보사회, 저작권, 세계기록유산이다. 물론 쉽게 알 수 있듯이 다섯 개의 주제는 서로 그 차원이 다르다. 유네스코 쿠폰은 구체적인 단일 사업인 반면 나머지 네 개의 주제는 여러 사업들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사회, 저작권과 세계기록유산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사회가 여러 활동들을 포괄하는 일반 개념이라면 저작권과 세계기록유산은 그 내부에 여러 상이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일한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비해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유네스코 본부 뿐 아니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차원은 상이하더라도 시대별 주요 활동의 핵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되어 자료를 취합하는 데는 이런 식의 주제별 분류가 더 효과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과 이와 연관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또 여기서 초점을 맞추었던 자료는 유네스코의 활동과 관련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협력과 주로 관련된 것이다. 자료 수집의 초점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자족적인 차원에서 보기 보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관지어 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유네스코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의 파악과 관련하여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통로가 정부의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이다. 유네스코의 활동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영향은 정부의 정책 영역에 비해 좀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그 영향의 과정에서 개입되는 변수가 많고 순수한 영향의 파악이 좀 더 어렵다는 점에서 부차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10) 위의 책, 119.

유네스코 쿠폰

유네스코 쿠폰은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국 화폐로 외국의 학술 간행물과 각종 과학기자재를 좀 더 쉽게 구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48년에 창안된 일종의 국제통화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책이나 교육, 과학, 문화자료 및 기자재를 서로 사고팔 때 복잡한 환전 절차 없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유네스코 쿠폰에는 서적 쿠폰, 과학기자재 쿠폰, 영화 쿠폰, 여행자 쿠폰 등 4종이 있었으며, 한국은 1961년 8월에 이중 서적 쿠폰과 과학기자재 쿠폰에 가입했다. 이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외무부, 재무부,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재계전문가를 포함한 23인으로 유네스코 쿠폰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쿠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면서 1980년대를 끝으로 유네스코 쿠폰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11]

유네스코 쿠폰과 관련된 자료들은 한국이 가입한 1961년부터 쿠폰의 필요성이 없어진 1991년까지에 걸쳐 있다. 이들 자료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유네스코 쿠폰 오퍼 입찰공고이다. 자료로 보관된 것으로는 한국체육대학과 제주대학, 해양대학, 부산수산대학, 경상대학 등의 입찰공고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이 모두 국립대학이고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이 작성한 1981년 자료(질의회답 2: 1981년 6월 24일-10월 28일)에 첨부된 〈유네스코 쿠폰 업무 관계법규발췌〉를 보면 “과학기재 쿠폰을 각급학교, 국공립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공공연구기관에 배정한다”고 되어 있어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던 것 같다.[12]

그런데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빚어졌고,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쿠폰을 이용하려는 측에서 질의가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정부의 유

1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에서 지구촌 나눔의 주역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 63-65 및 유네스코 뉴스, 2019년 5월호, 20. 한편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이 작성한 1981년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 쿠폰과 관련해 “서적 쿠폰, 과학기재쿠폰 및 교육영화쿠폰으로 구분하여 배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며 실제 첨부된 유네스코 쿠폰 업무 관계법규발췌에서도 쿠폰배정과 관련하여 3종의 쿠폰이 나열되어 있어 실제로는 3종의 쿠폰에 가입한 것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체 자료에서 2종에 가입했다고 서술한 것을 보면 실제로 교육영화쿠폰의 활용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60년사에 따르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정부가 책정해 준 10만 달러를 기반으로 1961년 11월 각 대학 교수와 학회, 은행 등에서 유네스코 쿠폰 신청을 받아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신청자 1명을 제외하고 56개 기관 및 개인이 신청한 대로 쿠폰을 배정했다고 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60년사, 65). 하지만 대학이나 학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어디까지가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해석이 이루어졌다. 위의 자료는 의약품인 진단용 시약을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코자 하는 경우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회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서 보건사회부는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한 반면 문교부에서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유네스코 쿠폰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도 실제 현장의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13] 그리고 민원인의 질의에 "귀하가 1981.3.2.자 당부에 제출하신 의약품 수입허가 취득여부 질의서는 관계기관과의 검토로 인하여 상당기간 처리지연되었기에 우선 통보합니다"라고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면 실제로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논란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14] "유네스코 쿠폰 배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1991)와 "지정기부금 손금 처리 및 유네스코 쿠폰 배정 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1991)와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나 "유네스코 쿠폰 및 외환수표에 의한 외국정기간행물 직송 불법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1965)으로 되어 있는 문화체육부의 자료도 이런 논란의 존재를 보여준다.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 방법이 이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보니 유네스코 쿠폰의 부당신청과 부당한 사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자료군은 바로 이와 연관된 것이다. 이들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주축이 되어 유네스코 쿠폰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감사하고(1986) 유네스코 쿠폰의 부당배정신청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네스코 쿠폰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실질 감사(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외자 구매 관계)"(1974)라는 자료가 보여주듯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외 유네스코 쿠폰의 사용과 관련된 논란은 아니지만 "1981년 유네스코 쿠폰 계약물품중 미납품에 대한 조치"(1983)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처럼 이용과정에서 불법 또는 계약위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한다. 이는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 쿠폰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았고, 연간 10만 달러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이루어질 만큼 쿠폰 이용과 관련한 경쟁이 치열했음을 시사한다.

---

1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60년사에는 유네스코 쿠폰 제도의 시행 결과 "수출입 수속이 간단하며 염가로 신속히 입수할 수 있었다"(64)고 서술되어 있으나 당시의 일반적인 절차에 비해 어떤 점에서 어떻게 간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14) 또는 부처간의 관점 또는 권한의 차이가 논란의 빠른 해소를 가로막는 요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자료들은 유네스코 쿠폰을 이용해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이다. “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물품의 통관심사(회신)”(1978)와 같은 관세청의 자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발견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유네스코 쿠폰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그 이용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추후 자료가 보완될 경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물품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이용하였으며 그에 대해 정부(행정부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상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자료들은 실제로 유네스코 쿠폰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문화공보부의[15] 자료이다. 여기에는 “외국정기간행물(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수입업 허가”(1970)에서부터 “유네스코 쿠폰 배정에 관한 협조”(1970), “유네스코 쿠폰 구매시 수입통관 제비정산”(1980) 등 실무적인 사항에 덧붙여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네스코 쿠폰 수입실적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유네스코 쿠폰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자료가 세심하게 분석된다면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쿠폰의 활용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었으며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을 장려 또는 억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자료는 유네스코 쿠폰 가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논의를 담은 자료이다. 문교부에서 1961년 6월에 마련한 “유네스코 쿠뽕제도 가입의 건”은 유네스코 쿠폰 제도 가입의 목적과 연간소요액, 쿠폰 배정기구, 쿠폰 발행기관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유네스코 쿠폰 제도에 가입하여 “유네스코 사업의 협조는 물론 우리나라 교육, 과학, 문화의 창달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그 목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네스코 사업의 협조’가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당시의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체제하에서 동서의 대립 때문에 유엔의 가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영 대립의 선을 따라 외교관계의 확산에도 제한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연대 또는 최소한 협조관계의 구축은 정치외교적인 선을 우회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시킬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초기 유네스코 쿠폰은 신생독립국이자 한국전쟁의 여파로 더욱 피폐해진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유네스코라는 통로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와 연결되고자 했으며

15) 시기에 따라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등의 상이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와 연결되는 수단으로서 유네스코 쿠폰의 의미는 약화되고 유네스코 쿠폰 제도의 애초 의도였던 기능적 측면이 점차 부각되었다.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1980년대의 자료에서 보이듯이 입찰공고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은 한편으로 유네스코 쿠폰의 이용과 관련한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드러내는 것과 아울러 유네스코 사업에 대한 협조라는 우리 정부의 유네스코 쿠폰 제도 가입의 일차적 목적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부문과 관련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업은 학술회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출판물을 보급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었다.[16]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1980년에 열린 제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연구에 관한 국제위원회(맥브라이드 위원회)가 생산한 보고서가 채택되어 서방 언론 중심의 정보 유통 체제에서 벗어나 균형된 정보 유통을 이룰 것을 주장하는 신국제정보질서를 유네스코 본부가 주창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유네스코가 국가 간의 격차를 줄여 새롭고 보다 공명정대한 세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 계획(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PDC)의 설립을 결의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관련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1981년 11월에 '새 국제정보질서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맥브라이드 위원회의 보고서를 번역해 "세계는 진정 새로운 정보질서를 원하는가"를 발간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중심적인 활동 영역으로 삼게 된 것이다.[1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발맞춰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료도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중반에 집중되어 있다. "제5차 아시아 방송사회의"(1963)에 참석한 유네스코 관계자들을 다룬 자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1978년의 "유네스코 통신정책 회의", 1980년의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 개발 회의", 같은 해의 "제1차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IPDC) 회의", 1981년의 "유네스코 IPDC 정부간 위원회 2차 회의", 같은 해의

1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127.
17) 위의 책, 120-121.

“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IPDC) 정부간 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 보고”, 1985년의 “유네스코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IPDC) 제6차 회의” 등 유네스코가 주도한 회의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활동 결과 1985년에는 “유네스코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간 이사회 이사국 피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200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제21차 IPDC 정부간 이사회 회의 개최)

하지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이 시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중점을 두었던 신국제정보질서의 구축이라는 것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었다는 점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된 점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1985년에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가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피선된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1980년대 중반까지 유네스코 주도의 활동에 대한 참여가 주를 이루었던 정부의 활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대해 독자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1986년에 발간한 “정보, 통신 산업의 국제화 전략”을 비롯해 여러 국책 연구소들을 통해 발간된 다양한 보고서들은 그것이 얼마나 실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유네스코의 활동에 자극된 한국 정부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1990년대가 위성방송의 확산이나 정보사회의 발전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전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지형이 변화하면서 주로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정보질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정보화 선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한 2000년대에는 2010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로의 발돋음을 위한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처럼 정보사회 선도국가로서의 고민을 담은 논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초점의 변화 과정에서는 2000년 9월 이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연속적으로 개최한 ’정보사회 성찰포럼’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인 사회적 의제의 설정과 확산의 틀이 상당 정도 갖춰진 시기라는 점에서 당시 이 주제와 관련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주제 관련 자료들은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읽힐 수 있을 것 같다. 유네스코 쿠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처음 유네스코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설정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그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유네스코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도움을 받아야 할 중요한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상호간의 관계는 좀 더 수평적인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수행했던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사회

정보사회와 관련된 자료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료와 구분이 다소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주제를 굳이 따로 분리시킨 이유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수행했던 역할과 의미가 별도의 논의를 요구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는 정보사회 관련 자료들은 한편으로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드러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의제 설정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정보사회 관련 자료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보사회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보니 그 속성상 1980년대 이후의 자료부터 발견된다. 먼저 유네스코 정부간 정보학 위원회(IIP)와 관련된 일련의 자료가 있다. 이는 유네스코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촉진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설립, 운영한 것인데[18] 당시 한국 정부는 이에 참여할 대표를 선정하고, 정보학 계획 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되는 등 유네스코와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85년에 “정보화 사회와 교육”이라는 유네스코 발간물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막 개막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환기시켰으며, 1994년에는 “뉴미디어와 초정보화 사회: 유네스코

18) 위의 책, 122.

커뮤니케이션 기초 자료집"도 발간되었다. 또 정보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급속한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정보윤리사업'을 시작하고 199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제1차 정보윤리 국제회의'를 개최했던 유네스코 본부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일련의 학술 세미나와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했다. 특히 2000년 9월 이후 연속적으로 개최된 '정보사회 성찰포럼'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펼친 정보윤리 사업이기도 하다.[19]

그런데 이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의제설정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5년부터 국책연구소를 통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일련의 정부간행물이 그를 보여준다. 물론 1985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나온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와 "고도정보사회로의 초대"는 정보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의 자료에서도 한국전산원의 "정보사회의 개념 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1996)처럼 추상적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1992년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정보사회의 정보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펴낸 것에서 확인되듯이 정보사회 관련 논의가 급속히 구체화되는 것도 볼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는 미국 상무부가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보고서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1995) 보다도 앞서 정보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또 통신개발연구원의 "아태지역의 정보사회 진입을 위한 국제협력방안"(1996)이나 한국전산원의 "정보화 국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연구개발 보고서"(1997), 정보통신부의 "APEC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및 조사연구"(2002)와 같은 보고서들은 단지 우리 사회 내부와 관련된 활동 뿐 아니라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주도 능력이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 한국전산원의 "정보사회의 정보 이용과 권익보호 방안"(1997)은 유네스코의 정보윤리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의제가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처럼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책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정보사회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유네스코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자료도 존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펴낸 이정택의 "국제기구(OECD, UNESCO 등)와의 공

1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123-124.

동연구(2003): 정보통신기술 인력의 능력개발과 인력교류 활성화"이 그것이다. 또 2006년에는 임성호가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보 사회 정상회의 및 유네스코 총회 아젠다 분석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2003)은 시민사회가 정보사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보사회 관련 자료들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국제기구와 한국 사회의 매개 역할에서 일종의 우리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와 의제 설정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며 협력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여 우리 정부의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의존이 다소 약화된 것과 아울러 우리의 시민사회가 성숙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는 여기에서 수집한 5개 영역의 자료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한편으로 저작권이라는 주제가 산업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유네스코의 일차적인 관심 영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과 아울러,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사이의 논쟁에서 보이듯이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저작권의 개념이 일정한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 시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적 배려가 중지되고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던 1980년대말 이후인데 그 과정에서 주요 논점이 되었던 것은 지적재산권의 주요 보유국인 서구 국가들에 의한 지배 문제였다.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연관된 저작권 관련 자료로는 1958년의 "유네스

20)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관련한 계기로는 흔히 1960년의 4.19 혁명과 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을 꼽는다. 4.19 혁명이 시민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면 민주화 대투쟁은 그 성숙의 계기로 역할했다는 것이다. 정보사회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그 초점이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종류에 맞춰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는 점과 아울러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코 출판물 교환 국제협정에 관한 건"을 제외하면 1980년대에 개최된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합동회의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 시기가 저작권의 강화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저작권의 강화에 따라 제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저작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정부와 어떤 식으로 협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한된 자료에 기반을 두고 판단해 본다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 자료의 제공에 기여하고 그를 통해 저작권 강화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1990년대의 세계기록유산 사업 이후 2000년대에 무형유산과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펴낸 "무형유산 정보화와 지적재산권 보호"(2013)가 나오기도 했다.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은 정보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5개의 주제 중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문이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사업 자체가 1992년 유네스코의 '세계의 기억' 사업으로 시작되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 자료의 망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며, 세계기록유산으로의 등재라는 목표가 뚜렷한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관심을 기울였던 사업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 중반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된 시기였다.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기초자치구 의회와 광역자치구 의회가 구성된 것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는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장도 선거로 선출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각 지역은 타 지역과 구분되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지역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활발히 펼쳐 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 지역의 전통성을 부각시키고 내부인들에게 소속감과 외부인들에게 매력요인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파악되어 지역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의 사업에 우리 정부가 매우 빠르게 대응한 사업으로도 의미가 있다. 사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유네스코와 회원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되는 사업이다. 유네스코의 홈페이지에 서술되어 있듯이 "유네스코는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유네스코는 1997년에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정보 제공 및 선도적 역할이 이루어진 바, 1998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문화재관리국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유네스코 본부의 세계기록유산 신규등록 심의 일정과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가위원회 설치를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96년 자료인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와 “참고자료: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 “승정원 일기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서 작성 협조에 대한 회신” 등이 이런 협력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이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추가 등재 대상의 발굴과 등재 신청을 위한 협력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직지심체요절]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대표적이다. 2001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청주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미소장국인 한국이 등재시키는 전례가 없는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나아가 2004년에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기념하기 위해 기록유산의 보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2년에 한 번씩 수여하는 유네스코 직지상(영어: 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이 제정되기도 했다.

한편 세계기록유산이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자료도 다수 발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2011)와 광주광역시에서 펴낸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 되다-5.18 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의 “남한산성 :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나”(2014),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2018), 부산문화재단이 펴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2006일의 기록”(2018)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청주시 등이 개최한 “(유네스코 아·태 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 제2, 3차”(2004)와 청주시 등이 개최한 “직지상2.0 기록유산 라운드 테이블 : 직지, 세상을 깨우다”(2016) 등은 유

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협력 활동이 중앙정부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세계기록유산이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그와 관련된 출판활동이나 학술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한국국학진흥원 등이 참여해서 작성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목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결과 보고서”(2010) 등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연구가 그 하나라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박경환의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2008), 장은진의 “기록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2016), 장경준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부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2018)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 국민대학교의 석사논문인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국제정치 : 한중일 사례를 중심으로”는 한중일의 사례를 통해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경쟁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단행본 출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형준의 “(교과서에 나오는)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 대한민국”(2011)과 신광철의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2012), 장용준, 이다운의 “(유네스코가 선정한 인류의 보물)우리 나라 세계 기록 유산”(2012), 김윤경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기원전 1700년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2015), 김문기의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2015) 등이 그것이다. 이외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에서 방영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집. 4부, 승정원일기, 잠들어 있는 조선의 역사를 깨우다 [비디오녹화자료]”(2014)와 KTV에서 방영된 “〈KTV 중계석〉 조선왕조실록, 그 숨은 이야기 -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기특한 토크 콘서트” 등의 영상 자료도 있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자료들도 있다.

세계기록유산 관련 자료들은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원래 유네스코 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의 의미를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 사업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은 성과는 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를 통해 내용과 의미가 확산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중앙 및 지방 정부, 시민사회의 의미 공유 및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5개의 주제로 나눠 특히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수준으로나마 발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 자료의 양은 물론 질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이 주제와 관련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가에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 쿠폰과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우리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존재했고 우리 정부의 몰입도도 매우 높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도 극히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의 협력 관계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사회는 그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차이는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쿠폰과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고유한 독자 사업이라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사회, 저작권의 문제는 유네스코의 관심 영역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지향이 굴절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이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된 것은 개도국에 대한 배려의 종료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요구의 압력으로 저작권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진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와의 협력이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5개의 주제는 시기별로도 부각된 시기에 차이를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 쿠폰 관련 자료가 1961년부터 1991까지에 걸쳐 있고 주로 198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1980년대 초반부터 커뮤니케이션과 저작권 관련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후 정보사회 관련 자료가 뒤를 이은 반면, 세계기록유산 관련 자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별 변화는 한편으로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시기별 중점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 및 우리 사회가 유네스코에 기대했던 것이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쿠폰 관련 자료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유네스코와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는 일종의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상이 변화하여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네스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자료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 정부 사이 협력 관계의 변화 양상을 다른 부문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교해 본다면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차이가 각 부문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 정부 사이의 협력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여러 영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공통점은 앞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의 고유한 목표를 지키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에 기여할 길을 찾는 과정에서 좋은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문화분야 해제

조 두 원 박사(경기문화재단)

1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1972년)

정 책

정부 세계유산협약 가입

1. 국내 정책 변화

- 2019년 11월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14건,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16건을 보유하고 세계유산 사업은 우리의 문화유산정책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유산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음.
- 한국은 지난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고, 이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를 마련하였음.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특히 1995년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불국사/석굴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건의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 관련 정책들이 정비되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률 정비가 이루어져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서 제정 및 시행 중인 세계유산 관련 자치법규는

34개가 존재함.

- 위 자치 법규는 국내 세계유산 지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지, 잠정목록 등재추진지 등지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가 각 지자체에서 가능해지도록 하는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1)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OWHC-AP) 설립(2013.12 경주 설립)

· 세계유산도시기구 내 아태지역 국내외 회원도시 관리에 더해 차세대 교육사업과 시민 홍보사업에 주력중임.

· 세계유산과 시민, 도시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세계유산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가치 공유가 필수임.

· 그간 국가나 지자체 등 관주도의 유적물 위주 관리방안으로, 세계유산정책이었으나, 세계유산 등재와 이를 이용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2018.1.31. 시행)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3)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6.11. 발의)

· 세계유산과 관련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음.

·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운영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도 들어 있음.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7.2.8. 개정, 2018.2.9. 시행)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체계 및 주민협의회가 공고하게 결성될 수 있는 데에는 문화재보호법 이외에 이 지역에 추가로 적용되기 시작한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고도보존육성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古都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곳 주민생활을 개선함으로써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2004년에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으로 처음 제정된 후 2011년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때 보존 뿐 아니라 고도 육성을 위한 주민 생활 개선과 관련한 항목이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5) 각 지자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조례

일렬 번호	조례명	출처
1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4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5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6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7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8	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9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 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1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3	보성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4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5	서천군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6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17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8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19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1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2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3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4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5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6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7	전라남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8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9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30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31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32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33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34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한국위원회 창립(1999년 4월)

○ 정책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5년 한국의 문화유산 3점(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을 세계유산목록에 처음으로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국내 문화재 분야의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ICOMOS 가입과 함께 전문 조사, 연구 및 교류 사업을 추진할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창설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시 되었다.
- 한국 정부가 시행한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급증하였고, 고인돌, 경주역사지구의 세계유산 추가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준비 및 국제활동이 필요하다는 내부 요인도 작용하여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유하였음.
- 이러한 배경하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1999년 4월 1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ICOMOS의 국가위원회 형태로 창립되었다.
- 당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권태준 사무총장, 고병익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등 문화재 관련 인사 및 기관 대표를 포함한 25명이 참석하였음.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10주년 기념을 통해 '이코모스 코리아 비젼 2000'(ICOMOS- KOREA VISION 2020)[21]을 만들었다.

일렬번호	비 젼
1	국제적 위상 제고 (1) ICOMOS 총회 유치 (2) 각종 국제회의 참여 확대 (3) 아태지역 협력 강화
2	국내적 인식 확대 (1) 문화유산 홍보 강화 (2) 유산관리 전문가 교육 (3) 회원 확대
3	보존관리 방안 개선 (1)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2) 보존관리 방법 연구 개발 (3) 보존관리 매뉴얼 발간 보급

21) 출처: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학술행사 자료집

일렬 번호	비 젼
4	세계유산 이해 증진 (1) 잠정목록 대상 조사 연구 (2)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3) 대중적 홍보기회 확대
5	조사연구 활동 강화 (1) 학술연구 기회확대 (2) 연구자료 번역 출간 (3) 학술발표회 정례화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설립을 통해 다양한 국내 전문가들이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ISC)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 이런 활동을 통해 ISC 내 전문가들 간 네크워크 형성이 가능하였고, 현재 국내 전문가 현황[22]은 다음과 같다.

ISC	주요 활동내용	+활동 중인 회원
PRERICO	President	2 Expert
ISCARSAH/ICOFORT	Vice President	
CIVVIH	Borad member	3 Expert, 1 Associate
ICTC	Voting Member	2 Expert, 1 Associate
ICLAFI	Voting Member	2 Expert
ICORP	Voting Member	1 Associate
ISCS	Voting Member	1 Expert
ISCCL	Voting Member	2 Expert, 1 Associate
IWC/SBH/ICIP/CIAV	Voting Member	
13 ISCs; 25 Expert members, 4 Associate members = 29(23)		

- 현재 이코모스에는 28개 ISC가 존재하며,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에 관한 ISC의 정관이 이코모스 총회를 통해 통과되어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 Water and Heritage가 ISC 구성을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한국위원회 회원들의 ISC 활동은 과거 20년간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적은 편이다.
- 28개 ISC 중에서 13개 ISC에서 활동중이어서 각 ISC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국제 동향을 국내에 공유하고 국내 현황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위해 국내 ISC구성도 필요하다.

22) 출처: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학술행사 자료집

연 구

이코포럼 개최: 2010년부터 연 4회 포럼 개최

- 목적: 회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코모스 관련 제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회원 교육 기회로 활용하며, 포럼을 통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유관 기관들 및 인적 자원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이코모스 포럼 개최[23]: 2018년부터 연 4회 포럼 개최

- 이코포럼 명칭 변경 사유: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외연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여 2018년부터 이코포럼에서 이코모스 포럼으로 변경하였다.

연도	회차별 주제	일시/장소
2010	제1차 이코포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개발	2010.04.15./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2차 이코포럼: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점검	2010.06.17./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3차 이코포럼: 이코모스-코리아의 국제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평 확대	2010.09.02./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4차 이코포럼: 민속마을의 현황과 미래: 장기적 보존 대안의 모색	2010.10.21./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2011	제1차 이코포럼: 문화유산 보존관리: 보편원칙과 지역현실 사이의 거리	2011.04.28./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2차 이코포럼: 역사문화환경과 건축가의 작업	2011.06.08./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3차 이코포럼: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발굴	2011.09.08./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4차 이코포럼: 세계유산의 교육과 홍보	2011.11.10./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2012	제1차 이코포럼: 세계유산의 다양성: 유산의 종류와 등재절차의 이해	2012.03.22./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2차 이코포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도시고고유적의 의의와 관리 과제	2012.05.17./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3차 이코포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도시고고유적의 의의와 관리 과제	2012.09.13./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4차 이코포럼: 문화유산 보존원칙 연구 모임 공개발표회: 보존관련 용어에 대한 공부	2012.11.15./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2013	제1차 이코포럼: 국토 및 도시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 관리 방안	2013.03.28./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2차 이코포럼: 수중고고학의 이해	2013.09.05./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3차 이코포럼: 실크로드와 한반도	2013.10.31./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4차 이코포럼: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이코모스-코리아 헌장(가칭) 초안	2013.11.28./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23) 출처: 위와 동일

연도	회차별 주제	일시/장소
2014	제1차 이코포럼: 식민공간의 재편과 저항 'Reform and Resistance'	2014.04.17./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2차 이코포럼: 1914 기념유산 - 용산의 군사유적	2014.06.12./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3차 이코포럼: 세계유산으로서 산업유산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	2014.09.25./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4차 이코포럼: 기후변화와 유산 보호	2014.11.20./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2015	제1차 이코포럼: 유산의 변화상과 보존	2015.04.16./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2차 이코포럼: 일본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쟁점과 대응	2015.09.24./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3차 이코포럼: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2015.11.12./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2016	제1차 이코포럼: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재조명	2016.04.21./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2차 이코포럼: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재조명	2016.06.16./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3차 이코포럼: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재조명	2016.09.08./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4차 이코포럼: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재조명	2016.11.10./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2017	제1차 이코포럼: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재조명	2017.04.13./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2차 이코포럼: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재조명 '한국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7.06.18./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3차 이코포럼: ICO-명사 특강 '한국의 유교유산'	2017.09.14./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제4차 이코포럼: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재조명 '기독교 선교유적'	2017.11.09./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국
2018	제1차 이코모스포럼: 연속된 문화유산 - 가야 고분군	2018.03.29./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2차 이코모스포럼: 살아있는 유산/경관-외암마을/제주 돌문화경관	2018.05.31./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3차 이코모스포럼: 20세기 유산 - 피란수도 부산	2018.09.20./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제4차 이코모스포럼: DMZ의 유산적 가치	2018.11.29./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2019	제1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경관 재발견-개념과 이해	2019.03.28./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제2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경관 재발견	2019.05.23./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제3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유산 재발견-보전과 관리	2019.09.26./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03호 종합강의실
	제4차 이코모스포럼: 문화유산으로서 농촌경관 재발견 보전과 관리	2019./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

세계유산포럼[24]: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재청이 지원하고 세계유산 등재 유산이 소재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세계유산포럼을 주관하였다. 더불어 포럼 개최 시에는 해당 지역에 입지한 세계유산과 주요 문화유산을 답사함으로써 지역의 세계유산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연도	주제	일시/장소
2009	세계유산제도와 등재과정	2009.11.11.~2009.11.12. /경주 힐튼 호텔
2010	세계유산의 보존과 미래가치	2010.11.04.~2010.11.05..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
2011	세계유산의 보존과 미래가치	2011.11.03.~2011.11.04.. /합천 해인사 관광호텔
2012	세계유산 활용과 지역별 적용방안	2012.11.22.~2012.11.23. /금호 화순리조트
2013	세계유산의 등재경향과 우나라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쟁점	2013.07.03.~2013.07.05. /대명리조트 제주
2014	세계유산 보호와 기후변화	2014.11.27.~2014.11.28. /한국국학진흥원(안동시)

○ 이코모스 국제학술위원회(ISC) 및 국가위원회(NC) 관련 국제회의 개최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회원들의 국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코모스 국제학술위원회 회의나 다른 이코모스 국가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18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주최로 중국, 일본, 이코모스 국가위원회와 동아시아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향후 각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며 동아시아 지역 국가위원회 간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일렬번호	회의명	세부사항		일시/장소
1	ICOMOS-IFLA ISCCL 2015 연례회의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5.11.01.~2015.11.06./ 제주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주최	ICOMOS-IFLA ISCCL, 제주특별자치도	
		주제	삶의 경관 다시 돌아보기-일상과 연계된 경관	
2	'16년 ICOMOS CIVVIH 서울회의	주최	ICOMOS CIVVIH,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6.11.14.~2016.11.18./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주제	도시유산과 지속가능성	

24) 출처: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학술행사 자료집

일렬번호	회의명	세부사항		일시/장소
3	ICOMOS ISCARSAH 국제학술 워크숍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7.06.07.~2017.06.09./ 국립고궁박물관
		주최	ICOMOS ISCARSAH,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제	돌, 나무, 흙 건축의 구조특성과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국제 워크숍	
4	PRERICO-ICLAFI 조인트 심포지엄	주관	ICOMOS PRERICO, ICOMOS ICLAFI	2018.10.17.~2018.10.19./ 제주 롯데시티호텔
		주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주제	법, 종교, 유산 그리고 보존에 관한 현재의 이슈	
5	2018 동아시아 이코모스 워크숍	주관/주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주제	새로운 교류와 협력: 동아시아 이코모스 문화유산 보호관리 실천의 최근 동향	

- 시기별 이슈에 대응하는 학술회의 개최

일렬번호	행사명(세부내용)			일시/장소
1	세계유산 하회와 양동마을의 향후 관리 방안의 모색 국제학술회의	주제	세계유산 하회와 양동마을의 향후 관리 방안의 모색 국제학술회의	2010.12.08.~2010.12.10./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
2	재해와 문화유산 보존 워크숍	주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역사도시방재연구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12.21./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주제	재해와 문화유산 보존	
3	하외양동마을 세계유산등재 후 장기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1.08.01.~2011.08.02./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주최	문화재청,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주제	세계유산 하회·양동마을의 장기 보존 관리 계획	
4	강진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등재 추진 국제학술심포지엄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2.10.17.~2012.10.18./ 강진아트홀 소공연장
		주최	전라남도, 합천군	
		주제	강진 고려청자 요지	
5	세계유산협약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2.09.10.~2012.09.12./ 충청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
		주최	문화재청, 충청남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제	세계유산보존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념과 실천	
6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국제학술회의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3.02.25.~2013.02.26./ 대전 리베라호텔
		주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주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전략	
7	제1차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	주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3.02.22./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주관	서울학연구소	
		주제	역사도시와 도시성곽	

일렬번호	행사명(세부내용)			일시/장소
8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주관	한국서원학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3.04.18.~2013.04.19./ 전라남도 장성군 필암서원
		주최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주제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3.05.23.~2013.05.24./ 동양대학교 본관 세미나실
		주최	(사)한국서원연합회	
		주제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10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3.08.05.~2013.08.09./ 경주 힐튼호텔 회의실
		주최	문화재청	
11	울주 대곡천 암각화군 국제심포지엄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4.09.24./국립고궁박물관
		주최	문화재청	
		주제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12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주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6.10.06.~2016.10.0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주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주제	연속유산의 보존관리 활용방안	

○ 연구사업[25)]

일렬번호	일시	사업명	발주처/기타
1	2009.05.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	한국국학진흥원
2	2009.06.12.~2009.12.09.	조선왕릉 능제복원 연구용역 2차	문화재청
3	2009.10.25.~2010.01.24.	한국 소재 실크로드 관련 문화유산 기초자료 정리 용역	문화재청
4	2009.12.10.~2010.09.09.	경주양동마을 책자 발간 대행사업	경주시
5	2010.04.23.~2010.12.19.	조선왕릉 능제복원 연구 용역 3차	문화재청
6	2010.06.16.~2010.12.10.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7	2010.07.12.~2010.12.11.	2012년 정기보고를 위한 연구 용역	문화재청
8	2010.10.15.	「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발간	발행처(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9	2011.03.01.~2011.12.20.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1차년도)	
10	2011.03.01.~2011.12.20.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비교연구 및 보존」 관리계획 신청서 작성(1단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11	2011.12.29.~2012.09.31.	대곡천암각화군 보존 학술조사 연구	문화재청
12	2011.04.03.~2011.12.16.	세계유산 보존 원칙 제정 연구 지원	문화재청
13	2011.04.04.~2011.12.16.	세계유산 잠정목록 발굴 연구	문화재청
14	2011.08.08.~2012.02.07.	서울 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15	2011.10.26.~2011.12.23.	서원· 전통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증진 연구용역	국가브랜드위원회
16	2011.12.26.~2012.04.25.	경주 석굴암 석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연구	경주시
17	2012.02.01.~2013.01.31.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2차년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5) 출처: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학술행사 자료집

일렬번호	일시	사업명	발주처/기타
18	2012.03.09.~2012.12.10	세계유산 보존원칙 제정 2차 연구	문화재청
19	2012.07.30.~2012.06.30.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추진단
20	2012.07.30.~2012.12.20.	세계유산협약의 유·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여섯째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1	2012.07.30.~2012.12.20.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시스템 구축 기축 연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2	2012.08.14.~2013.10.3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23	2012.09.~2012.12.3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학술용역	(사)한국서원연합회
24	2012.11.19.~2012.12.21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DB 기초구축 연구	문화재청
25	2012.12.27.~2013.3.22.	한국의 전통사찰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6	2012.12.27.~2013.3.22.	한·중·일 정원 원형에 관한 기초연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7	2013.4.1.~2013.12.31.	문화유산 보존원칙 제정 연구(III)-Korea Document(가칭)의 구성체계 정립 및 기본초안 작성 연구	문화재청
28	2013.4.4.~2013.6.3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포함될 도면 제작 및 이에 수반하는 학술용역 (1차)	(사)한국서원연합회
29	2013.5.13.~2013.12.13.	문화재형 지역재생 정책환경 조성 용역	문화재청
30	2013.6.30.~2013.8.3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포함될 더면 제작 및 이에 수반하는 학술용역(2차)	(사)한국서원연합회
31	2013.7.12.~2013.12.20.	세계유산 상시모니터링 지표 시범조사 연구용역	문화재청
32	2014	『석재 열화유형 도해 용어집』 출판	
33	2014.4.11.~2014.12.7.	14년 조성왕릉 자연생태자원조사 연구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
34	2014.8.27.~2015.4.29.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대곡천 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도출	문화재청
35	2014.9.22.~2015.6.23.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보존·관리계획(구상)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상남도
36	2015.2.5.~2015.12.31.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학술용역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37	2015.5.1.~2015.12.20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38	2015.7.28.~2015.12.31.	한국전통산사의 OUV도출과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조사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39	2015.9.16.~2015.12.15.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등재가능성 검토 및 추진방향 도출 연구용역	문화재청
40	2015.11.25.~2016.5.24.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비교연구 용역	고령군
41	2016.3.8.~2017.2.28	'한국의 전통산사'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42	2016.4.12.~2016.12.3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도출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43	2016.7.1.~2017.1.3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가치 비교연구 용역	김해시, 함안군
44	2017.5.11.~2017.12.31.	제주 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45	2017.6.1.~2017.10.31.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및 동향파악	문화재청
46	2017.6.15.~2017.12.14.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의 기초조사 학술용역	(재)경기문화재단
47	2017.11.30.	『Urban Heritage and Sustainability 도시유산과 지속가능성』 출판	
48	2019.1.25.~2019.6.27.	태릉선수촌 존치를 위한 유네스코 제출 공식보고서 연구용역	대한체육회 선수촌

○ 대한민국 세계유산(문화유산분야) 연구논문 목록[26)]

목록	논문제목	링크
석굴암과 불국사	석굴암 본존불의 위상에 관한 고찰과 제언(2015, 고웅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0131#none
	世界遺産 慶州 佛教遺跡의 風水的 特性 研究-石窟庵·佛國寺·皇龍寺址를 中心으로(2016, 박대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9169#none
	균열분석을 통한 석가탑의 물리적 훼손원인에 대한 예비연구(2012, 이민정, 김영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9329#none
해인사 장경판전	세계유산의 풍수적 관점 -종묘 해인사장경판전 경주월성 황룡사지 분황사를 중심으로(2015, 최맹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0101
종묘	-	-
창덕궁	지리적 관점에서 본 세계유산 창덕궁의 현장체험학습 설계 및 모바일 시스템 구현(2013, 강영옥, 한상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01433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일반지표의 분석(2016, 이혜은, 정주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92794#none
	세계문화유산 교육의 새로운 시도 -모바일 기반 현장체험학습(2017, 오영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13214#none
수원 화성	세계유산 지역주민, 그들은 행복한가?- 수원화성 지역의 불인정 지각과 정주의식을 중심으로(2015, 황희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3301
	참여관찰에 의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쓰레기 관리방안 탐색(2013, 오순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57436
	조선 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 화성의 문화콘텐츠 활성화(2014, 김준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84209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 복원과 전망 -21세기 한국문화의 위상과 성찰(2006, 심승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10644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본 수원 행궁동 마을르네상스 분석 (2015, 유기현, 김진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15949
경주 역사지구	재해로 인해 문화관광지에서 나타나는 제(諸)현상 분석 -2016 경주지진을 대상으로(2018, 이남희, 한진석, 김남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3778
	경주 동궁과 월지의 조경관리 방안(2014, 강태호, 우문동)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7023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문화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편의시설물을 중심으로(2010, 이재익, 남현우, 김재원, 김영우, 강미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42262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연구 - 고창, 강화, 화순 고인돌 유적지 안내판 디자인을 중심으로 (2009, 허진하, 남현우, 임인동, 이재익, 임영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42090
조선왕릉 40기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관광자원화 방안(2013, 박경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82190
	조선왕릉 활용사업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4, 박양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83146
	경기도 소재 조선왕릉의 관리체계 개선방안(2016, 남지현, 김흥식, 조희은)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17107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경주 양동마을의 외래식물 현황(2012, 김기송, 윤정원, 김용식, 신현탁, 이명훈)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83224

26) 출처: DBpia, http://www.dbpia.co.kr/

목록	논문제목	링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하회·양동마을의 문화경관(2006, 신상섭)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70799
	제도화에 따른 경주 양동마을의 정주패턴 및 의식 변화(2011, 강동진, 김미연, 박능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26558
	문화유산관광 평가속성(HISTOQUAL)이 관광객 만족,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경주 양동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2016, 이후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97698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변화 분석에 따른 주민자력형 보전체계 정립 -등재(2010.7.31) 이후 2012년 2월 29일까지 (2012, 김미연, 강동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50263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으로 인한 양동마을 전통의 재구성 (2014, 윤현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68130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의 초가 복원정책에 관한 비판적 분석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 관점에서(2013, 김미연, 강동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26498
	역사마을의 참여형 보존관리계획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하회·양동마을 보존협의체 지원조례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2011, 강현미, 박소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17861
남한산성	CVM을 이용한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보존가치 평가(2018, 신영미 이승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53354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화성과 남한산성의 비교(2016,김숙진, 조아라)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92801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관리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5, 조두원)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93251
	세계유산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산성도시 남한산성의 경관 분석 (2013, 최재헌, 이혜은)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92884
	세계문화 유산이 된 남한산성을 다시 찾다 그 때 있었던 슬픈 이야기(2016, 곽라분이)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36759
	남한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2014,이수진, 전유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805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성곽 유산의 활용: 중국 핑야오성과 원상도(Xanadu) 유허지를 중심으로(2012,최재헌, 이혜은)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92787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 방안(2017, 정재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74492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와 건축(2015, 노중국)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0102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연구 : 공주 공산성을 중심으로(2018, 장충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14457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복식 재현 연구(2016, 라선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16967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 문경새재 옛길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5, 최종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18853
	백제 복식의 체험 콘텐츠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9, 라선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67211
	백제문화권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교토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9, 조재민, 윤혜영)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0992
	익산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 활용 연구 (2017, 이명진, 원도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91893

목록	논문제목	링크
	휴대용 가상현실 안경을 접목한 백제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2018, 이완복, 유석호, 강병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13171
	백제의 대외 교류사 인식에 대한 단상(2017, 김영관)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29659
	송산리고분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백제 복식 제안(2016, 라선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01551
	세계문화유산 백제성곽의 보존관리와 활용사례에 관한 문화재행정적 접근방안 연구(2017, 진칠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13815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2016, 강연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5769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조선조 사찰림의 영역과 관리에 관한 연구 : 세계유산 '산사'를 중심으로(2019, 이태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167941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지역공동체의 실제: 7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중심으로(2017, 김숙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57571
	산지 승원 선암사의 세계유산 가치 연구(2019, 김경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3998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한국의 서원인 돈암서원의 보존을 위한 활용(2018, 김선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399324
	전북지역 서원(書院)의 현대적 활용 방안(2016, 진성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97679
	안락서원(安樂書院), 공간가치의 회복전략(2017, 박상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26539

○ 대한민국 세계유산(자연유산분야) 연구논문 목록[27)]

목록	논문제목	링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자치지방정부의 PR커뮤니케이션 전략 - 제주, 태즈메이니아, 하와이를 중심으로(2017, 이서현, 고영철)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93551
	제주도의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에 대한 의제설정 및 규제정치 분석(2018, 김효선, 진상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935
	제주해녀의 유산화: 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2018, 유철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6082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브랜드화 전략 연구(2018, 윤병선)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00812
	제주밭담 농업 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지도(2014, 정승훈)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3069
	세계자연유산 방문객 인식에 따른 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주를 중심으로(2007, 고계성, 임화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2310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후보지로서 거문오름의 가치와 의미(2016, 기진석, 전용문, 류춘길, 김상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50790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관광(2009, 고선영)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4828

27) 출처: DBpia, http://www.dbpia.co.kr/

목록	논문제목	링크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일대의 화산활동사(2017, 안웅산, 홍세선)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70623
	제주도 지질공원 지질트레일 활성화 사례 연구(전용문, 고정군, 기진석, 이수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50778
	제주도 하논 화산분화구의 지질유산 가치와 활용방안(2019, 윤석훈)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5737
	지질유산과 지질모니터링 :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2019, 손영관, 우경식, 권창우, 김련, 전용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80266
	제주도 우도 지역 내 지질유산의 다양성과 가치(2013, 우경식, 윤석훈, 손영관, 김련, 이광춘, 임종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83141
	헤리티지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컬 브랜딩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내 30개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2013, 정운성)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64404

사 업

○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 관련

- 통합보존관리체계 구축: 2000년 이후로 급증하는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 이후에 불거지는 보존관리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는 2005년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유산의 가치와 더불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보존관리체계를 면밀하게 심사하고, 보존관리체계가 미비하면 아무리 훌륭한 유산이라도 등재의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사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특히 여러개의 단위유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의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하나의 통합된 보존관리체계이다.

대한민국 UNESCO 세계유산 목록[28]					
	유산 명칭	영문	등재 년도	문화/자연 유산	등재기준
1	석굴암과 불국사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1995	문화	i, iv
2	해인사 장경판전	HaeinsaTempleJanggyeongPanjeon,theDepositoriesfortheTripitakaKoreana Woodblocks	1995	문화	iv, vi
3	종묘	JongmyoShrine	1995	문화	iv
4	창덕궁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1997	문화	ii, iii, iv
5	수원 화성	Hwaseong Fortress	1997	문화	ii, iii
6	경주 역사지구	Gyeongju Historic Areas	2000	문화	ii, iii
7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2000	문화	iii
8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2007	자연	vii, viii
9	조선왕릉 40기	RoyalTombsoftheJoseonDynasty	2009	문화	iii, iv, vi
1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2010	문화	iii, iv
11	남한산성	Namhansanseong	2014	문화	ii, iv
12	백제역사유적 지구	Baekje Historic Areas	2015	문화	ii, iii
13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2018	문화	iii
14	한국의 서원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2019	문화	iii, iv

28)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 석굴암 · 불국사

유산명	석굴암 · 불국사	
영문 유산명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위치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등재기준	i, iv	
등재연도	1995	
요약[29)]	- 석굴암(石窟庵)과 불국사(佛國寺)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이다. 석굴암은 불상을 모신 석굴이며, 불국사는 사찰 건축물이다. 두 유산은 모두 경주시 동남쪽의 토함산(吐含山)에 있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두 유산은 8세기 후반에 같은 인물이 계획해 조영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었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로 원형의 주실 중앙에 본존불(本尊佛)을 안치하고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불국사는 인공적으로 쌓은 석조 기단 위에 지은 목조건축물로 고대 불교 건축의 정수를 보여 준다. 특히 석굴암 조각과 불국사의 석조 기단 및 두 개의 석탑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시사점	- 원형 환경 보존 및 회복 차원에서 국제보존헌장에 근거하여 현대 과학기술의 뒷받침으로 석굴암 내 결로 및 응결현상 방지 및 수(水)환경 조정계획을 비롯한 면밀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29)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2) 해인사 장경판전

유산명	해인사 장경판전	
영문 유산명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위치	경상남도(慶尙南道) 합천군(陜川郡)	
등재기준	iv, vi	
등재연도	1995	
요약[30)]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海印寺) 장경판전(藏經板殿)은 13세기에 제작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봉안하기 위해 지어진 목판 보관용 건축물이다. 주불전 뒤 언덕 위에 세워진 단층 목조건물로 15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부터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로 지어졌고 창건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장경 자체도 인류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지만 판전 또한 매우 아름답고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이다. 장경판전은 두 개의 긴 중심 건물 사이에 작은 두 개의 건물이 하나의 마당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건물 자체는 장식적 의장이 적어 간결, 소박하며 조선 초기의 목구조 형식을 보여 준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시사점	- 해인사 장경판전의 건축적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운 바,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을 민간인이 공유·체험할 수 있는 해석(Interpretation)센터 마련이 요구 시됨. • 참고: 조선왕릉 홍보관 - 항몽유적 가치성 제고: 국내 고려시대에 조성된 항몽유적지들과의 연계성 확보 및 국제 항몽유적과의 연계성 연구	

30)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3) 종묘

유산명	종묘	
영문 유산명	Jongmyo Shrine	
위치	서울시(Seoul City)	
등재기준	iv	
등재연도	1995	
요약[31)]	-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종묘(宗廟)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이다. 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문무백관(文武百官)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한 공간으로 왕실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보여 준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으로서 공간계획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그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중건하였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 중심 건물인 종묘 정전(宗廟 正殿)은 정면이 매우 길고 건물 앞마당과 일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오랜 정신적 전통인 조상숭배 사상과 제사 의례를 바탕으로 왕실 주도 하에 엄격한 형식에 따라 지어졌으며 현재에도 조선 시대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종묘제례(宗廟祭禮)라 불리는 제사 의례가 행해지고 있으며 제사에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의 음악과 춤이 동반된다. 종묘의 건축과 관리, 제례 봉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조선왕조의 공식 기록으로 상세히 남아있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ec%a2%85%eb%ac%98/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시사점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가치성의 깊이가 더함. - 이와 관련 종묘를 중심으로 '세계유산협약'의 유형·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가 앞으로 설립될 세계유산 해석센터와 협력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1)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4) 창덕궁

유산명	창덕궁	
영문 유산명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위치	서울시(Seoul City)	
등재기준	ii, iii, iv	
등재연도	1997	
요약[32]	- 창덕궁(昌德宮)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 시대의 궁궐이다. 건축과 조경이 잘 조화된 종합 환경디자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공간 분위기를 읽게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15세기 초에 정궁인 경복궁 동쪽에 이궁으로 조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애초의 건립 목적이나 도성 내에 자리한 입지도 경복궁과 차이가 있었다. - 창덕궁이 자리한 곳은 언덕 지형으로 평탄한 곳이 많지 않다.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이러한 불규칙한 지형지세를 이용해 궁궐 건물을 경내 남쪽에 배치하고, 북쪽 넓은 구릉에는 비원이라고도 불리는 후원을 조성하였다. 자연 지형을 이용해 건물을 세운 까닭에 궁궐 건축의 전형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뛰어난 조화를 이루는 특색을 지녔다. - 창덕궁은 경복궁의 이궁으로 조선 전기의 약 200년 동안 왕의 통치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고, 소실된 도성 내 궁궐 중 가장 먼저 중건되며 이후 약 250년 동안 조선왕조의 정궁 역할을 했다. 건축사에 있어 조선 시대 궁궐의 한 전형을 보여 주며, 후원의 조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실 정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창덕궁관리소	
시사점	- 세계인의 유산: 뚜껑 없는 박물관으로서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국내외 홍보 및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음. - 유산 가치성 인식확대와 해석: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현재 다양한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32)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5) 수원 화성

유산명	화성	
영문 유산명	Hwaseong Fortress	
위치	경기도(京畿道) 수원시(水原市)	
등재기준	ii, iii	
등재연도	1997	
요약[33]	- 화성(華城)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조선 시대의 성곽이다. 정조(正祖)가 자신의 부친인 장헌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읍치소를 이전하고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방어 목적으로 조성하였다. 1794년 2월에 착공하여 2년 반에 걸친 공사 후 완공되었다. 성곽 전체 길이는 5.74Km이며, 높이 4~6m의 성벽이 130㏊의 면적을 에워싸고 있다. - 처음부터 계획되어 신축된 성곽이라는 점, 거주지로서의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하여 하나의 성곽도시로 만들었다는 점, 전통적인 축성 기법에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그 이전의 우리나라 성곽에 흔치 않았던 다양한 방어용 시설이 많이 첨가되었다는 점, 주변 지형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성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1801년에 간행된 화성 준공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통해 공사의 자세한 전말을 알 수 있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ed%99%94%ec%84%b1/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수원시화성사업소	
시사점	- 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 후 유산구역, 완충구역 설정을 비롯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짐. - 특히 기존 유산구역 인접 및 인근 지역의 도시 개발과 발전은 유산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유산적 가치를 반영하는 구성요소(OUV Attributes)들에 대한 심도있는 중장기 보존관리계획이 마련되어 구현되어야 함.	

33)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6) 경주역사유적지구

유산명	경주역사유적지구	
영문 유산명	Gyeongju Historic Areas	
위치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등재기준	ii, iii	
등재연도	2000	
요약[34)]	-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조각, 탑, 사지, 궁궐지, 왕릉, 산성을 비롯해 신라 시대의 여러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7세기부터 10세기 사이의 유적이 많으며 이들 유적을 통해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신라의 1,0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인의 생활 문화와 예술 감각을 잘 보여 주는 곳이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궁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최근 '신라 왕경복원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따라 왕경복원 프로젝트 추진 시 보존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타당성 확보 필요함	

34)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7)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유산명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영문 유산명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위치	전라북도(全羅北道) 고창군(高敞郡), 전라남도(全羅南道) 화순군(和順郡),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강화군(江華郡)	
등재기준	iii	
등재연도	2000	
요약[35]	- 한국의 고인돌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선사시대 거석기념물로 무덤의 일종이며, 고창, 화순, 강화 세 지역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한 지역에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고인돌 문화의 형성 과정과 함께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 및 동북아시아 선사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가치성연구를 통한 뮤지엄 설립 효과 향상: 고인돌은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 정치체계는 물론 당시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임. ·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 결과는 현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을 중심으로 뮤지엄이 설립되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성 ㅇ니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35)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8) 조선왕릉

유산명	조선 왕릉	
영문 유산명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위치		
등재기준	iii, iv, vi	
등재연도	2009	
요약[36]	- 조선왕릉(朝鮮王陵)은 18개 지역에 흩어져 있고 총 40기에 달한다. 1408년부터 1966년까지 5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왕릉은 선조와 그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며,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한편 선조의 넋을 사기(邪氣)로부터 보호하고 능묘의 훼손을 막는 역할을 했다. 왕릉은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보통 남쪽에 물이 있고 뒤로는 언덕에 의해 보호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이며, 멀리 산들로 둘러싸인 이상적인 자리를 선택해 마련되었다. 왕릉에는 매장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위한 장소와 출입문도 있다. 봉분뿐만 아니라 T자형의 목조 제실, 비각, 왕실 주방, 수호군(守護軍)의 집, 홍살문, 무덤지기인 보인(保人)의 집을 포함한 필수적인 부속 건물이 있다. 왕릉 주변은 다양한 인물과 동물을 조각한 석물로 장식되어 있다. 조선왕릉은 5,000년에 걸친 한반도 왕실 무덤 건축의 완성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자료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시사점	- 초국경유산 등재와 관련 및 남북교류 차원에서 북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재된 조선왕릉 확장 등재 검토	

36)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유산명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영문 유산명	Historic Villages of Korea : Hahoe and Yangdong	
위치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시(安東市), 경주시(慶州市)	
등재기준	iii, iv	
등재연도	2010	
요약[37]	- 14세기~15세기에 조성된 하회(河回)마을과 양동(良洞)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씨족 마을이다. 숲이 우거진 산을 뒤로 하고, 강과 탁 트인 농경지를 바라보는 마을의 입지와 배치는 조선 시대(1392~1919) 초기의 유교적 양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옛 마을은 주변 경관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자양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는 종가와 양반들의 기거했던 목조 가옥, 정자와 정사, 서원과 사당, 옛 평민들이 살던 흙집과 초가집 등이 있다. 17세기~18세기의 시인들은 정자와 쉼터에서 마을을 둘러싼 강과 산과 나무의 경치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를 지어 노래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시사점	- 연속유산으로 등재 시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반면 지역주민보존회 역할 미흡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등재 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 보존회 마련과 함께 현재까지 세계유산 역사마을 보존관리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역사마을로서 인문환경 뿐 아니라 마을 내 살아있는 유교정신문화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사례임. - 역사마을 등재로 국내 타 지역에 사라져가는 역사마을 보존관리 및 등재에도 영향을 줌 · 낙안읍성, 외암리 마을 등	

37)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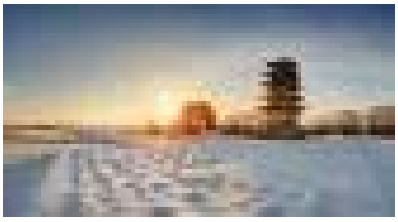
10) 남한산성

(1)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인증서 전달식 공동개최

- (숭렬전 고유제 공동주관 세계유산센터 소장 기쇼 라오 초청)

유산명	남한산성	
영문 유산명	Namhansanseong	
위치	경기도(京畿道) 광주시(廣州市)·성남시(城南市)·하남시(河南市) 일원	
등재기준	ii, iv	
등재연도	2014	
요약[38)]	-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산지에 축성된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조선시대(1392~1910)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의 초기 유적에는 7세기의 것들도 있지만 이후 수차례 축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7세기 초, 중국 만주족이 건설한 청(淸)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다. 남한산성은 승군(僧軍)이 동원되어 축성되었으며 이들이 산성을 지켰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온 성제(城制)의 영향과 서구의 화기(火器)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 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으면서 아직도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남한산성의 성곽 안쪽에는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있다. 남한산성은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등재 준비 시 국내외 국제전문가 및 기구와의 면밀한 협조체계 구성으로 최단시간에 OUV정립 및 보존관리체계 확립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됨 - 등재 당시 권고 사항으로 지역공동체와의 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협력, 교육, 참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사례 학습 및 연구를 통해 현지 상황에 반영하여 발전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 성(城) 여장 복원재료의 진정성 연구 및 기후변화 연계 현장 풍화도 실험과 현장 보존관리에 적용한 사례는 이코모스 본부를 통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남한산성 방문객 루트(주 등산객로)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한 완충 지대훼손과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둔 결과 무분별한 산성리(내부 완충지대)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방문객 관리계획, 실행 가능한 완충지대(내외)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 - 남한산성 등재 후 조성후기 도성방어체계에 대한 논의와 가치성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군사문화경관 차원에서 한양도성(잠정목록)을 비롯해, 수원화성(세계유산), 개성(세계유산), 남한산성(세계유산), 북한산성(등재준비 중), 강화성(등재준비 중)을 묶은 연속유산 등재 논의도 일고 있음.	

11) 백제역사유적지구

유산명	백제역사유적지구	
영문 유산명	Baekje Historic Areas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등재기준	ii, iii	
등재연도	2015	
요약[39]	- 대한민국 중서부 산지에 위치한 백제의 옛 수도였던 3개 도시에 남아 있는 유적은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어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700년 동안 존속했던 고대 왕국으로, 한반도에서 형성된 초기 삼국 중 하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공주 웅진성(熊津城)과 연관된 공산성(公山城)과 송산리 고분군(宋山里 古墳群), 부여 사비성(泗沘城)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官北里遺蹟, 관북리 왕궁지) 및 부소산성(扶蘇山城), 정림사지(定林寺址), 능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群), 부여 나성(扶餘羅城), 그리고 끝으로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익산시 지역의 왕궁리 유적(王宮里 遺蹟), 미륵사지(彌勒寺址) 등으로, 이들 유적은 475년~660년 사이의 백제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은 중국의 도시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百濟化)한 증거를 보여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시사점	-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 과정 중 당해 유산 행정 관할지인 지자체간의 협의 과정 도출 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음. - 공주, 부여, 익산 백제유적지구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등재 전 후 논의되었던 한성백제유적(풍납토성, 몽촌토성 외)기의 유적 확정(Significant Boundary Modifications, Extension)을 염두해 두고 다양한 전문가 회의와 연구, 활용, 보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 향후 확장 등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전에 등재된 세계유산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전체를 구성하는 유산들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공주시, 익산시, 부여군에 분포하는 연속유산인 까닭에 이들을 일관되게 보존관리 할 수 있는 통합체계와 상향식 의사결정이 가능한 실질적인 주민협의회가 결성되어 등재된 첫 사례라는 점이 특이함. - 세계유산등재 이후 도심 발달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인해 공주 공산성(세계유산 구성요소와 유산유산) 인근의 교량 증축 공사와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진행중임	

38)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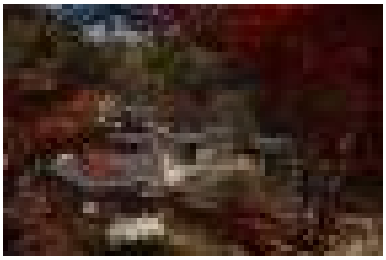
39)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2)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산명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영문 유산명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해남군	
등재기준	iii	
등재연도	2018	
요약[40)]	-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하 '산사')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 유산이다. '산사'를 구성하는 7개 사찰은 모두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종교 활동, 의례, 강학,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다양한 토착 신앙을 포용하고 있다. '산사'의 승가공동체는 선수행의 전통을 신앙적으로 계승하여 동안거와 하안거를 수행하고 승가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울력을 수행의 한 부분으로 여겨 오늘날까지도 차밭과 채소밭을 경영하고 있다. - 한반도에는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대승불교의 다양한 종파를 수용하여 수많은 불교 사찰들이 창건되었는데, 도시에 세워진 사찰들과 산지에 세워진 사찰들로 나누어진다. 이후 조선(1392~1910)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도시 사찰의 대부분은 강제로 폐사되었지만, '산사'를 포함한 산지사찰들은 현재까지 승려들의 신앙과 정신 수행, 일상생활을 위한 승원으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특징을 지속하여 왔다. 즉, 도시 사찰은 거의 사라진 반면 산지사찰인 산사들은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처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수행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산사'를 구성하는 7개 사찰은 종합적인 불교 승원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또한 산기슭에 계류를 끼고 입지하여 주변 자연을 경계로 삼는 개방형 구조를 나타낸다. 최소 규모로 축대를 쌓아 자연 지세에 순응함으로써 사찰의 건물 배치는 비대칭적이고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연 순응적으로 사찰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져 곡저형, 경사형, 계류형이 대표적인 사찰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살아 있는 종교공동체로서 인정받은 사례로 현재도 종교관리단체, 소속 종교인, 인근 지역 출신의 산지 승원 소속 민간운영인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이는 국내 타 종교 유산 세계유산 등재 시 모안이 되고 있음 - 산지 승원 홍보를 위한 부속시설 증축에 있어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호하며 뒷받침하는 완충지역 훼손 우려와 이와 관련 분별력 있는 대안 마련과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초국경유산 등재와 관련 및 남북교류 차원에서 국내와 북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재된 한국의 산지승원 확장 등재 검토	

40)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3) 한국의 서원 (2019년)

유산명	한국의 서원	
영문 유산명	Seowon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경주시, 안동시, 경상남도 함양군, 전라남도 장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재기준	iii	
등재연도	2019	
요약[41)]	-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이며 총 9개의 대표적 서원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소수서원, 남계서원,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그리고 돈암서원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부와 남부에 위치해 있다. - 서원의 필수적인 기능은 학습, 공경, 교류이며 건물의 설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건물들은 자연 속에 놓여 유생들의 자연감상과 심신수양을 도왔으며, 독립 건물 형식의 문루가 서원 시설과 자연을 이어준다. - 중국의 성리학은 한국으로 들어와 변형 및 토착화 되었으며, 기능, 계획 및 건축에서 이 과정이 드러난다. - 이 문화재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서원, 부속건물, 문루, 석비, 주변 환경들이 대체적으로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서원의 교육적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두 개체는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태, 디자인, 재료들은 원형 그대로 온전하다. - 아홉 개의 서원들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수, 유지되고 있으며 인근 관할구역에서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서원들은 서원통합관리재단, 서원운영위원회,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의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문화재청은 서원의 지원과 감독을 담당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대표유산으로 지정 후(2011)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가치성 발굴 및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구함 - 연속유산등재 신청의 타당성 입증: 9개 서원을 선정한 근거와 이를 통합관리하는 보존관리체계 구축 - 향후 9개 연속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와 연계하여 유형과 무형유산의 관계 모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구현 가능한 활용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초국경유산 등재와 관련 및 남북교류 차원에서 국내와 북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재된 한국의 서원 확장 등재 검토	

41)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관련

1)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유산명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영문 유산명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위치	-	
등재기준	vii, viii	
등재연도	2007	
요약[42)]	- 총 면적 18,846㏊ 규모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은 천장과 바닥이 다양한 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용암벽으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히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바다에서 솟아올라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요새 모양의 성산일출봉 응회구(tuff cone), 그리고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 물이 고인 분화구가 있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유산은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 준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국내 최초 자연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방문객 관리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선진지라 할 수 있음 -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바레인 마나마)를 통해 경미한 유산구역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받음	

42)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세계유산 인식 확산 기여

1) 도서 발간[43]

핵심분류	서적 목록	발행연도
세계유산	·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프로그램북	2019
	·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2017-2018)	2018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 세미나 자료집	2018
	· 세계유산협약의 유형·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가치기준 여섯째 항목(OUV Criterion vi)을 중심으로 · 경주권고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세계유산도시 시장단 회의 · 세계유산: 새천년을 향한 도전 · 2011 세계유산 정기보고 아시아 지역회의 결과 리포트	2012
	· 세계유산정기보고아시아지역회의 자료집	2011
	·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한국어판 발간	2007
	· 2006 ESD와 세계유산교육 동북아 ASP 교사 워크숍 발표문(영문)	2006
	· 2002 한국 문화유산 전문가 아세안 방문사업 보고서	2002
	· 부다페스트 세계유산 선언문	2002
문화유산	· 2016 유네스코 유산 국제개발협력 워크숍 자료집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모색'	2016
	·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집	2015
	·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2014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근현대 도시문화유산 보존 국제포럼	2011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근현대 도시문화유산보존 국제포럼 자료집	2010
자연유산	· SDG 15 해설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2018
	· '사례로 본 생물다양성' 한글판 발간	2011
	·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0
무형유산	·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결과보고서 ·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	2009
	· 2005 강릉 국제워크숍 결과 보고서-지속가능발전,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도시간 네트워크 개발	2005
	· 2004 한-아세안 공예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권고안 국.영문	2004
	· 2002 인간문화재 제도 설립관련 운영지침	2002

43)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 유네스코 등재 유산 정보 한국어 데이터베이스(DB) 구축[44] 완료

- 2014년 네이버(주) 공동, 지구촌 전역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4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2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

정 책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제정 배경(2003년)

- 유네스코가 문화면에서 행한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은 세계 문화 자연유산 보호제도를 1972년에 제정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근거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각국의 유물, 유적, 자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음.
- 그러나 이 세계유산 제도는 노래, 춤, 의례 같은 무형유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1972년 이래 많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호제도를 설치할 것을 권유해 왔음.
- 1989년 제 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전통문화와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확인, 보호, 전승, 보존,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등에 관한 것을 촉구하였음.
- 2003년에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제정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30%에 해당되는 16건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을 보유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협약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 유네스코에 인간문화재 제도[45]로 역할 모델을 하였던 한국 무형문화 분야는

45)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 제도 보급 권고(1993년 유네스코 제142차 집행이사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9차 유네스코총회 참가보고서, 1997, pp36-37.
· 언어, 풍습, 관습 등은 문화주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은 내년도 인간문화재 제도 강화 및 보급을

그 후 많은 국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음.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46] 한국 유치, “박물관과 무형유산”이란 주제로 국제박물관위원회(ICOM) 총회 아시아지역 최초 개최, 세계 최초 영어 무형유산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발간, 국립 무형유산원(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2014)개원, 무형유산학회 (Intangible Heritage Association, 2015) 설립 등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강릉시는 ‘강릉단오제’를 국제무대에 널리 홍보하고 무형문화 보호 증진 및 활용에 관심을 가진 도시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무형문화도시 시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강릉시는 이를 계기로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이라는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위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 개설을 유네스코 협력으로 추진코자 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0차 유네스코총회 참가보고서, 1999, pp53-54
  · 무형유산사업의 중요성을 지지하며 한국측에서 인간문화재 훈련워샵을 1-2회 추가 개최 계획 의사 밝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2차 유네스코총회 참가보고서, 2003, pp26-29
  · 무형문화유산보호 국제협약의 예비초안: 필리핀, 네덜란드, 일본 등 총 61개국의 회원국과 옵서버 1개국 및 2개의 비정부 국제기구가 발언에 참가하였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무형유산보호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예비초안을 수정없이 협약으로 채택하기를 희망하였음. 그러나 무형유산보호사업에 투여할 예산의 확보방안(일본), 이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실행기관에 대한 세부계획의 미비 및 일부 협약 조문간의 상충(네덜란드) 등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한국은 그동안 무형유산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국가로 아리랑상의 제정, 인간문화재 국제훈련워샵의 개최 등 여러 협력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 한국 신탁기금사업 및 무형유산보호 시장단회의 등 여러 사업에 유네스코의 참여 및 긴밀한 협력을 요청함. 아울러 동 예비초안을 수정 없이 채택할 것을 지지하였음.

46)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설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5차 유네스코총회 참가보고서, 2009, pp.35-38.
- 의제 5.6. 카테고리 2센터 설립 검토: 동 의제가 행·재정(FA)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된 만큼, 의장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아태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를 포함한 카테고리 2센터 11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함.

☞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47)]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의	강원도 강릉시청 내에 사무국이 있는, 세계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지방 정부[도시]들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	
명칭(한자)	國際無形文化都市聯合	
명칭(영문)	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cooperation network	관련 웹사이트 http://www.iccn.or.kr/
개설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은 무형 문화 보존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각 지역과 국가별 문화 간 대화 및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평화[cultural peace]'의 실현을 추구한다.	
설립 목적	무형 문화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문화적 평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수립 및 실행, 둘째,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실천, 셋째,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지역 공동체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 인식 확대, 넷째, 고유한 지역 전통문화를 기본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 유지이다.	
변천	2004년 강릉시에서 개최한 국제 도시 시장단 회의를 계기로 세계 도시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08년 강릉시의 주도로 11개국 12개 도시 대표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창립을 선언하였다. 2009년 강릉시 홍제동 강릉시청 내에 ICCN 사무국을 개설하였다. 2012년 무형 문화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자문 기구로 정식 승인되었다. 같은 해 제3회 국제 청소년 포럼이 강릉시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주요 사업으로 국제회의,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청년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1. 국제회의 1) ICCN 총회 : 총회는 ICCN의 주요 기구로 2년에 한 번 개최한다. 일반 정책과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제안한 연간 활동 계획을 승인한다. 또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문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제 개발에 힘쓴다. 2) ICCN 이사회 : 이사회는 ICCN 정책과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총회 승인을 위한 안건과 사업안을 기획한다. ICCN 회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6명의 회원 도시 대표들로 구성되며, 매년 개최된다. 3) 워크숍 : 워크숍은 무형문화에 관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2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 워크숍은 ICCN 회원 도시 외에 관련 분야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와 유관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다.	

47) 출처: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http://gangneung.grandculture.net/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주요 사업과 업무 (활동 사항)	2.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무형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문화'라는 아이템(item)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원천임을 보여 주는 목적으로 ICCN의 공동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2년에 한 번씩 총회 개최국에서 세계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하는데, 2012년 강릉에서 제1회 세계무형문화축전 행사를 개최하였다. 3. 청년 활동-ICCN 국제 청소년 포럼 ICCN 국제 청소년 포럼은 젊은 세대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논의를 통해 문화 보호 및 전승에 대한 청소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흥미로운 문화 체험과 더불어 세계 다양한 청소년들과의 우정을 키울 수 있다.	
현황	총회원 62 : 정회원 19국 29회원, 준회원 20국 33회원(2018년 9월 기준) 정회원: 8국 9회원 대한민국(강릉), 체코(Vlcnov), 이란(Shiraz), 팔레스타인(Beit Sahour), 필리핀(Ifugao), 슬로바키아(Cachtice-Kopanice), 스페인(Generalitat Valencia, Algemesi), 스리랑카(Galle) 8개국 9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강릉시청 내에 있으며 강릉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의의와 평가	ICCN은 출범 당시 11개국 12개 도시에서 정회원 19국 29회원, 준회원 20국 33회원 62개 도시가 참여(2018년 9월 기준)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무형 문화 분야 국제기구로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한편, 지방 정부 리더와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무형 문화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자문 기구로 정식 승인됨에 따라 국제적 인지도 및 전문성을 확립하였다. 현재 ICCN의 창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사무국을 두고 있는 강릉시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무형문화재법 관련 법적 환경 분석

구분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출처
법령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9. 6.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0호, 2019. 6.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25.]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9-2호, 2019. 3. 25.,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시행 2019. 9. 23.] [문화재청고시 제2019-119호, 2019. 9. 17.,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시행 2017. 4. 7.] [문화재청고시 제2017-50호, 2017. 4. 7.,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26.]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8-3호, 2018. 7. 26.,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25.] [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19-1호, 2019. 3. 25.,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3. 28.] [문화재청훈령 제389호, 2016. 3. 23.,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온돌문화) [시행 2018. 4. 30.] [문화재청고시 제2018-53호, 2018. 5. 9.,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시행 2019. 1. 15.] [문화재청고시 제2019-1호, 2019. 1. 9.,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시행 2019. 4. 9.] [문화재청고시 제2019-45호, 2019. 4. 3.,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염) [시행 2018. 4. 30.] [문화재청고시 제2018-52호, 2018. 5. 9.,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시행 2017. 5. 1.] [문화재청고시 제2017-63호, 2017. 5. 1.,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시행 2019. 9. 11.] [문화재청고시 제2019-116호, 2019. 9. 5., 정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0. 1.] [문화재청훈령 제474호, 2018. 10. 1.,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29.] [국립무형유산원훈령 제6호, 2014. 12. 29., 제정]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규정 [시행 2017. 7. 26.]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76호, 2017. 7. 26., 일부개정]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시행 2019. 6. 26.] [문화재청훈령 제498호, 2019. 6. 26., 일부개정] ·무형유산 간행규정 [시행 2018. 2. 1.] [국립무형유산원훈령 제17호, 2018. 2. 1., 일부개정]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 [시행 2018. 7. 26.] [문화재청고시 제2018-92호, 2018. 7. 20., 제정]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3. 28.] [문화재청예규 제161호, 2016. 3. 23., 일부개정]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05호, 2016. 12. 19., 일부개정]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 2017. 12. 29.][강원도조례 제4235호, 2017. 12. 29., 일부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11. 8. 8.][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046호, 2011. 8. 8., 제정]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 2018. 10. 12.][경기도조례 제5886호, 2018. 4. 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출처
자치법규	총 96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6.][경상남도조례 제4644호, 2019. 9. 26., 일부개정]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1.][경상북도조례 제4096호, 2018. 10. 1., 제정]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4. 11.][경상북도규칙 제2919호, 2019. 4. 11., 제정]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1. 11.][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398호, 2019. 11. 11., 제정]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5. 1. 1.][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049호, 2014. 12. 19., 일부개정]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7. 11. 9.][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366호, 2017. 11. 9., 일부개정]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 9. 10.][경상남도고성군규칙 제1016호, 2008. 9. 10., 전부개정]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4.][경기도과천시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일부개정]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6. 30.][경기도과천시규칙 제834호, 2017. 6. 30., 일부개정]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7.][경기도광명시조례 제2532호, 2019. 9. 27., 일부개정]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 2014. 11. 26.][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297호, 2014. 11. 26., 일부개정]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2. 5.][전라남도광양시규칙 제694호, 2015. 2. 5., 제정]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 2018. 4. 1.][광주광역시조례 제5083호, 2018. 4. 1., 전부개정]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4. 1.][광주광역시규칙 제3113호, 2018. 4. 1., 제정]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0.][경기도광주시조례 제897호, 2017. 7. 10., 일부개정]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0. 17.][경기도광주시규칙 제323호, 2016. 10. 17., 일부개정]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3.][경기도김포시조례 제1523호, 2018. 9. 3., 일부개정]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8.][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672호, 2019. 8. 8., 제정]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7. 10.][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300호, 2019. 7. 10., 제정]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0. 1.][대구광역시조례 제5137호, 2018. 8. 1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시행 2019. 1. 1.][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 12. 2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3. 17.][대전광역시규칙 제3075호, 2017. 3. 17., 제정]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6. 10. 20.][대전광역시조례 제4797호, 2016. 10. 20., 일부개정]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 2012. 6. 11.][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740호, 2012. 6. 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출처
자치법규	총 96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3. 31.][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079호, 2016. 3. 31., 제정]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1. 1.][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248호, 2018. 11. 1., 전부개정]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1. 1.][경상남도밀양시규칙 제644호, 2018. 11. 1., 제정]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8.][부산광역시조례 제5349호, 2016. 6. 8., 제정]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6. 8.][부산광역시규칙 제3879호, 2016. 6. 8., 제정]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부산광역시조례 제5801호, 2018. 8. 1., 일부개정]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11. 6.][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98호, 2015. 11. 6., 일부개정]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6.][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565호, 2019. 11. 6., 제정]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9. 29.][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361호, 2017. 9. 29., 일부개정]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15. 12. 30.][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256호, 2015. 12. 30., 일부개정]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20.][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307호, 2018. 12. 20., 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8.][서울특별시조례 제7227호, 2019. 7. 1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1. 14.][서울특별시규칙 제4120호, 2016. 10. 13., 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11.][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496호, 2019. 9. 11., 제정]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2. 5.][경기도성남시조례 제2438호, 2010. 12. 20., 제정]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6. 20.][경기도성남시규칙 제1826호, 2016. 6. 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20.][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72호, 2018. 8. 2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8. 20.][세종특별자치시규칙 제222호, 2018. 8. 20., 제정]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7.][경기도수원시조례 제3902호, 2019. 5. 17., 제정]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1. 6.][경기도수원시조례 제3358호, 2015. 1. 6., 일부개정]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2. 27.][경기도수원시규칙 제1977호, 2015. 2. 27., 일부개정] ·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2. 26.][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834호, 2014. 2. 26., 제정]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0. 26.][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415호, 2015. 10. 26., 제정]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1. 1.][경기도안산시조례 제1958호, 2016. 1. 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출처
자치법규	총 96	·안성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5. 17.][경기도안성시조례 제1555호, 2019. 5. 17., 제정]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9. 30.][경기도안성시조례 제1177호, 2015. 9. 30., 일부개정]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28.][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22호, 2019. 10. 28., 일부개정]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12. 30.][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288호, 2016. 12. 30., 제정]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8.][경기도여주시조례 제563호, 2017. 5. 18., 일부개정]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1. 30.][경기도여주시규칙 제109호, 2015. 1. 30., 일부개정]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6. 10. 18.][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960호, 2016. 10. 18., 일부개정]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24.][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5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8.][울산광역시조례 제1815호, 2017. 12. 28., 제정]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5. 9.][울산광역시규칙 제872호, 2019. 5. 9., 제정]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1. 29.][울산광역시조례 제1815호, 2017. 12. 28., 일부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10.][경기도이천시조례 제1356호, 2017. 11. 10., 일부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5.][경기도이천시규칙 제526호, 2014. 10. 15., 일부개정]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6. 28.][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 2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122호, 2017. 12. 29., 제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 2016. 5. 19.][인천광역시조례 제5656호, 2016. 5. 19., 제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8. 29.][인천광역시규칙 제3001호, 2016. 8. 29., 제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 1. 9.][인천광역시조례 제5320호, 2014. 1. 9.,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9. 9. 23.][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698호, 2019. 9. 2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7. 8.][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436호, 2016. 7. 8., 일부개정]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 2015. 12. 31.][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224호, 2015. 12. 31., 일부개정]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 8. 29.][전라북도임실군규칙 제988호, 2008. 8. 29., 제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 25.][전라북도조례 제4247호, 2016. 3. 25., 제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6. 3.][전라북도규칙 제3012호, 2016. 6. 3.,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출처
자치법규	총 96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 2017. 4. 17.][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67호, 2017. 4. 1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1.][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94호, 2017. 7. 2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7. 10.][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633호, 2019. 7. 1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8. 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13호, 2017. 8. 9., 제정]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8. 8. 20.][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337호, 2018. 8. 20., 일부개정]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4. 12. 26.][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147호, 2014. 12. 26., 일부개정]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시행 2011. 7. 15.][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525호, 2011. 7. 15., 전부개정]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12. 23.][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190호, 2011. 12. 23., 제정]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3. 29.][충청북도진천군규칙 제1277호, 2016. 3. 29., 일부개정]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1. 15.][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263호, 2019. 11. 15., 일부개정]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충청남도조례 제4196호, 2016. 12. 30., 제정]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충청남도규칙 제3311호, 2016. 12. 30., 제정]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11.][충청북도조례 제4128호, 2018. 1. 11., 제정]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 11.][충청북도규칙 제2912호, 2018. 1. 11., 제정] ·통영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12. 24.][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379호, 2018. 12. 24., 일부개정]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12. 28.][강원도평창군조례 제2509호, 2018. 12. 28., 제정]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12. 18.][경기도평택시조례 제1611호, 2018. 12. 18., 일부개정]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1. 1.][경기도평택시규칙 제724호, 2019. 11. 18., 일부개정]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19.][경기도포천시조례 제1089호, 2018. 9. 19., 일부개정]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경기도하남시조례 제1263호, 2014. 12. 26., 일부개정]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9.][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470호, 2019. 2.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연 구

국제동향(2019년 유네스코 본부 제공)

- 유네스코 본부에서 최근 공개한(2019년 11월 현재) 무형유산 관련 연구 목록의 주요 분야는 크게 5가지 분야로서 일반개념, 협약 도메인, 기타 국제프레임워크, 위협요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뉘며, 1143개의 목록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 분야별 현황[48]은 다음과 같다.

대주제	소주제	편수		소주제	편수
General Concepts	2003 Convention Genesis	17		International cooperation	9
	2003 Convention	28		International tensions	6
	Agriculture	1		Inventorying	4
	Awareness-raising	4		Languages	8
	Cities	14		Legislation	23
	Civil Society	5		Lists of the 2003 Convention	17
	Community participation	31		Market economy	14
	Cultural diplomacy	8		Mass communication	2
	Cultural Identity	25		Migration	8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43		Minority Groups	21
	Emergency situations	9		Museums	13
	Environment	33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8
	Ethics	3		Periodic reporting	3
	Food	20		Policy making	23
	Formal education	11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2
	Gender issues	11		Schools	2
	Health	11		Social conflicts	15
	Heritage institutions	9		Tourism	31
	Human rights	14		Transnational heritage	1
	Indigenous peoples	38		Unintended outcomes	5
	Information technology	12		Universities	1
	Intellectual property	35		Youth	1
Domain of the Convention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3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7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3		Traditional craftsmanship	4
	Performing arts	4			
Other international framework	1972 Convention	23		Living Human Treasure	6
	2005 Convention	8		MAB Programme	1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6		Other international framework	9
	Convention on Wetlands(RAMSAR)	1		WIPO	2
	FARO Convention	1			

48) 유네스코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국 주도의 협약과 관련 온라인 연구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2003년 협약 연구 참고문헌목록"(2003 Convention Research Bibliography)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https://ich.unesco.org/en/2003-convention-and-research-00945

대주제	소주제	편수		소주제	편수
Threatening factors	Climate Change	7		Material Shortage	1
	Conflicts	6		Mining	1
	Degraded ecosystem	1		Misappropriation	1
	Degraded habitat	7		Natural disasters	8
	Diminishing participation	1		Rapid economic transformation	1
	Diminishing youth interest	1		Rapid sociocultural change	3
	Encroachment of food resources	1		Reduced practice	2
	Halted transmission	1		Surge of new technologies	2
	Hampered transmission	1		Touristification	4
	Loss of ancestral language	1		Urban development	1
	Loss of cultural spaces	4		Use of modern materials	2
	Loss of knowledge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1: No poverty	4		SDG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5
	SDG3: Good Health and Well-being	2		SDG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3
	SDG4: Quality Education	3		SDG13: Climate Action	4
	SDG5: Gender Equality	3		SDG14: Life below water	1
	SDG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1		SDG15: Life on Land	13
	SDG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1		SDG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22
	SDG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SDG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4
	SDG10: Reduced Inequlities				

국내동향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 유치, “박물관과 무형유산”이란 주제로 국제박물관위원회(ICOM) 총회 아시아지역 최초 개최를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전문가와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세계 최초 영어 무형유산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발간과, 국립 무형유산원(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2014)개원, 무형유산학회 (Intangible Heritage Association, 2015) 설립 등 국제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 왔음.

1.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006)[49]

일렬 번호	저 널	발행연도	발행기관 (소장처)
1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1	2006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2	2007	
3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3	2008	
4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4	2009	
5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5	2010	
6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6	2011	
7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7	2012	
8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8	2013	
9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9	2014	
10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10	2015	
11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11	2016	
12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12	2017	

49)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2.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현황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50]

현황조사 보고서 (발간연도)	연구 목록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책·제도 편람 (2016)	· 본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센터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활동정보 수집'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된 32개국의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였음. 또한 센터가 수집한 각종 보고서와 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가목록, 관계기관정보와 같은 주요 항목을 추출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음.
태평양 무형유산 휴면자료 보고서(영문) (2017)	· 유네스코아테무형유산센터는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무형유산 휴면자료 보유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크로네시아, 피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및 통가 등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국가별로 무형유산 기록화 전문기관들을 선정하여 300건 이상의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상 자료의 기본 메타데이터, 녹음형태, 저장상태, 사용빈도와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아시아 NGO의 활동을 통해 본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발전에의 기여 (영문) (2017)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인가 NGO인 방글라나탁과 함께 남아시아에 위치한 무형유산관련 NGO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도서를 출간하였다. 29개 남아시아 NGO들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무형유산보호와 그 증진이 공동체의 사회·경제·환경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무형유산이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동력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회의자료집 주요 내용[51]

회의 자료집 (발간연도)	연구 목록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 : 과제와 전략(2011)	-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 임돈희 ·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 : 개관 및 전망 - 세르게이 라자레브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인도,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를 중심으로) - 수바 초더리 · 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 - 아카츠키 타카하시 ·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 팀 커티스 ·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 :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개관, 보호 과제 및 전략 - 압히만유 싱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구축과 공유(2012)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 국제협력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보호조치의 이행 - 아이카와 노리코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활동 방법론 고찰 - 박성용 - 정보 시스템 구축 - 지정, 기록, 아카이브 · 정보 시스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정보 생산과 수집 - 헤수스 페랄타 · 정보 구축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기록화 지원 - 조앤 오르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즈 구축 및 관리 - 함한희 · 무형문화유산 실연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 박필호

50) 출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s://www.ichcap.org/

51) 출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s://www.ichcap.org/

회의 자료집 (발간연도)	연구 목록
	· 정보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용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인도 NGO의 정보 구축 참여와 협력 -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 - 아카츠키 타카하시 · 캐나다의 무형유산 - 정치적 맥락, 보호조치, 국제협력 - 앙투완 고티에
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체계와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영문)(2012)	· The sub-regional information and network meeting aims to facilitate information and networking among Pacific States Parties (PNG, Vanuatu, Fiji, Tonga, and Palau) on ICH safeguarding at the country level with emphasis on ICH information systems. The meeting will identif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building ICH information systems in the Pacific based on country papers to be presented. Participants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about good practices in building ICH information systems in Asia. · The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Cook Islands, whose ratification of the 2003 ICH Convention is in the pipeline. Thus, the meeting has a special objective to provide the Cook Islands with an opportunity to clarify matters relating to the 2003 ICH Convention by sharing experiences with other Pacific State Parties before making the final move towards ratifying the 2003 ICH Convention.
2012 국제회의 보고서 :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2012)	- 기조발제 ·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사회발전- 쉐리프 카즈나다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역사적 의미 - 무형문화유산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이유 - 자넷 블레이크 · 2003년 협약 이행의 새로운 경향 - 팀 커티스 -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어디에 있는가 ·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 도구와 관점 - 피터 세이텔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 한경구 · 개발도상국의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 전망과 과제 - 안토니오 아란테 - 무형문화유산의 진흥과 활용, 어떻게 실현할까 ·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보호를 위한 한국의 경험 - 임돈희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 아마레스와르 갈라 ·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아시아 무속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무속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2013)	- 기조발제 · 아시아의 공유유산으로서 샤먼유산의 보호와 국제적 협력 - 임 돈 희 · 샤먼유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과 그 문화적 가치 - 김 인 회 - 동북아시아의 샤먼유산 · 몽골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 및 도전 과제 - 잠발슈렌 툭스자갈 · 한국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 - 김헌선 · 일본 샤머니즘의 특성과 현황 - 가와카미 신지 -동남아시아의 샤먼유산 · 필리핀의 토착 및 기타 의례 연행자들 - 문화변동 - 헤수스 페랄타 · 베트남의 샤먼유산 - 렌동 규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 - 레 티민리 · 미얀마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 - 먀야 킨 -서남아시아의 샤먼유산 · 인도의 무속적 병고침의 문화적 투쟁 - M. D. 무투쿠마라스와미 · 부탄 샤머니즘 보호 : 사례 연구 및 정책 분석 - 처링 초키 · 터키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 및 전승 과제 - 오즈쿨 초반오울

회의 자료집 (발간연도)	연구 목록
정보 구축 및 공유를 통한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가시성 제고 전략(영문) (2013)	· The sub-regional information and network meeting aims to facilitate information and networking among Pacific States Parties (PNG, Vanuatu, Fiji, Tonga, Palau, FSM and the Cook Islands) on ICH safeguarding at the country level with emphasis on ICH information systems. The meeting will identif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xploring strategies for enhancing ICH visibility in the Pacific based on country papers to be presented at the meeting. Also,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good experiences and plans on safeguarding ICH through information building and sharing.
동북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살아있는 유산의 기록 촉진과 정보 교류 (2014)	- 기조발제 · 2003년 협약과 제반 무형유산보호 활동에 있어서 기록화(Documentation)의 이슈는 물론 동북아지역 무형유산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의 기록화 사례, 공동체와의 협력 등 기록 작업에서의 제반 문제, 향후 국제 협력 방향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 세션 1 · 동북아시아 지역 각기 다른 무형유산 보호 환경에서 기록화 관련 어떠한 경험을 가지는가?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무형유산 '기록화' 현황, 관련 정책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 세션2 · 2003년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동북아지역의 회원국을 지원하는 유네스코북경사무소 그리고 아태지역 C2센터인 ICHCAP 등이 그동안 수행한 무형유산정보화, 기록화 분야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와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세션3 · 유네스코 회원국 5개국이 첫 무형유산 관련 협력회의를 맞이하여 각국의 실정과 유관기관 활동 발표 및 토론에 기초하여 이 지역의 무형유산 기록화 분야에서의 공동으로 협력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효율적 역할(2014)	무형유산보호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ICH-NGO들의 모습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고, 매개자(mediator)의 역할, 지원자(supporter)의 역할, 교육자(educator)의 역할과 함께 이러한 장을 마련하는 역할(facilitator)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며 연대, 협력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것이 이번 모임의 큰 성과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스리랑카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워크숍 (2015)	- 기조발제 · 2003년 협약에 나타나는 무형유산 NGO 활동의 의미 - 팀 커티스 · 무형유산 NGO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 - 안토니오 아란테 - 무형유산 NGO의 정체성과 공헌 · 스코틀랜드의 무형유산 NGO와 지역, 지방, 국가 차원의 정체성 확립 기여도 - 조앤 오르 · NGO의 국가무형유산제안 - 앙투안 고티에르 · 동아프리카 무형유산 NGO의 공헌과 전망 - 존 드 코닉 · 무형유산의 보호와 NGO의 역할 - 김광희 - 무형유산 NGO의 효과적인 역할 : 정부와 공동체의 중간자 · NGO와 정부 : 사회 변화의 동반자 - 올빈 발렌틴 · 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CSO)와 무형유산 증진 - 엘리스 허퍼 · 무형유산 NGO의 역할 효율성 : 정부와 공동체 - 투리아나 치리바카야와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 역량 강화와 국립무형유산원의 역할 - 유재은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무형유산 NGO 활성화 · 지속 가능한 발전 촉매제로서의 무형유산 NGO 활성화 - 가브리엘레 데시데리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통합 계획과 실행에서의 무형유산 NGO의 역할 - 아난야 바타차리아 · 한국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NGO 역량 강화 - 함한희

회의 자료집 (발간연도)	연구 목록
[2016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보고서]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달성(영문) (2016)	· This conference was in line with the 2014 NGO meeting under the theme of Towards Efficient Roles of NGOs for 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theme of this year's conference was Achieving SDGs through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re adopted at the 70th UN General Assembly, they became the common goals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seeks to achieve together. UNESCO has also been trying to connect the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2003 Convent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남아시아 무형유산 NGO 회의 결과보고서(영문)(2016)	· Introduce the new UN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new chapter of Operational Directive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UNESCO 200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to the NGO audience; · Exchange experiences and collect good practices of NGOs where safeguarding ICH improv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communities; · Discuss the modalities of future networking among the NGOs in South-Asia including the means to collect data on good practices and the impact of ICH safeguard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제2차 동북아 무형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소지역 회의 보고서(영문)(2016)	· To share experiences among the countries of the Northeast Asia sub-region on ways of raising awareness about ICH through the media. · To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for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o discuss cooperative methods for safeguarding ICH. · To seek the ways of promoting the role of broadcasting media in raising awareness about ICH
2017 태평양 무형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회의 보고서 (영문)(2017)	· This meeting aimed to provide a venue to identify the status and role of youth as key actors for safeguarding ICH in light of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and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Pacific context.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experiences of engaging future generations as active transmitters and explored ways to develope a cooperative action package as a solution to the current challenges at the regional level so that the youth would eventually be empowered to contribute to the safeguarding of ICH.
국제포럼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고등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하다' 자료집(2018)	- 무형유산보호의 시너지 : 대학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아마레스와르 갈라 · 아태지역 대학에서의 무형유산교육 현황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 방글라데시 사례연구 - 사이퍼 라시드 · 필리핀의 새 일반교육과정 : 고등교육과 무형문화유산보호 - 마틴 게노데파 ·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체계의 문화유산관리교육으로의 통합 : 통합적 접근법에 대하여 - 닐카말 차파가인 · 호주 디킨대학교 : 문화유산과 박물관학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유산 - 크리스탈 버클리 · 학계의 무형문화유산 적용 및 인증 : 카트만두 대학의 민족음악학 과정 분석 - 수더션 프라사드 다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 기술문화 중심 교과과정의 얼개와 지향 - 최공호 -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공동체기반 연구 ·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공동체기반접근 : 유네스코의 노력 - 애슐리 커닝햄 · 학계와 무형유산 실면자 통합하기 - 함한희

회의 자료집 (발간연도)	연구 목록
	· 전통지식의 기록화와 공동체의 참여 : 인도 사람의 테즈푸르 사례 연구 - 수브라 데바 · 공동체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교육 : 후대를 위한 연행과 의미의 생산 : 베트남 람 동주 락 두옹의 락족의 문화유산 공(Gong)의 사례연구 - 티 투 항 쯔엉 · 공동체 기반의 참여적 접근법 : 홍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매핑 방법론 - 야우 와이 유 · 아시아 태평양 토속가옥 및 전통건축에서의 목재문화 보호 - 아야코 후지에다 ·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고등교육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 비자이 바스카 · 박물관의 학습환경 - 호치민시립박물관의 전통공예전시 분석 - 팜 란 흐엉
'2018 해양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자료집 (국·영문)(2018)	- 전통선박건조술과 항해술의 현황과 이슈 · 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 새롭게 밝혀낸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축조술 · 중국 고대문헌 속의 아시아 해역 · 말레이반도 동해안의 다양한 전통보트 유형과 보트 제작의 상징성 · 필리핀의 전통선박 제작과 해양문화 - 해양 전통지식의 전승 활동 · 피니식(Pinisi) : 서부 오스트로네시아 선박 건조기술의 정교함 · 범선의 살아있는 전통 : 마다가스카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 · 항해를 통해 부활하는 고대의 길찾기 지식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 네트워크 국제세미나 자료집(영문)(2019)	- 기조발제 ·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와 고등교육 - 두엉 비치 한 -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사례 · 무형유산 교육을 위한 다층적 교육법 모색 - 닐 까말 샤파가인 · 무형유산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에의 도전과제: 필리핀 사례 - 마틴 제노데파 교수 - 동북아시아 사례 · 무형유산교육 및 보호를 위한 대학의 노력: 일본 사례 - 아야코 후지에다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층적 교육 현황: 한국 사례 - 신숙

4. 무형유산학회[52)]

논문집 (발간연도)	연구 목록
무형유산학 1권 1호(2016)	· 무형유산학 제 1권 1호 전문 · 전승공동체 보호의 문제와 무형문화재법 - 함한희 · '원형'의 신화, '전형'의 논리 - 발탈에서의 '원형'과 '전형' 논란을 중심으로 - 허용호 ·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유형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최종호 ·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Republic of Korea - Noriko Aikawa-Faure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 Deming An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9차 정부간위원회(2014, 파리) - 동향과 이슈 - 차보영
무형유산학 1권 2호(2016)	· 무형유산학 제 1권 2호 전문 · 1936년 봉산탈춤, 임석재, 그리고 Bergman - 임돈희, 로저 L.자넬리 · 1930년대 봉산탈춤의 탈과 춤의 한 면모 -임석재 소장 1936년 봉산탈춤 사리원 공연 16mm 필름 해설 및 현행탈춤과 비교분석-채희완 · 1936년 봉산탈춤 임석재 채록본의 의미와 가치 - 허용호 · 일제강점기 봉산탈춤의 위상과 변화 양상 - 정형호 · 1936년 봉산탈춤 공연의 역사적 의의와 무형문화유산 보전의 효율화 방안 - 서연호 · 무형문화의 전승현장과 유리된 원형·전형 논의의 허구성 -가면극과 남사당놀이를 중심으로-정형호 · 판소리 전형의 전승현황 및 전형에 대한 전승자의 인식과 태도 연구 - 조순자 · 강화 교동도 부군당과 사신당의 현장 보고 - 홍태한, 박인서 · 10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주요 이슈 - 정민영
무형유산학 2권 1호(2017)	· 무형유산학 제 2권 1호 전문 · 마을의례의 창출과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을 통해 본 '원형'과 '전형'담론의 지형 -서울 우이동 '삼각산도당제'를 중심으로-권혁희 ·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 - 최종호 · 현장과 지침의 괴리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예능 종목 평가 항목 및 기준 검토- 홍태한 · 샤만 영웅숭배 자료와 그 보호에 대하여 - 왕굉강 ·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한 논평 - 함한희 ·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사업의 현황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을 중심으로-김지현 · 박물관과 무형유산 -국립민속박물관『국제저널 무형유산』중심으로- 이기원
무형유산학 2권 2호(2017)	· 무형유산학 제 2권 2호 전문 · 무형유산과 도시적 맥락 - 자넷 블레이크 ·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 해녀공동체의 도전과 과제- 함한희 · 아태지역 무형유산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최종호 · 악구 중심의 가상악기 개발을 위한 한국 전통음악 악구 및 속성 연구 - 김병오, 장인종 · 강릉단오굿 전승자 교육과 지속성에 대한 연구 - 신희라 · 수륙재의 구조 및 문화적 함의 - 원명(최명철) ·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김종수 · 중국의 도시화 건설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다통 황 · 프로테우스와 같은 CGIs - 마크 제이콥스 · 서울 응봉동 부군당의 향방 - 홍태한

52) 출처: 무형유산학회, http://www.ihstudies.org/ICH_Paper/

논문집 (발간연도)	연구 목록
무형유산학 3권 1호(2018)	· 무형유산학 제 3권 1호 전문 · 무형문화재 원형과 전형에 대한 고찰 - 박미 · 서울 부군당에 봉안된 무신도 현황과 특징 - 정혜경 · 삼베짜기 복원과 삼베마을 탄생을 둘러싼 제 문제 - 김빛나라 · 민족지적 기술을 통해 본 강릉단오제 - 신희라 · 서울 용산 서빙고동 동빙고동 부군당의 향방 - 홍태한
무형유산학 3권 2호(2018)	· 무형유산학 제 3권 2호 전문 · 울산 일산동 별신굿의 연행구조와 변화양상 - 김구한 · 실크로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 이정송, 박순철 · 무형문화유산 플랫폼 구축의 전략적 접근방향 - 엄승용 · 인제 뗏목아리랑의 전승 현황과 전망 - 유명희 · 남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의 전망 - 윤동환 · 줄다리기 당산제 중 진쌓기의 기억과 의미 - 정성미 · 미래유산의 탄생과 기억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조나영 · 전통무예의 무형유산적 가치의 대한 인식 확장 - 홍일한 · 샤머니즘 환경보호 개념과 문화산업 - 왕해동
무형유산학 4권 1호(2019)	· 무형유산학 제 4권 1호 전문 ·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의 무형유산 정책 분기점 검토, 1960~1980년대를 중심으로, 김병오 ·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형성 연구, 류진옥 · 일제강점기 '제지강습회(製紙講習會)'를 통한 전통제지기술의 변화 양상, 박근아 · '옛이야기 들려주기'에 대한 아동 반응 양상과 의미, 박현숙 · 사십구재의 시식문 활용에 대한 고찰, 최명철(원명) · 거북놀이의 수수농업 관련성과 연행집단에 대한 탐색, 이천거북놀이를 중심으로, 윤경식 · 유네스코 '구전 전통 및 표현' 등재 항목의 실례와 특징, 이정훈 · 보부상의 문화유산적 가치, 이창식 · '동진강'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원천소스 개발 및 가치창출, 정성미, 이민석 · 무형유산의 계승과 확산 방안 모색.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홍태한

5. 무형유산학술지/국립무형유산원

학술 보고서 (발간연도)	연구 목록 출처: https://www.nihc.go.kr/nihchome/html/HtmlPage.do?pg=/KO/etc/sub_10_01.jsp&mn=KO_10_01
『무형유산』 창간호(2016)	- 주제 : '「무형문화재법」 재정에 따른 무형유산 조사와 연구 방향' · 음악분야 무형문화의 현 국면과 연구 조사 방안 -김혜정 · 무형문화재법 변화에 따른 무용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 - 강인숙 · 무형문화재 독립 입법 시대의 무형문화유산 조사 - 허용호 · 무형유산 보호대상으로서 민간의료분야의 현재와 향후 수집, 기록 연구의 방향 - 원보영 ·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승지식'의 이해와 조사연구 방법 - 김재호 ·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설화 항목 선정·조사·보호의 문제 - 김혜정 · 무형문화재로서 식생활 조사 방법의 원칙과 방향 - 김정옥 ·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마을신앙 조사와 기록화의 방향 - 강성복 · 신법(新法) 체제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의 방향성 검토 - 홍태한 · 새 무형문화재법과 전통적 기예·무예 조사방향 - 심승구

학술 보고서 (발간연도)	연구 목록 출처: https://www.nihc.go.kr/nihchome/html/HtmlPage.do?pg=/KO/etc/sub_10_01.jsp&mn=KO_10_01
『무형유산』 제2호(2017)	- 주제 : '무형유산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운영 방안' ·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정책 방안 - 이재필 ·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의 현황과 과제 - 명현 · 일본의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흐름과 현황 - 임경택 · 개인 연구자 소장 자료 수집과 활용 방안 - 홍태한 ·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 이철남 ·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소장 이두현 기증자료의 성격과 의미 - 방인아 · 『무당내력』 류에 나타난 서울굿상과 지화 - 윤동환 · 부여 출토 고대 평목공구의 기능과 명칭 - 이운천·최공호 ·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전략 연구 - 김산효 · 조선후기 의궤(儀軌) 속 유기장의 제작기술과 소용도구 - 김지현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패러다임의 변화 - 김희주
『무형유산』 제3호(2017)	- 주제 : '기지시줄다리기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이후의 기지시줄다리기 발전방향 - 송지은 · 기지시줄다리기의 인적 기반과 활성화 방안 - 서종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의 전개와 향방 - 김형근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기획 과제와 활성화 방안 - 권두현 · 기지시줄다리기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과제 - 허용호 · 삼척 오금잠제(烏金籍察)의 변천에 관한 일고찰 - 문혜진 · 영남우도 교방연향(敎해훌享)에 나타난 교방춤의 의의 - 양지선 · 전북지역의 판소리 전승현황과 발전방안 - 이명진 ·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 등재와 다국적 유산의 과제 - 김동현 ·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다양성과 현재성 - 박정은 · 조선시대 입사장(入絲[K) 의 역할과 작업범주의 재해석 - 김세린
『무형유산』 제4호(2018)	- 주제 : '농경·어로 무형유산의 전승 현황과 과제' · 물대기와 관련한 전통적 농업기술과 농경문화의 양상 - 이옥희 · 김제 벽골제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현대적 활용 - 서해숙 · 섬진강 유역의 전래어법과 어로기술어로유산 - 강성복 · 한일 어구 유사성에 대한 현장론적 이해 제고 - 정연학 ·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의 실행과 향후 과제 - 권봉관·정명철 · 구덕과 차롱 - 고광민 · 조선의 벼루장, 제작양식과 관리전승 - 손환일 · 국립무형유산원의 역할 증대 방안 모색 - 홍태한 · 한국 무쇠솥 주조기술의 전승현황 - 김다감 · 1910~1930년대 광희동 끈목장 집단과 매듭장 정연수 - 설지희
『무형유산』 제5호(2018)	- 주제 :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현황과 향후 과제' ·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 이재필 · 음악 분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구분에 대한 재고 - 김혜정 ·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 전승 현장의 당면 과제 - 강인숙 · 무형문화재 전승 현황 실태에 대한 소고 - 이병훈 · 층위의 엇갈림과 시선의 다양성 - 홍태한 · '맨촌구덕'과 '맨촌차롱'의 생산과정 - 고광민 ·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제례 연구 - 임경택 ·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과 나전 기술의 변용 - 강연경

6. 대한민국 인류의 무형유산 연구논문 목록[53]

목록	논문명	링크
종묘제례(宗廟祭禮) 및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종묘제례악 사상과 선율의 미의식 연구(2011, 김현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55511
판소리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 방안(2009, 김석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16758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무형유산 공동체 연구(2017, 오정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00681
	판소리 전승 활성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제도의 이해와 개선 방향(2018, 최혜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09949
강릉단오제	단오에 나타난 공예품 연구(2007, 염미란)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00065
	전통문화축제의 지역적 가치유네스코 - 무형유산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2009, 김남일)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85104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2009, 이창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04152
	무형문화재 "강릉단오축제" 영문번역 고찰(2010, 원병관)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31446
	강릉단오제 소(素)의 고찰(2011, 김기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8035
강강술래	문화재 강강술래의 형성과정과 전승방안(2017, 김혜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3367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의 교수·학습 내용 연구-버나놀이를 중심으로(2018, 정미영)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2101
영산재(靈山齋)	VR 기술을 활용한 영산재(靈山齋) 문화콘텐츠화 연구 : '영산재'의 힐링 콘텐츠 개발방안을 중심으로(2019, 신현덕, 김영재, 두일철)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28061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통합적 접근에 의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국악 교육적 적용 방안(2010, 박주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40705
처용무(處容舞)	朝鮮朝 鄕樂呈才의 性理學的 談論 ― 宗廟佾舞와 五方處容舞를 中心으로 ―(2012, 김용)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05219
	티베트의 라마 참과 한국의 처용무관계에서 무형문화의 이동 가능성(2014, 백정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05442
	한국무형문화재 춤 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 서울지역 종목을 중심으로(2019. 유지영, 김지영, 백현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8834#none
	다중지능 관점으로 본 '처용무'의 유아교육적 가치탐색(2019, 김은경)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73779
가곡(歌曲),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	-
대목장(大木匠),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	-

53) 출처: DBpia, http://www.dbpia.co.kr/

목록	논문명	링크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2018,황경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83460
	매와 매사냥의 역사와 어휘 연구(2017, 이봉일, 김미경)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3020
줄타기	줄광대 김대균의 연희 세계(2005, 이호승)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1379#none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	국가미래기술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의 정신철학(2018, 정구성, 곽종민, 윤태경)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15589
	택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세계화 방안(2016, 곽낙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113301
	무형문화재 택견 복원 및 활용방안: 아래대 택견 왕십리를 중심으로(2015, 안재식, 이성노, 이달원, 장경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112935
	택견(태껸) 단체의 품밟기 원리에 관한 연구(2014, 김창우, 김영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42456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2013, 김영국)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35798
	택견의 연구동향과 과제(2013, 안용길 김은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41021
	문화재보호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의 무예진흥에 관한 법제도적 소고(2011, 김대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63896#none
	전통무예 택견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2009, 장경태, 송일훈)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96007
한산(韓山) 모시짜기	한산모시짜기 전승지식의 변화(2015, 노영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16430
	한산모시짜기 보호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2014. 황경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95016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공동체 지식연결망 연구- 정선아리랑을 중심으로 -(2019, 오정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36998
	영남지역의 아리랑 전승 활동과 지역문화브랜딩(2018, 최은숙)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1127
	분단 전후 아리랑의 전개 국면과 민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아리랑의 활로 모색(2018, 강등학)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1128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7, 최은숙)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39455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 하의 아리랑(2017, 정수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6073
	아리랑유산 가치와 축제형 킬러콘텐츠(2016, 이창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25259
	무형문화유산 전시에서 소스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2015, 조성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3041
	진도아리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설계(2013, 서해숙)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10804
	아리랑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인식(2013, 이창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11475

목록	논문명	링크
	무형문화조사사업의 의미와 아리랑유산 지정 (2012, 이창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88169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문헌고찰을 통한 김치문화 활성화 방안(2015, 송혜숙)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39518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통해 본 무형유산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2013, 황경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06128
농악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한국 농악/풍물굿의 해외 전파·전승 양상-일본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2016, 허정주)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23901
줄다리기	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삼척 기줄다리기 사례를 중심으로(2009, 이창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52882
	중요무형문화재 75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유래 재검토-민속지리학적 측면에서(2009, 이인화)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0625
제주해녀문화	제주해녀의 유산화: 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2018, 유철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6082
	해양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2018, 김은정)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66468
	매체 홍보를 통한 '제주 해녀' 스토리텔링의 감정적 애착 형성과정 연구(2017, 김윤정, 이지훈)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6378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2017, 정민의, 이웅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35039
	헤리티지 강화를 위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 -제주해녀를 중심으로-(2017, 김수정, 김은주, 엄윤경)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64222
	제주해녀의 토착지식 기반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방안(2017, 김민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5072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2019, 심승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26538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2019, 김덕순)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36972
	씨름의 정체성과 유산 가치(2018, 심승구)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3467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전략 및 과제(2016, 곽낙현, 김보겸, 이태현, 허용, 공성배, 허건식)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112760
다중 인류무형문화유산 포함	문화관광 관점에서 무형문화재 활용과 실존적 진정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기지시줄다리기와 한산모시짜기를 사례로(2019, 류호철)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7510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을 중심으로(2016, 최종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85744

사 업

○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출처: 2019년 유네스코 본부, 2019.11월 현재)

-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유산 122개국, 508개 인류무형유산

○ 무형문화유산 보호 진흥을 위해 「무형유산 진흥사업신탁기금협정」 체결(2003년 12월 강릉시 협조, 미화 20만 달러 규모)

○ 유네스코 체제하의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

- 세계 박물관대회-서울(ICOM Conference- Seoul, 2004)
-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2001)
  · 2001년부터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시작: 유네스코의 등재 작업 중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등재 시 2년에 한 국가 당 1건 신청가능
  · 대한민국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등재: 종묘제례악과 종묘제례(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2009): 2003년 무형유산협약이 통과 된 후 90개의 무형유산 2008년에 무형유산협약의 대표목록으로 통합됨
  · 등재 신청 조건: 어느 나라든지 제한 없이 후보작 신청 가능하였음.
  · 등재 신청 조건 변경 및 제한(2015년이래): 무형유산 대표목록 다보유국가(한국, 일본, 중국 등) 2년에 한 후보작 만 신청 가능함. 무형유산등재가 적은 나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
- 아리랑 상(Arirang Prize, 2001-2005)
  · 상의 정의: 한국정부가 유네스코에 매년 3만 달러를 증여함으로써 세계무형유산 중 선정하여 주기로 한 상
  · 상의 취지: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 실시는 국내 인간문화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것을 활성화시켰음.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문화재(practitioner))들에게 아리랑 상이 수여됨.
  · 수상 목록[54)]

54)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

회차 (연도, 개최지)	수상목록	유산보유국
제1회 (2001, 스페인 Elche)	소소발라 공연단 (The Cultural Space of Sosso-Bala)	Guinea
	이후가오의 후드후드 노래 (The Hudhud Chants of the Ifugao)	Philippines
제2회 (2003, 프랑스 파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피그미의 구전전통 (The Polyphonic Singing of the Aka Pygmies of Central Africa)	Central African Republic
	바누아투 공화국의'모래 그림 (Vanuatu Sand Drawings)	Vanuatu
제3회 (2005, 프랑스 파리)	초피 팀빌라(The Chopi Timbila)	Mozambique
	부탄의 민속춤 '가면춤' (The Mask Dance of the Drums from Drametse)	Bhutan

· 상의 폐지 사유: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 프로그램이 2005년 종료되고, 2003년 인류무형유산 협약이 통과되면서 중단됨.

○ 대한민국 인류의 무형유산 목록(제공: 문화재청, 2019.11월 현재)

등재순서	무형유산 목록(국문)	무형유산 목록(영문)	등재년도
1	강릉단오제	Gangneung Danoje festival	2005
2	판소리	Pansori epic chant	2003
3	종묘제례(宗廟祭禮) 및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2001
4	처용무(處容舞)	Cheoyongmu	2009
5	강강술래	Ganggangsullae	2009
6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2009
7	영산재(靈山齋)	Yeongsanjae	2009
8	남사당놀이	Namsadang Nori	2009
9	대목장(大木匠),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Daemokjang,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2010
10	가곡(歌曲),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Gagok, lyric song cycles accompanied by an orchestra	2010
11	한산(韓山) 모시짜기	Weaving of Mosi (fine ramie) in the Hansan region	2011

등재순서	무형유산 목록(국문)	무형유산 목록(영문)	등재년도
12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	Taekkyeon,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2011
13	줄타기	Jultagi, tightrope walking	2011
14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	2012
15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	2013
16	농악	Nongak, community band music, dance and rituals in the Republic of Korea	2014
17	줄다리기	Tugging rituals and games	2015
18	매사냥	Falconry, a living human heritage	2016
19	제주해녀문화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	2016
20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2018

1.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

유산명	종묘제례(宗廟祭禮) 및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영문 유산명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지역	서울특별시	
등재연도	2001	
요약[55]	- 서울에 있는 종묘(宗廟)는 조선 왕조(14세기~19세기)의 조상들에게 바치는 유교 의례를 하는 곳이다. 종묘제례(宗廟祭禮)란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시대의 나라제사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사당으로, 사직(社稷)과 더불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종묘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49위)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 16실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34위)를 봉안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1995년 등재)와 함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최초 사례 - 세계유산 등재 조건 6번과 관련 비물질적 전통과 관련한 기념물로서 가치성 재고되어야 함 -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중요성 확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8.]을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 종묘제례의 현재적 의미(한국문화재재단) · 현재적 관점에서 종묘제례의 복원은 시대의 가치이념을 달리하는 산업사회에서 전통윤리인 "충과 효"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전승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예와 악"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사용된 의례절차는 물론 각종 궁중음악과 무용 등 아악이 당대 대중예술의 근간이 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제례에 사용된 의례체계와 음악, 무용 또한 현전하는 전통예술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콘텐츠임.	

55)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2. 판소리

유산명	판소리	
영문 유산명	Pansori epic chant	
위치	판소리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었는데, 지역적 창법의 특징에 따라 '창제(소리제)'를 달리하고 있다	
등재연도	2003	
요약[56)]	-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치는 사람)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장르이다.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표현력이 풍부한 창(노래)와 일정한 양식을 가진 아니리(말), 풍부한 내용의 사설과 너름새(몸짓) 등으로 구연(口演)되는 이 대중적 전통은 지식층의 문화와 서민의 문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대 8시간 동안 연행되는 동안 남성, 또는 여성 소리꾼은 1명의 고수의 장단에 맞춰 촌스럽기도 하고 학문적이기도 한 표현을 섞은 가사를 연행하는 즉흥 공연이다. - '판소리'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뜻의 '판'과 '노래'를 뜻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이다. 판소리는 17세기 한국의 서남지방에서, 굿판에서 무당이 읊조리는 노래를 새롭게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편 조선 영조 30년(1754)에 유진한이 지은 춘향가의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숙종(재위 1674~1720)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조선 전기 문헌에 보이는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戱)가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광대 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판소리는 소리꾼과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후 판소리는 서민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19세기 말경에 문학적 내용으로 더욱 세련되어졌으며 도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2003년 판소리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는 재정 지원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각 기관별 판소리 분야 지원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 판소리 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후 방문객 수 및 방문객 수입 증가 · 언론 및 방송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소리의 저변 확대와 붐 조성에 근거함.	

56)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3. 강릉단오제

유산명	강릉단오제	
영문 유산명	Gangneung Danoje festival	
위치	강릉 단오제는 한국의 태백산맥 동쪽에 자리 잡은 강릉시와 인근 지역에서 해마다 열린다.	
등재기준	vii, viii	
등재연도	2007	
요약[57)]	- 강릉단오제는 단옷날을 전후하여 펼쳐지는 강릉 지방의 향토 제례 의식이다. 이 축제에는 산신령과 남녀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관령국사성황모시기를 포함한 강릉 단오굿이 열린다. 그리고 전통 음악과 민요 오독떼기, 관노가면극(官奴假面劇), 시 낭송 및 다양한 민속놀이가 개최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노천 시장인 난장(亂場)은 오늘날 이 축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곳에서는 이 지방의 토산물과 공예품이 판매되고 여러 가지 경연과 서커스도 공연된다. - 4주 동안 계속되는 단오제는 신에게 바칠 술을 담그고 굿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굿에서는 신목(神木), 그리고 깃털·종·대나무 등으로 만든 제물인 화개(花蓋)가 중심 역할을 한다. 이 축제는 유교·무속·불교의 제례 의식이 공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릉 지방 사람들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자연 재해를 입지 않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해마다 많은 방문객이 강릉단오제의 여러 제례 의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단오선 부채 만들기, 신에게 바칠 술 담그기, 관노가면극의 가면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어 먹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강릉 단오제는 매우 인기 있는 축제이다.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문화 행사가 표준화되고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축제의 전통적 요소 가운데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축제의 전통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유네스코 협약(2003)의 주요 키워드로 무형유산의 개념, 공동체 안에서 무형유산 보호, 무형유산의 변화와 재창조 가능성을 언급했는 데, 특히 무형유산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 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강릉단오제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강릉시는 '강릉단오제'를 국제무대에 널리 홍보하고 무형문화 보호 증진 및 활용에 관심을 가진 도시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무형문화도시 시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강릉시는 이를 계기로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이라는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57)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4. 강강술래

유산명	강강술래	
영문 유산명	Ganggangsullae	
위치	강강술래는 주로 한반도의 남서쪽 지역에서 널리 행해왔지만 연행되는 지역이 차차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주로 전라남도의 해남군과 진도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등재연도	2009	
요약[58)]	- 대한민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강강술래'는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의 하나로, 주로 음력 8월 한가위에 연행된다.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아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돌며, 한 사람이 '강강술래'의 앞부분을 선창(先唱)하면 뒷소리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어받아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놀이는 밤새도록 춤을 추며 계속되며 원무를 도는 도중에 민속놀이를 곁들인다. - 이 민속놀이는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다가 기와 밟기, 덕석몰이, 쥐잡기놀이, 청어 엮기 등 농촌이나 어촌 생활을 장난스럽게 묘사한 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강술래 춤의 이름은 노래의 후렴구에서 따왔지만, 그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옛날에 한가위를 제외하고는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 놀이를 통해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풍속은 오늘날 대체로 도시의 중년 여성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음악 시간에 어린이들이 부분적으로 익히고 있다. - 현재 한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공연 예술로서 이 풍속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강강술래는 시골의 일상생활인 쌀농사 문화에서 유래하는 중요한 전래 풍습이다. 단순한 음률과 동작 때문에 배우기 쉽고, 여성들이 이웃 여성들과 함께 춤추는 가운데 협동심·평등·우정의 교류를 함께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민속예술 보급 위한 다양한 시도: 강강술래를 생활체조와 접목시키는 등 일상의 민속예술로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웰빙 강화 운동으로 활용: 비만 여성의 다이어트를 위한 대체 요법이나 노인의 웰빙을 강화하는 운동으로서 강강술래를 응용하는 방안도 탐구되고 있음 - 강강술래 활용 층 확대를 위한 노력: 청소년 대상으로 초중교 음악시간에 강강술래를 부분적으로 교육하고 시연하는 방안 검토 중 - 보존과 전승 ·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 통합 운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기존에 지정된 문화재 강강술래에 매이지 않고 열린 구조의 강강술래를 지향해야 함. · 강강술래의 확장과 자유로운 변주를 위해 문화재와 관련 없는 여러 마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강술래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김혜정, 2017)	

58)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5. 남사당놀이

유산명	남사당놀이	
영문 유산명	Namsadang Nori	
위치	남사당패는 현재는 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주로 경기도 안성 부근에서 전파되었고, 넓게 보면 한국 전역에서 연행되었다.	
등재연도	2009	
요약[59)]	- 남사당놀이는 말 그대로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광대극'으로서 원래 유랑예인들이 널리 행하던 다방면의 한국 전통 민속공연이다. 지금은 전문 극단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풍물'은 꽹과리·징·장구·북 등의 타악기 소리가 강조된다. 덧뵈기는 여러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네 마당(마당씻이·옴탈잡이·샌님잡이·먹중잡이)으로 구성된다. 어름은 높이 매달린 외줄 위에서 곡예를 부리며 바닥의 어릿광대와 재담을 주고받는 놀이이다. 덜미에서는 50여 개의 인형들이 등장하여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대사와 악사들의 음악이 일곱 마당으로 펼쳐진다. 살판은 지상에서 행하는 곡예에 재담과 음악이 곁들여진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쳇바퀴를 돌리는 복잡한 묘기의 버나가 공연을 풍성하게 만든다. - 남사당놀이는 야외 마당에서 연희자들을 둘러싸는 시골 관객들을 즐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특히 탈춤과 꼭두각시놀음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물론이고 하층민들의 억압받는 삶을 놀이로 보여 주었다. 이런 공연은 정치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 풍자로써 문제점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삶을 이어 가게 하는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보여 주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행해지는 자유로운 공연으로 지역사회의 주요문화유산임 - 현대 문화 창조의 원천으로서 가치 발견 · 1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이 종합 민속예술은 광범위한 장르의 한국 공연예술을 대표함 - 문화예술작품의 영감을 제공하고 있음 · 영화 〈왕의 남자〉(2005)의 많은 장면에서 조선줄타기·풍물·가면극놀이·꼭두각시놀이가 등장함	

59)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6. 영산재

유산명	영산재(靈山齋)	
영문 유산명	Yeongsanjae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에 위치한 봉원사(태고종)가 중심이 되어 한국의 모든 사찰에서 거행된다.	
등재연도	2009	
요약60)	- 한국 불교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재(靈山齋)'는 부처가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Lotus Sutra)을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영산재는 불교의 철학적이며 영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영산재에 참석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수양한다. 영산재는 하늘과 땅의 영가(靈駕)와 모든 성인(聖人)을 맞아들이는 의식에서 시작하여 부처의 영적 세계의 사고 방식을 표현하는 봉송(奉送) 의례로 마무리된다. 봉송 의례에는 노래, 의식적 장식, 바라춤, 법고춤, 나비춤과 같은 불교 의식 무용이 거행된다. 이 의례에는 또한 정제의식, 차례, 부처와 보살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것, 참석자들이 진리의 문에 들도록 하는 법문, 죽은 자가 극락에 들도록 하는 시식(施食)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 지역에 근거한 한국 불교인 태고종에 의하여 주로 보존되어 온 영산재는 한국 전역의 사찰에서 열린다. 영산재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부처, 불법을 깨달고 승려를 숭앙하여 진리의 세계에 들도록 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의례는 가치와 예술적 형태를 전승하고 참선, 수행 및 깨달음에 있어서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영산재에 드러나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화청 등은 한국의 전통 민속음악인 가곡(歌曲)과 회심곡(回心曲)등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바라춤과 나비춤 그리고 법고춤 등은 민속무용인 승무와 바라춤 등의 근원을 이루고 있음. - 영산재는 단순히 불교의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담아내며 계승되고 있음 - 영산재는 크고 작은 해외 시연을 통해 영산재가 '한국불교 오페라'라는 별칭을 얻어 불교 공연문화의 '정수'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가치성을 더 인정받고 있다고 함.61)	

60)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61) 출처: 영산재보존회, http://yeongsanjae.or.kr/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유산명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영문 유산명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전역.	
등재연도	2009	
요약[62]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바다의 평온과 풍작 및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음력 2월에 제주에서 시행하는 세시풍속이다. 제주시 건입동(健入洞)의 칠머리당에서 열리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굿 가운데 대표적인 의식이다. 제주의 마을 무당들은 바람의 여신(영등 할망), 용왕, 산신 등에게 제사를 지낸다. 영등환영제에는 신령을 부르는 의례, 풍어에 대한 기원, 조상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3개의 연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등환영제가 시작된 지 2주 뒤에 열리는 영등송별제에는 굿에 쓸 술과 떡을 사당으로 가져오고, 용왕을 맞아들이는 의례인 요왕맞이를 하며, 수수의 씨를 가지고 점(點)을 치는 씨점을 치고, 마을 노인들이 짚으로 만든 배를 바다로 내보내는 행사 배방선(送神) 등을 치른다. - 봄이 왔음을 뜻하는 15일째가 되어 영등 할망이 떠나면 대지에는 씨가 뿌려지고 험한 바다는 잔잔해진다. 영등굿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당 이외에 해녀들, 선주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음식과 공양물을 지원한다. 일정한 시기에 치러지는 의례이자 문화 축제이기도 한 영등굿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어 돈독한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영등굿은 또한 제주도 바닷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바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지역사회 주민의 사전 승인을 바탕으로 신청되었으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제71호)로 등재됨 - 한국 정부, 민간 및 공공단체들도 유산 전수센터와 전수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유산보호와 계승을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62)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8. 처용무

유산명	처용무(處容舞)	
영문 유산명	Cheoyongmu	
위치	궁중 무용인 처용무는 예술 공연을 위해 마련된 무대에서 공연되었으므로,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연고는 없으나, 굳이 지리적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면, 고궁이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옛 이름은 "한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등재연도	2009	
요약[63]	- 처용무(處容舞)는 궁중 무용의 하나로서 오늘날에는 무대에서 공연하지만, 본디 궁중 연례(宴禮)에서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거나 음력 섣달그믐날 악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儺禮)에서 복을 구하며(求福) 춘 춤이었다. 동해 용왕(龍王)의 아들로 사람 형상을 한 처용(處容)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천연두를 옮기는 역신(疫神)으로부터 인간 아내를 구해냈다는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처용무는 동서남북과 중앙 등의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흰색·파란색·검은색·붉은색·노란색의 오색 의상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추는 춤이다. - 무용수들은 팥죽색에 치아가 하얀 신인(神人) 탈을 쓰고, 납 구슬 목걸이에 주석 귀고리를 하고 검은색 사모를 쓰는데, 사모 위에는 악귀를 몰아내고 상서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의 뜻을 담은 모란 2송이와 복숭아 열매 7개를 꽂는다. 다양한 형식과 박자의 반주 음악, 간간이 삽입된 다채로운 서정적 노래 등을 통해 처용무는 호방하고 활기차다. 처용의 형상을 대문에 새기면 역신과 사귀(邪鬼)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민간 신앙을 포함해 처용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민속 신앙의 일부를 이루는 한편, 처용무는 특히 오행설(五行說)로 대표되는 유교 철학을 구현하기도 했다. 처용탈의 제작 과정 또한 전통 장인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지속가능한 보호 기회 마련: 소멸 가능한 무형유산의 가치성 국제사회 인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호 기회 마련 - 지자체(경주시 중심) 보호 의지 기반 마련 - 대중화를 통한 교육적 가치 재발견: 역사적, 전통적, 사상적인 탄탄한 기반위에 꽃피워진 악가무 일체의 종합예술인 궁중무용으로서 처용무를 통해 청소년 교육 기회 마련	

63)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9. 가곡(歌曲),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유산명	가곡(歌曲),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영문 유산명	Gagok, lyric song cycles accompanied by an orchestra	
위치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연고는 없음	
등재연도	2010	
요약[64)]	- 가곡(歌曲)은 소규모 국악 관현(管絃) 반주에 맞추어 남성과 여성 들이 부르던 한국 전통 성악(聲樂) 장르이다. 가곡은 시조 및 가사와 함께 정가(正歌)에 속한다. 예전에 가곡은 상류 계층이 즐기던 음악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악곡이 되었다. 가곡은 남성이 부르는 노래인 남창(男唱) 26곡과 여성이 부르는 노래인 여창(女唱) 15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창은 울림이 있고 강하며 깊은 소리가 특징인 반면, 여창은 고음의 가냘픈 소리가 특징이다. 가곡은 장엄하면서도 평화로운 음계(音階)나 구슬픈 음계로 구성되며, 10박 또는 16박 장단을 사용한다. 반주로 사용되는 전통 관현악기는 6현 치터인 거문고, 가로로 부는 대나무 플루트인 대금, 12현 치터인 가야금, 피리(겹혀(複簧, double reed)가 있는 작은 관) 등이다. - 가곡은 서정성과 균형을 지니고 있으며, 세련된 멜로디와 진보적 악곡(樂曲)이라는 점에서 찬사를 받는다. 가곡을 부를 만한 기량을 습득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공연을 하려면 대단한 집중력과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가곡은 전수자들과 그들의 공동체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전수관에서 보호 및 전수하고 있다. 가곡은 한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가곡의 전승·[65)] · 가곡의 예술적, 상징적 가치는 지역 전수관에서 전수자들에 의해 보호·전수되어옴 · 전수 활동이 지역사회에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며, 자부심이 다시 전승의 동기가 되어 전수자들은 그들의 기량을 전수하고 있음 · 가곡은 단순한 오락 차원의 문화를 뛰어넘는 예술로 집단의 정체성을 담보한 한국 국민의 문화유산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64)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65) 출처: 위와 동일

10. 대목장(大木匠),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유산명	대목장(大木匠),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영문 유산명	Daemokjang,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위치	대목장의 전승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무형유산의 지역정보는 관계인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이다. 대목장 기능보유자인 신응수(申鷹秀, 1942~)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흥수(田興秀, 1938~)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일대에서, 그리고 최기영(崔基永, 1945~)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	
등재연도	2010	
요약[66]	- '대목장(大木匠)'은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특히 전통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수를 일컫는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통적인 한옥에서부터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기념비적 목조 건축물에 이르는 역사적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복원, 재건축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목장은 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은 물론 수하 목수들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전체 공정을 책임지는 장인이다. 대목장이 완성한 목조 구조물들은 하나같이 우아하고 간결하며 소박한데, 이런 점은 고스란히 한국 전통 건축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공정에서는 건축물을 그 규모 및 입지·용도에 걸맞게 설계하는 기술적 능력과 함께 건축 자재로 사용할 목재를 선정하여 절단하고 형태를 만드는, 또한 개개의 자재를 한데 모아 못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이어 소위 말하는 '천 년을 견디는 이음새'를 창조할 수 있는 심미적 감각을 필요로 한다. - 대목장의 전문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이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에 걸친 훈련과 현장경험이 필요하다. 전통의 건축기법을 적용해 기념비적인 옛 건축물들을 복원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대목장은 예술가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고 스스로가 가진 기술적 역량의 한계 내에서 그 아름다움을 재창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우리나라 최초의 기능 분야 등재라는 점 - 시대적 변화와 유행에 밀려 위기에 처한 대목장의 기능과 대목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계기 마련 - 대목장의 위상 및 가치성 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이나 최근의 광화문과 숭례문 복원이 대목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짐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홍보	

66)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1.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

유산명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	
영문 유산명	Falconry, a living human heritage	
위치	매사냥은 매가 수천 년 동안 이용하던 이동 경로를 따라 발달하였다. 따라서 매사냥은 북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북유럽에서부터 지중해 유럽, 중동 아시아 및 카스피 해 연안국을 거쳐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또한 북아메리카에서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매의 전통적인 이동 경로와 회랑 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등재연도	2010	
요약[67]	- '매사냥'이란 매나 기타 맹금(猛禽)을 길들여서 야생 상태에 있는 사냥감을 잡도록 하는 전통 사냥이다. 본디 매사냥은 식량을 얻는 한 가지 방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존 수단보다는 동료애 및 공유(共有)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사냥은 주로 매의 이동 경로와 회랑지대를 따라 찾아볼 수 있으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아마추어와 전문가 모두 즐기는 활동이다. 매사냥꾼(응사(鷹師) 또는 매꾼)은 자신이 기르는 맹금과 돈독한 유대감 및 정신적 교감을 형성하여야 하며, 매를 기르고 길들이고 다루고 날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매사냥은 하나의 문화 전통으로서, 전수 교육(멘토링(mentoring)), 가족 구성원 사이의 학습, 클럽의 공식 훈련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기후가 무더운 나라의 매사냥꾼들은 자녀를 사막으로 데리고 나가, 새를 다루고 상호간 신뢰를 쌓는 기술을 가르친다. 매사냥꾼들은 비록 그 배경이 서로 다를지라도 매를 훈련하고 돌보는 방법, 사용하는 도구,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 등의 보편된 가치, 전통, 기술을 공유한다. 매사냥은 전통 복식, 음식, 노래, 음악, 시, 춤 등을 포함해 매사냥을 하는 공동체와 클럽에서 잇고 있는 한층 폭넓은 문화유산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체코, 프랑스, 대한민국, 몽골,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시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참가국들은 등재신청서 작성을 통해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등재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함 - 매사냥의 등재가 결과적으로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 - 공동등재 추진의 특성상 참가국들은 공유유산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2010년 공동등재와 2012년 등재확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유네스코 이념 실천: 공동등재를 통해 국가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함: -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국가가 확대됨으로써 공동등재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능할 수 있는 사례로 분석됨 - 협약 취지 이해도 확산: 공동등재의 확대는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제 간 긴장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협약의 취지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	

67)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2. 줄타기

유산명	줄타기	
영문 유산명	Jultagi, tightrope walking	
위치	줄타기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줄 위를 걷는 놀음으로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서 연행되고 있다. 줄타기 곡예 연행은 줄타기보존회가 있는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수되고 있다.	
등재연도	2011	
요약[68]	- 줄타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 놀음의 하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지 곡예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인 줄타기는 음악 반주에 맞추어 줄타기 곡예사와 바닥에 있는 어릿광대가 서로 재담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줄타기 연행(演行)은 야외에서 한다. 줄타기 곡예사가 재담과 동작을 하며 노래와 춤을 곁들이는데, 곡예사가 줄 위에서 다양한 묘기를 부리는 동안, 어릿광대는 줄타기 곡예사와 재담을 주고받고, 악사들은 그 놀음에 반주를 한다. 줄타기 곡예사는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어려운 묘기를 부리는데 무려 40가지나 되는 줄타기 기술을 몇 시간 동안이나 공연한다. - 요즘은 줄타기 곡예사들이 특히 봄과 가을에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에 자주 초대받는다. 오늘날 한국에서 줄타기 전수는 경기도에 있는 줄타기보존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수교육은 2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명인들이 전수자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며 후진을 양성하는 방식의 도제 교육이 있으며, 학교 강습·체험교실·여름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중 교육이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2011년 신청한 6건의 무형문화유산 중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됐으며, 나머지 나전장, 석전대제, 조선왕조궁중음식은 정보보완결정 받음 - 인류무형유산 정보보완제도 운영방식 논의 · 정보보완(Referral) 제도 도입: 기존에 등재, 등재불가로만 한정하던 심사결정에 정보보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등재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서상의 정보부족으로 등재결정을 받을 수 없는 유산들에 대해 정보를 보완하여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함 · 이에 따라, 2011년 대표목록 등재신청 총 49건의 유산 중 26건 정보보완 권고 내림 - 심사방식 개선 시도 · 심사보조기구의 폐지 및 자문기구의 역할 확대 논의 · 일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위원국으로 구성된 심사보조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완전성 확보에 문제를 제기함 · 심사보조기구 폐지 및 대표목록의 심사를 자문기구에 위임할 것 주장함 ·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스페인 등은 심사보조기구 유지를 지지함 · 자문기구가 대표목록의 심사를 맡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4차 당사국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 2012년에 심사될 4개 제도(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목록, 긴급원조)의 신청서 개수를 62개로 제한키로 결정함 · 이 중 공동등재와 유산미등재국가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4개 제도를 통틀어 국가당 1개의 신청서가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함	

68)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3.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

유산명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	
영문 유산명	Taekkyeon,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위치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85개의 교육 센터에서 택견을 보전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한다. 택견의 중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로, 한국택견협회가 이곳에 있다.	
등재연도	2011	
요약[69]	-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이다. 우아한 몸놀림의 노련한 택견 전수자는 직선적이고 뻣뻣하기보다는 부드럽고 곡선을 그리듯이 움직이지만, 엄청난 유연성과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발동작이 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지만, 택견은 모든 가능한 전투 방법을 이용하며 다양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무술이다. - 택견은 또한 배려를 가르친다. 숙련된 택견 전수자는 신속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상해를 입히지 않고도 상대를 물러나게 하는 법을 안다. 계절에 따른 농업과 관련된 전통의 한 부분으로서, 택견은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며,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공중 보건을 증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택견을 일상 활동으로 즐긴다. 현재 인정을 받은 택견 전수자는 대략 50명이며, 한국택견협회는 이 전통 무술의 계승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택견의 세계화 방안 제시[70] · 택견은 1983년 6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음 · 택견의 국내외 진흥을 위해서는'택견진흥법' 제정 필요 · 택견의 보호·육성·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필요 · 택견 단체간 행정 단일화 체계시스템 구축: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수, 경기 규칙의 표준화, 국제 교류 창구의 일원화 등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임 · 택견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함: 표준화된 택견 수련체계와 수련방식 정립 · 택견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 · 택견 무예 기법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택견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을 위한 토대 제공 가능.	

69)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70) 곽낙현(2016,). 택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세계화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 제5호, 459 - 468.

14. 한산모시짜기

유산명	한산(韓山) 모시짜기	
영문 유산명	Weaving of Mosi (fine ramie) in the Hansan region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에 있는 한산모시짜기 전수교육관은 주요한 기술 훈련과 교육장소이다.	
등재연도	2011	
요약[71]	- 한산모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만드는 모시로, 이 지역은 여름 평균 기온이 높으며 해풍으로 인해 습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시가 잘 자라서 품질이 우수하다. 이 때문에 한산모시는 모시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모시짜기는 수확, 모시풀 삶기와 표백, 모시풀 섬유로 실잣기, 전통 베틀에서 짜기의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정장·군복에서 상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류의 재료가 되는 모시는 더운 여름 날씨에 입으면 쾌적한 느낌을 주는 옷감이다. 표백한 순백색 모시의 섬세하고 단아함은 일반 의류 뿐 아니라 고급 의류에도 알맞다. - 모시짜기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이끄는 가내 작업인데 어머니가 딸 또는 며느리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한다. 또 모시짜기의 전통은 마을의 정해진 장소에서 이웃과 함께 모여서 일함으로써 공동체를 결속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한산 모시짜기는 한국의 충청남도 한 마을의 중년 여성이 전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대략 500여 명이 모시짜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후 서천군에서는 일찍이 한산모시와 모시짜기 진흥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11년 한산모시짜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는 데 크게 기여함.[72] - 한산모시짜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공동체에 기반한 무형유산 기록·조사·보존·보호·증진·전승유산의 활성화 등 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산모시'를 둘러싼 전승과 진흥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분화된 양상으로 추진되어 왔음 - 국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승지원책을, 지자체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한산모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축제활성화 및 지원책 마련: 한산모시짜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서천군에서는 한산모시문화제를 통해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한산모시문화제 길쌈놀이는 행사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 대규모 홍보관 조성 및 지역공동체 기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서천군에서는 최근 한산모시관을 중심으로 모시단지 확장 구축과 프로그램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71)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72) 황경순 (2013).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통해 본 무형유산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민족문화논총, 55, 487-512

15. 아리랑

유산명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영문 유산명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	
위치	아리랑은 한민족의 가장 대표적 민요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 호남 지역의 '진도아리랑' 경상남도 일원의 '밀양아리랑' 등 3가지이다.	
등재연도	2012	
요약[73]	-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일반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로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여음(餘音)과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 보편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편, 지극히 단순한 곡조와 사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편곡과 모방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가 쉽고, 여러 음악 장르에 자연스레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간의 창의성, 표현의 자유, 공감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아리랑이 지닌 가장 훌륭한 덕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새로운 사설을 지어 낼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통해 아리랑의 지역적·역사적·장르적 변주는 계속 늘어나고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풍성해진다. 아리랑은 한민족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애창되며 사랑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각 지역사회와 민간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는 일단의 지방 민요인 아리랑 전수자들은 해당 지방 아리랑의 보편성과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대중화와 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아리랑은 또한 영화·뮤지컬·드라마·춤·문학 등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대중적 주제이자 모티프로 이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아리랑은 심금을 울리는 한민족의 노래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2.12.5.) 이후 아리랑에 대한 가치와 그 의미가 사회·문화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아리랑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인 보존·활용 및 아리랑 관련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음.[74] - 2014년 북한의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최초 등재) · 평가: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북한에서 가족과 친구 등 남녀노소가 마을 등지의 공개 행사와 잔치에서 즐겨 부르는 인기 있는 민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온화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이별과 재회, 슬픔, 기쁨, 행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고 설명함. · 유네스코는 또 아리랑이 북한에서 사회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상호 존중과 평화로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75]	

73)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74) 출처: http://arirang.iha.go.kr/service/introduce.nihc

75) 출처: https://www.voakorea.com/a/2537088.html

16.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유산명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영문 유산명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위치	김장은 한국 전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음식 풍습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김치 담그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해 김장을 담는다. 지리 조건과 기후가 각 지역마다 독특한 김장을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전역에 걸쳐 김장 문화는 매우 동질적이다. 김치는 한국인들에게 필수적이다. 어디에 살건 한국인들은 김장을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국가의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등재연도	2013	
요약[76)]	- 늦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많은 한국인들은 김장에 대한 화제를 나눈다. 김장은 한국 사람들이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말한다. 김치는 한국 고유의 향신료와 해산물로 양념하여 발효한 한국적 방식의 채소 저장 식품을 일컫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760년 이전에도 한국인의 식단에는 김치가 있었다고 한다. 김치는 계층과 지역적 차이를 떠나 한국인의 식사에 필수적이다. 밥과 김치는 가장 소박한 끼니이지만, 가장 사치스러운 연회에서도 김치는 빠질 수 없는 반찬이다. - '김장'은 한국인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합한 음식 문화로, 지역 생태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은 특수한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개발했다. 따라서 김장은 한국의 자연적 주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김장 준비는 매해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봄철이면 각 가정은 새우·멸치 등의 해산물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다. 여름에는 2~3년 동안 저장할 천일염을 구입하여 쓴맛이 빠지도록 한다. 늦여름에는 빨간 고추를 말려서 가루로 빻아 둔다. 늦가을에 주부들은 날씨를 고려하여 김장에 알맞은 날짜를 결정한다. 김치를 담아 시원하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저장하여 최고의 맛을 얻으려면 적절한 온도가 중요하다. 김장 후에 가정마다 김치를 나누어 먹는 관습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생각이 공유되고 축적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2006년에 협약이 발효되고 2008년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도 우리나라는 미지정 무형유산보다는 중요무형문화재 중에서 대표목록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서열화를 지속시켰음. - 이러한 측면에서 김장문화의 등재 추진은 다음과 같이 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의의를 지님. · 첫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아닌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여 국가와 국민이 미지정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 둘째, 등재 신청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로서 특정 개인과 보존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이들에게 무형문화유산 보호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시켰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는 그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건수 늘리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등재 이후의 보호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했음(황경순, 2013) - 김장문화확산과 활용: 회사원에게는 11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 제공하는 문화와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김치냉장고 발명과 확산에도 기여함. 전국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매년 김장담그기 행사를 운영하며, 만들어진 김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일한으로 전달되고 있음.	

76)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7. 농악(農樂)

유산명	농악(農樂)	
영문 유산명	Nongak, community band music, dance and rituals in the Republic of Korea	
위치	농악은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모임인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 및 농촌의 여흥 활동에서 유래되었음.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 장르로 발전하여 왔으며 한국인들 모두가 폭넓게 연행하고 즐기고 있다. 지리적으로 농악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연행되고 있음.	
등재연도	2014	
요약[77]	- 농악은 공동체 의식과 농촌 사회의 여흥 활동에서 유래한 대중적인 공연 예술의 하나이다. 타악기 합주와 함께 전통 관악기 연주, 행진, 춤, 연극, 기예 등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발전하여 왔다. 각 지역의 농악 공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마을신과 농사신을 위한 제사,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봄의 풍농 기원과 추수기의 풍년제, 마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행사 등, 실로 다양한 마을 행사에서 연행되며 각 지방의 고유한 음악과 춤을 연주하고 시연한다. 고유한 지역적 특징에 따라 농악은 일반적으로 5개 문화권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같은 문화권 내에서라도 마을과 마을에 따라 농악대의 구성, 연주 스타일, 리듬, 복장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농악 춤에는 단체가 만드는 진짜기, 상모놀음 등이 병행된다. 한편 극은 탈을 쓰거나 특별한 옷차림을 한 잡색들이 재미난 촌극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버나 돌리기나 어린 아이를 어른 공연자의 어깨 위에 태워 재주를 보여주는 무동놀이와 같은 기예도 함께 연행된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농악과 친숙해지는데, 공동체의 여러 단체와 교육 기관은 농악의 여러 상이한 요소들의 훈련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악은 공동체 내에서 연대성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지속성 및 행사 자율성: 농악은 일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많은 행사장에서 공연이 이뤄지고 있음 - 시연자와 피시연자와의 공감대 형성: 공연자와 참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 부여 - 확장 가능성: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 간 대화 촉진의 촉매 역할 가능성 인정 받음	

77)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8. 줄다리기

유산명	줄다리기	
영문 유산명	Tugging Rituals and Games	
위치	국가지정(2건): 영산줄다리기(국가지정 제26호), 기지시줄다리기(국가지정 제75호) / 시도지정(4건): 삼척기줄다리기(강원지정 제2호), 감내게줄당기기(경남지정 제7호), 의령큰줄땡기기(경남지정 제20호), 남해선구줄끗기(경남지정 제26호)	
등재연도	2015	
요약[78]	- 줄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도작(稻作, 벼농사)문화권에서 널리 연행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줄다리기를 연행함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경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두 팀으로 나누어 줄을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놀이인 줄다리기는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하는 데에 본질이 있다. 줄다리기를 통해 마을의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연행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결속과 단결을 강화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 협력하여 공동 등재로 진행한 점 - 풍농을 기원하며 벼농사 문화권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전통문화로서 줄다리기의 무형유산적 가치 등을 높이 평가함.	

78)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9. 제주해녀문화

유산명	제주해녀문화	
영문 유산명	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	
위치	제주도의 해안 마을 대부분과 그 부속 도서에 해녀들이 살고 있기에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다.	
등재연도	2016	
요약[79]	- 제주도의 여성 공동체에는 최고령이 80대에 이르는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심 10m까지 잠수하여 전복이나 성게 등 조개류를 채취하는 해녀(海女)가 있다. 바다와 해산물에 대해서 잘 아는 제주 해녀들은 한번 잠수할 때마다 1분간 숨을 참으며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 연간 90일 정도 물질을 한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낸다. 해녀들은 저마다의 물질 능력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며 상군 해녀들이 나머지 해녀들을 지도한다. 잠수를 앞두고 제주 해녀들은 무당을 불러 바다의 여신인 용왕할머니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잠수굿을 지낸다. 관련된 지식은 가정, 학교, 해당 지역의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 해녀회, 해녀학교와 해녀박물관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 전승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에 의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정신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지정된 '제주 해녀 문화'는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고, 생태 친화적인 어로 활동과 공동체에 의한 어업 관리는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해녀문화를 제주지역의 여성성을 상징하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해녀는 옛날 순종만을 강요당했던 여성상에서 벗어나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지역 여성의 여권신장에 기여함. - 공동체 정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잠수기술과 책임감, 공동 작업을 통해 거둔 이익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 받음. - 1971년 '해녀노래'가 제주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이후, 해녀와 어부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요를 기원한,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1980년), '제주 해녀와 물옷과 물질도구'가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10호(2008년), '제주 해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2015년)로 지정되어 해녀문화의 다방면 보호 노력이 이루어짐.	

79)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20.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유산명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영문 유산명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위치	-	
등재연도	2018	
요약[80]	- 씨름은 한국 전역에서 널리 향유되는 대중적인 놀이이다. 씨름은 두 명의 선수가 허리 둘레에 천으로 된 띠를 찬 상태에서 서로의 허리띠를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레슬링의 일종이다. 성인대회의 우승자는 풍요로운 농사의 상징인 황소를 상으로 받으며, '장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놀이가 끝나면, 장사가 우승을 기념하며 황소를 타고 마을을 행진한다. 씨름은 마을에 있는 모래밭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며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씨름은 전통 명절, 장이 서는 날, 축제 등 다양한 시기에 진행되었다.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씨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씨름의 사회적 기능은 공통적이다. 씨름은 부상의 위험이 적은 접하기 쉬운 스포츠로, 정신과 몸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한국인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씨름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있다. 예컨대 지역 공동체가 매년 씨름 대회를 열고, 학교에서 씨름 종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소장기관/부서	- 문화재청/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시사점	- 등재의미와 가치: 2018년 남북의 공통된 무형유산인 씨름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등재 되었음. (심승구 2019)[81] - 시사점 ·첫째, 씨름은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한 첫 사례임. 2019년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찾아온 씨름의 공동등재는 70년간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앞으로 남북의 유산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됨. ·둘째, 씨름의 남북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함. 유네스코 평가기구가 씨름이 연행과 전승 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같다는 점을 들어 전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한 것도 바로 남북 씨름의 공통점 때문임. 그 결과 분단이 갈라놓은 유산이 오히려 분단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됨. ·셋째, 씨름의 공동등재는 분단을 넘어 세계를 잇는 유산의 상징이 됨. 씨름의 공동등재는 남북 간 구성원들의 염원과 의지에 공감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적극 협력하여 성사되었다는 점.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도 "남북한의 공동등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동등재가 남북 평화정착 과정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 한편, 서로 간에 이해의 다리를 놓고 평화를 만드는 문화유산의 힘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축하함. ·그동안 유네스코 유산 가운데 분쟁 또는 정전 중 화해를 위한 공동등재의 선례는 전무함. 그런 점에서 볼 때, 씨름은 유네스코 유산제도가 생긴 이래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됨. 결국 씨름의 공동등재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구사적 의미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가치 실현이라는 인류사적 의미로 해석됨.	

80)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3 제 언

세계유산분야

○ 유네스코는 문화가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지난 2018년 11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한국의 전통 씨름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모습으로 나타났었음.

○ 남·북한이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공동으로 유산을 등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한국 전통 씨름의 등재는 남북한의 지속적인 의지와 연대의 표현으로 평가되며, 남과 북의 화해를 향한 매우 상징적인 일이자, 문화유산을 통한 평화구축의 힘을 일깨워 준다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는 국가와 지역 사회가 공유되는 가치와 역사를 중심으로 연합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음.

○ 유네스코는 국가 간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오랫동안 초국경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홍보하였고, 현재 전 세계에 39개의 초국경 세계유산이 있으며 이 유산들은 공통의 역사와 환경 및 문화로 연결되어 있음.

○ 한국가의 의지만으로 유네스코 정신에 따른 초국경유산 관련 세계유산 등재와 평화협력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므로 유네스코의 역할이 더욱 요구시 되는 시기임.

○ 또한 이러한 초국경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성 발굴과 정립,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다자간 협력이 요구시 되는 바, 협약 정신에 따라 문화 및 자연분야를 비롯한 유네스코 국제채널을 활용해 세계유산등재 기반 구축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임.

○ 세부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한반도 DMZ 세계유산등재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과업일뿐더러, 평화의 상징, 다시는 있어선 안 될 냉전유산의 결과물로서 유네스코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임.

81) 심승구 (2019).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비교민속학, 69, 153-173.

○ 그간의 14개의 세계유산(문화유산13, 자연유산1)등재 경험을 토대로 국내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초국경유산으로서 '한반도 DMZ' 세계유산등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정전 협정 조인 당사국(중국, 북한, UN),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재청, 해당 지자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해당 지역주민 등) 유네스코가 중심에 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당위성이 마련된다 할 수 있음.

○ 더불어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전문가 단체라 할 수 있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설립되고 20년이 경과되는 가운데, 유네스코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 2019년 4월 19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학술행사」를 통해 작성·공시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메니페스토'[82]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와 발전을 위한 방향성 검토 및 공조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분야가 국내외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추어 정책, 연구 및 사업들로 연계될 수 있음.

---

82)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메니페스토(2019.04.19.) 전문

- 문화유산은 삶과 유리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며 인류가 가꾸어 온 공동의 자산이자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과 함께 할 귀중한 자산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유산과 함께 그것이 조성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 지역, 계층, 연령, 분과학문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문가들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있는 개방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선다. 이와 함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의지와 역량을 이어갈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며, 그들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올바르게 밝히는 고유의 시각과 철학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를 공유한다. 아시아 각국과 열린 협력을 통해 아시아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밝히는 일을 함께 수행한다.
- 문화유산에 대한 특정 지역의 시각이나 자국 위주의 일방적 해석에서 벗어나 세계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제국주의 팽창 시기의 유산들이 자국의 편협한 시각으로만 해석되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에는 유네스코의 평화 추구 정신에 부합하는 과정을 따를 것을 천명한다.
- 특정 시기의 유산을 임의적으로 복원하는 정책을 지양하며 각 시대의 문화가 중층적으로 엮여 이루어진 문화경관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성취를 지혜롭게 문화유산 보전활동에 활용한다.
-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문화유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재난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며 이를 위한 국제 공조에 앞장선다. 아울러 과도한 관광압력으로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 이와 같이 이모코스 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 문화유산은 물론 세계 각 지역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과 자연환경의 보전,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구 분(5Cs)	세부주제(안)
신뢰성(Credibility)	초국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 공유유산(Shared Built Heritage), 분쟁유산(Conflicts Heritage), 농업유산(Rural Heritage) 냉전유산(Cold War Heritag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연계(Integration between Cultural - and Natural Heritage),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등
보전(Conservation)	기후변화와 유산(Climate Change and Heritage),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보존원칙(Conservation principles), 재료과학(Material science), 관광계획(Tourism Management), 지속가능한 보존관리(Sustainable Conservation & Management), 인권기반 유산보존관리(Right-based approach to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지속가능한 관광 등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교육(education), 훈련 프로그램(training program) 등
소통(Communication)	해석(Interpretation), 다자간 협력체계(Multilateral collaborative system) 등
공동체(Communities)	인식확산(Raising Awareness), 공동체참여(Involving Community) 등

인류무형유산 분야

○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차이점과 향후 과제

- 1962년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보호제도와 국제규범으로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주, 보호 주체의 역할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지님.
- 유네스코 협약의 3가지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무형유산의 개념, 공동체안에서 무형유산의 보호, 무형유산의 변화와 재창조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데 있고, 특히 협약에서는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임돈희, 2019)[83]
- 공동체, 집단,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하는 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공동체, 집단,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 나아가 협약에서는 공동체가 무형유산의 생산, 보존, 전승의 주체라고 보고 있음.
- 이와 관련 국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시행 2016.3.28., 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함)에서는 이 공동체를 지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국가차원의 보호정책에 의해 인정된 보존회를 비롯한 특정 단체와 개인의 역할만을 강조해 옴.
- 더불어 시행령에는 "해당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 데 구현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고유한 가치, 기법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변화와 재창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한국 정부가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협약과의 상충되는 관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의 한국 무형유산학 분야의 과제로 남아있음.
- 이와 관련 국내 무형유산학회(2015년 설립)를 포함해 무형유산관련 다양한 주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및 단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규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네스코의 보호협약과 상충하지 않도록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실정임.

83) 임돈희(2019,).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비교와 담론,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58집1호, 87-149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의 전형(典型)유지와 전승 공동체의 전승력을 중심으로 세대 간에 연행과 전수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정비해야 함.(최종호, 2016)[84]

84) 최종호(2016,).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3호,195-215

한국 유네스코 70년 활동 자료목록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회의보고서	(1967 Seminar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Through Aural-Oral Approach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67
	연구보고서	(1968)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사회과 자료 단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단행본(연구보고서)	(1969)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사회과 자료 단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9
	연수자료집	(1998년도학술연구보고)국제이해교육연수모형개발			1998
	활동보고서	(2005년도 유네스코협동학교 현장연구/활동프로그램 보고서)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위한 범교과지도 사례 일반화자료개발	충북유네스코 교사협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
	포럼자료집	(2006 유네스코 교육포럼) 한국 국제교육협력 전략과 추진방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행사보고서	(2008 CCAP 포럼)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포럼			2008
	포럼자료집	(2009 교육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정책포럼) 교육과학기술 ODA의 새로운 요구와 추진전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단행본	(2012 EFA 세계현황보고서(요약본)) 청년과 기술 : 배움에서 일터로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단행본	21세기교육을위한새로운관점과전망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	Delors, Jacques	오름	1997
	행사보고서.타관	(ACCU Invitation Programme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of Teachersand Professionals) Final Reporton 5th Invitation Programme for Korean Teachers			2005
	매뉴얼	(CCAP) Participant's Handbook: Diverse Voices in Harmory(=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참가자 활동 지침서)			2009
	단행본	(DESD 2차 보고서) 내일의 교육을 그리다	발스, 아르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회의자료집.타관	(Follow-up to the World Conferenceon Higher Education)Higher education In Asiaand the Pacific1998-2003		UNESCO Bankok office	2003
	사진집	(Reflec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Samsung-KNCU Educational Fund 2001-2009) Planting the Trees of Hop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사례집	(UNESCO Associated Schools) Regional Collection of Good Practice: MDGs &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잡지(수록기사)	(권두언)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김낙운	전라남도교육위원회	1983
	잡지(수록기사)	(문교소식) 국제학술대회 개최 외	공보관실	문교부	1986
	잡지(수록기사)	(문교소식) 유네스코총회 기조연설 외	공보관실	문교부	1985
	잡지(수록기사)	(실천사례) 국제이해교육 코너의 운영	서용석	전라남도교육위원회	1990
	행사자료집.타관(협회)	(연구보고서) 가정에서의 세계학습프로그램: 1994년도 한국유네스코운동전국대회 학술연구발표		유네스코서울협회 학술분과위원회	1994
	잡지(수록기사)	(연구자료) UN의 노년에 관한 세계회의 참가기	김용현	문교부	1982
	잡지(수록기사)	(연수자료) 지도요소 관련지도를 통한 국제이해의 증진	황태성	전라남도교육위원회	1991
	단행본(요약)	(요약본) 보이지 않는 위기 - 무력분쟁과 교육 : 세계 EFA 현황 보고서 20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세미나자료집	(유네스코평생학습정책및학술세미나)평생학습사회구축을위한실천전략			2005
	잡지(수록기사)	(유엔데이)국제연합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	박노식	교육평론사	1961
	행사자료집	(자료집) 2009년도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 총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회의자료집	(자료집) ASPnet Good Practice Development Project in Achieving			2009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MDGs through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2009: Asia-Pacific ASPnet Forum on ESD & MDGs			
	사업계획서	(자료집, 2010년도 유네스코협동 학교지속가능 발전교육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모음)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지역의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만든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잡지(수록기사)	(장학자료)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력인정 협약	정태범	문교부	1984
	잡지(수록기사)	(장학자료) 청소년, 참여, 발전, 평화 -세계 청소년의 해와 유네스코	김종구	문교부	1985
	잡지(수록기사)	(정보자료) 국제회의참가를 위한 준비와 요령	조선제	문교부	1983
	잡지(수록기사)	(주제논단-국제화 시대의 교육)국제기구와 교육 교류	박병옥	교육부	1991
	단행본	(지속가능발전교육) 맥락과 구조의 검토(2009)	발스, 아르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본	(지속가능성 시리즈 1) 우리의 지구,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도서출판 길	2010
	단행본	(지속가능성 시리즈 2) 에너지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서출판 길	2010
	단행본	(지속가능성 시리즈 3) 기후 변화, 돌이킬 수 없는가		도서출판 길	2010
	잡지(수록기사)	(특별 기획2 세계화 시대의 한국 교육) 세계화를 위한 교육 제도, 관행의 개혁	김신복	교육부	1995
	잡지(수록기사)	(특별기획1 교육부 1992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교육 교류 협력의 증진	교육협력과	교육부	1992
	잡지(수록기사)	(특별기획1 교육부 1년, 그 실적과 전망) 국제교육교류와 협력의 강화	정봉근	교육부	1991
	잡지(수록기사)	(특별기획1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 국제 기구와 교육 과학 문화의 교류	이승환	교육부	1994
	연구보고서	(특별활동) 연구보고서, 집단과정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1985
	잡지(수록기사)	(한국청년해외봉사단 발단식 치사) 봉사에서 보람을	정원식	문교부	1990
	잡지(수록기사)	(해외 교육 정보) 일본의 국제 이해 교육 현황	전호윤	교육부	1996
	잡지(수록기사)	(해외교육 정보)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정우탁	교육부	1992
	잡지(수록기사)	(해외교육정보) 나미비아의 교육개혁과 교육환경 -국제콘퍼런스 참여 보고-	허운나	교육부	1991
	잡지(수록기사)	(해외교육정보) 제40차 국제교육회의	정두용	문교부	1987
	잡지(수록기사)	(행정자료) 1982년도 국제교육 교류사업의 개요	최희완	문교부	1982
	연구보고서	(현지방문조사 보고서) 아태지역 저개발국 교육발전 지원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행사보고서	[교육팀]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최종보고서(국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잡지(수록기사)	1953년도UNKRA 원조학교수축자재		문교부	1953
	회의보고서	1963년도 국제이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협의내용 및 건의)			1963
	회의보고서	1966 영어교육 발전 쎄미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6
	회의보고서	1966년도 ASP 쎄미나 보고서		유네스코협동학교OO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6
	세미나자료	1967 영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7
	회의보고서	1967년도 국제이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협동학교OO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7
	회의보고서	1968년도 국제이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협동학교OO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회의보고서	1968년도 영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제3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회의보고서	1969년도 국제이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SP기획위원회	1969
	활동보고서 (제출)	1969년도 국제이해교육연구활동 보고서		충남고등학교	1969
	회의보고서	1970년도 국제이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회의보고서	1970년도 한국 교육 시설 개선 세미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0
	회의보고서	1972년도 국제이해교육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연구계획	1986년도 국제이해교육 연구활동 추진계획			1986
	연구보고서	1995년도 국제이해교육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사업보고서	1999년도 활동보고서 :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부	1999
	단행본 (세미나자료)	2000년대의주인공인오늘의어린이 : '세계아동의 해' 기념 세미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9
	사업보고서	2001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1
	행사보고서	2001 아시아 · 태평양 유네스코 협동학교사업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
	행사보고서	2002 ASP net exchange programmein Asia and the Pacificregion : Associated Schools Project,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2002
	사업보고서	2002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2
	사업보고서	2002년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학교(KUCES Summer School)평가보고서			2002
	사업보고서	2003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3
	사업보고서	2004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4
	사업보고서	2005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5
	사업보고서	2006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6
	사업보고서	2007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7
	행사보고서	2007 아시아 태평양 유네스코협동학교사업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KNCU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행사자료집	2007년 세계화교육 교원 직무연수 (유네스코 부산협회)			2007
	프로그램보고서	2007년도 한국교사 일본초청 프로그램	KNCU	KNCU	2007
	사업보고서	2008 CCAP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008
	제출보고서	2008 유네스코협동학교 네트워크(ASP.net) 현장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일본 소재 세계문화유산 탐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증진	대전충남중고공동		2008
	워크숍자료집	2008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워크숍 :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양사이버대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양사이버대학교	2008
	행사보고서	2008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워크숍 결과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양사이버대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양사이버대학교	2008
	행사보고서	2008년도 한국교사일본초청프로그램			2008
	활동보고서	2009 ASPnet 현장연구 프로젝트: 단위학교에서의 폐품재활용 및 분리수거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의식고취 - 보고서			2009
	사업보고서	2009 CCAP 활동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09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행사보고서	2009년도 일본교사 한국초청 프로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프로그램보고서	2009년도 한국교사 일본초청 프로그램 : Programme Rep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사업보고서	2010 CCAP 활동보고서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행사보고서	2010 RAINBOW 청소년 세계 시민 프로젝트 활동보고서 :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가이드북	2010 유네스코 협동학교 Guidebook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행사보고서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2010 지속가능발전교육 개황			2010
	행사자료집	2010년도 제1차 포럼: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CCAP)			2010
	행사자료집	2010년도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행사자료집	2010년도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행사보고서	2010년도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행사자료집	2011 Capacity-Building Programme for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ipants Handbook)			2011
	사업보고서	2011 CCAP 활동보고서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행사보고서	2011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회의자료집	2011유네스코협동학교총회			2011
	행사보고서	2011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연수자료집	2011 중등 교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역량개발 직무연수 : 기본과정	중등 교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역량개발 직무연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연수자료집	2011 중등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역량개발 직무연수 - 기본과정(제2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행사보고서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 종합보고서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행사자료집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 참가자용 자료집(1)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행사자료집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 참가자용 자료집(2)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포럼자료집	2011 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교사포럼	2011 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교사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본	201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개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연수자료집	2011 초등 교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역량개발 직무연수 : 기본과정	초등 교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역량개발 직무연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연수자료집	2011 초등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역량개발(기본과정)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11
	행사보고서	2011년 브릿지사업 리트릿프로그램 보고서			2011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행사보고서	2011년도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보고서	2011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1년도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자료집	2011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행사보고서	2011년도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 그룹이야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행사보고서	2011년도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본	2012Rainbow청소년세계시민프로젝트활동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2 유네스코협동학교 총회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2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보고서	2012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행사자료집	2012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제8차 회의 참가자 자료집 (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2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제8차 회의 참가자 자료집 (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2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참가자 자료집 (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2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참가자 자료집 (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보고서	2012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 종합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포럼자료집	2012 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교사포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보고서	2012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그룹이야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보고서	2012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2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	·	2011
	행사자료집	2012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포럼 결과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내부문서	2012년도 제1차 교육분과위원회 의안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내부문서	2012년도 제2차 교육분과위원회 의안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내부문서	2012년도 제3차 교육분과위 의안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2013 유네스코협동학교 총회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행사자료집	2013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행사자료집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전국 워크숍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행사보고서	2013한국교직원일본초빙프로그램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행사자료집	2013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내부문서	2013년도 제1차 교육 분과위원회 의안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브로셔/리플렛	2015 세계교육회의 (브로슈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브로셔/리플렛	2015 세계교육회의 영문브로슈어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3
	연구보고서	2015세계교육회의추진전략및국내외EFA네트워크구축방안최종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회의자료집	21세기 지식혁명과 평생학습사회 국제회의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Knowledge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행사보고서	5th Korean-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	·	2007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understanding			
	행사자료집	5th Korean-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파일링철)			2007
	행사보고서	6th Korean-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2008
	행사보고서	7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 Final Rep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09
	행사보고서	8th Korean-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2010
	잡지(수록기사)	8회 유네스코 총회		한국교육문화협회	1955
	행사보고서	9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1
	연구보고서	AN EXPLORATORY ACTION RESEARCH FOR INCREASING THE AWARENESS OF WORLD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Ran-Soo Kim et.	UNESCO	1978
	연구보고서	A-O-A를통한영어교육 : 모범학습지도안을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0
	타관.국가보고서	Asian education planning mission, KOREA		UNESCO Bankok office	1964
	브로셔/리플렛	Asian RICE Project 리플렛			2011
	브로셔/리플렛	Asian RICE Project 브로슈어			2011
	사업보고서	ASPnet Good Practice Development Project in Achieving MDGs through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2009: Asia-Pacific ASPnet Forum on ESD & MDGs - 최종보고서			2009
	사업보고서	ASPnet Good Practice Development Project in Achieving MDGs through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2009: Monitor&Evaluation			2009
	사업보고서	ASPnet Good Practice Development Project in Achieving MDGs through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2009: Selected Application Forms			2009
	연구보고서	Aural-Oral Approach를 위한 학습지도안, 고등학교 1학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연구보고서	Aural-Oral Approach를 위한 학습지도안, 중학교 1학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연구보고서	Aural-Oral Approach를 위한 학습지도안, 중학교 2학년	장복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연구보고서	Aural-Oral Approach를 위한 학습지도안, 중학교 3학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매뉴얼	CCAPManualdeParticipantes			2002
	매뉴얼	CCAP Participant's Handbook			2011
	매뉴얼	CCAP Participant's Handbook(=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참가자 활동 지침서)			2003
	브로셔/리플렛	CCAP 브로셔 국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브로셔/리플렛	CCAP 브로셔 영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회의자료집	CommemorativeInternationalSymposiumfortheOpeningoftheAsia-PacificCentreofEducationforInternationalUnderstanding			2000
	심포지움보고서	CommemorativeinternationalsymposiumfortheopeningoftheAsia-Pacificcentreofeducationforinternationalunderstanding : Final report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Opening of the Asia-Pacific Centr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연구보고서	DESD 후반기 유네스코 한위 ESD 사업추진방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처ESD실무작업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연구보고서	Educationforall : (The) Year 2000 assessment : country report	HAN Zun-sang (Korea Consultative Committee for APPE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9
교육	회의보고서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KNCU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2
	워크샵보고서	EducationforInternationalUnderstandingandPeaceinAsiaandthePacific : Final report	Regional Workshop 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Peace in Asia and the Pacific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9
	UNESCO Bangkok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ia-Pacific Region			2005
	단행본. 유가	EducationinKorea : a third world success story	Jayasuriya, J.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3
	단행본	Educational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 Preliminary and Factual Report by 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	Donald P. Cottrell et. al.		1952
	단행본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75-76/1976-77	(세계교육회의 제출용)	Ministry of Education	1977
	활동보고(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76-77/1977-78	Korea R.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79
	활동보고(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78-79/1979-80	Korea.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80
	활동보고(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81-1983	Korea.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83
	활동보고(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84-1986	Korea.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86
	활동보고(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86-1988	Korea.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89
	활동보고(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88-1990	Korea. Ministry of Education	KNCU	1990
	활동보고(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1990-1992	Korea.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92
	연구보고서(타관)	Education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Rep. of Korea.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94
	단행본	EFA-ESD 대화 :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육	로스 웨이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연구보고서	EFA와 한국: 유네스코 EFA 평가와 개정에 따른 한국의 참여 방안 연구	유성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연구보고서	Environmental education guidebook for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KNCU	1998
	브로셔/리플렛	ESD 2011 콜로퀴엄 시리즈 리플렛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브로셔/리플렛	ESD in Korea 영문 리플렛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연구보고서	ESD 공식 프로젝트 (Official Project) 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이재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단행본	ESD 교재 활용 가이드 :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희망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연구보고서	ESD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한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세미나자료집	ESD와 교육 선진화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제4차 ESD 콜로퀴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2010
	세미나자료집	ESD와 교육과정·교수학습 혁신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제2차 ESD 콜로퀴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포럼자료집	ESD와 교육정보화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세미나자료집	ESD와 녹색·창의 인재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제1차 ESD 콜로퀴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0
	브로셔/리플렛	ESD와 문화예술교육 (2011 ESD 콜로퀴엄 시리즈) 리플렛	·	·	2011
	세미나자료집	ESD와 보호지역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제7차 ESD 콜로퀴엄	국립공원관리공단 MAB한국위원회	2011
	세미나자료집	ESD와 지역발전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제3차 ESD 콜로퀴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	2010
	세미나자료집	ESD의 잠재성과 활용성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제5차 ESD 콜로퀴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2010
	행사보고서.타관	final report on "2002 Invitation programme for Korean teachers"	ACCU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2002
	타관	FinalReporton4thInvitationProgrammeforKoreanTeachers	·	ACCU	2004
	행사보고서	HumanRightsandPeaceEducationforTeachersinUganda	·	·	2007
	심포지엄자료집	IAEC-UNESCO 국제교육 심포지엄 :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교육도시 구축	IAEC-UNESCO 국제교육 심포지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포럼자료집	ImplicationsofWTO/GATSonHigherEducationinAsia&thePacific : UNESCO Forum Occasional PapSeries Paper no. 9.	UNESCO	UNESCO	2005
	포럼자료집	Implications of WTO/GATS on higher education in Asia & the Pacific, Part 1	UNESCO	UNESCO	2005
	포럼보고서	International Forum on Reform and Innova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Unesco, KNCU and Korea Science Foundation	KNCU	2006
	회의자료집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Knowledge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Knowledge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4
	회의보고서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Knowledge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 Final Report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Knowledge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4
	회의보고서	InternationalWorkshoponEnvironmentalPeaceinEastAsia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행사보고서	Invitation programme for Korean teachers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2001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UNESCO	
	교육자료집	KUCES Lectures on Korean Culture: Report of the lecture series	·	KUCES	2000
	브로셔	KUCES PROGRAMME Sin2002(=2002년도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 프로그램)	·	KUCES	2002
	연구보고서	Long-term projections fo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UNESCO ROEA	UNESCO Bangkok	1965
	회의보고서	Multi-nationalmeetingofrepresentativesforassociatedschoolsprojectin Asia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1971
	단행본	MyFriend,Energy	·	·	2011
	단행본	MyFriend,Energy (Teacher's Guide)	·	·	2011
	단행본	New approaches to new futures : collected papers from the 2010 ESD colloquium series	ESD & innovation of curriculum and teaching-learning proces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1
	단행본	New Approaches to New Futures: Collected papers from 2011 colloquium series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2
	단행본	NewApproachestoNewFutures:SelectedPapersfromthe2012ESDCollo quiumSeries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3
	연구보고서	OECD 국가 ESD 실행체계 및 국가전략 현황 연구	신동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연구보고서	PolicyProposalsforKoreanInitiativesinthePromotionofICTAppliedEducat ioninAsiaandthePacificRegion	·	KNCU	2002
	행사자료집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행사자료집 (핸드북)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본	Rebuilding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nal Report of The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 to Korea	Donald P. Cottrell et. al.	·	1953
	사례집	Regional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in achieving MDGs through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2009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회의보고서	RegionalconsultationMeetingontheProposalforaRegionalCentreofEduc ationforInternationalUnderstandinginAsiaandthePacific : Final report	KNCU	KNCU	1999
	보고자료	Report on education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4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교육장관회의 제출용	Ministry of Education	1978
	소책자	Report on Major Trends in Educational Development in 1971/72 and 1972/73	(세계교육회의 제출용)	Ministry of Education	1973
	소책자(타관)	Report on Major Trends in Educational Development in 1973/74 and 1974/75	·	Ministry of Education	1975
	단행본	Review of educational studies in Korea	Korea.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2
	단행본 (외부국제회의의 주요내용 발췌)	Selected documents for educational administrators and planner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1969
	회의보고서	Seminar on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researchers, Final report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66
	워크샵보고서	Sub-regional training workshop for the mobile training team in	Korean National	KNCU	2006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teacher education and training on world heritage education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SPNet, east asia.	Commission for UNESCO		
	회의보고서	Summary Report of The Fifth National Seminar 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67
	사업계획	Tasks of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main program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Republic of Korea)	APCEIU	2001
	워크샵보고서	The MTT Project in Teacher Education and Training on World Heritage Education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SPnet, East Asia : report of a sub-regional training workshop, 30 Oct.-	KNCU ▼	KNCU	2006
	단행본	The Role of Basic Education in Developmen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기조연설문	The Third Session of the Regional Follow-up Committee for the 1998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Keynote Speech			2005
	회의자료집	The Third Session of the Regional Follow-up Committee for the 1998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Program		UNESCOBankok;KNCU; 대학교육협의회	1998
	행사보고서	UNESCO ASPnet Exchange Programm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2008년 아태지역 유네스코협동학교 교류사업 (한국-말레이시아)	KNCU	KNCU	2008
	행사보고서	UNESCO Children's Performing Arts Festival of East Asia in Gwangju		KNCU	2008
	브로셔	UNESCOenglishsummerschoolguide			1989
	잡지(수록기사)	UNESCO 런던 창립회의보고	윤형남 역	교육과학연구소	1947
	참가보고서	UNESCO전문가회의출장보고서:기술및직업교육을위한개정권고초안심의정부전문가특별위원회			1974
	잡지(수록기사)	UNESCO 파리 제일차 총회 회의보고	윌리암·싸칼	교육과학연구소	1947
	잡지(수록기사)	UNESCO헌장	UNESCO	문교부	1954
	행사자료집	UNUGlobalSeminar2ndSeoulSession2004:ThinkingaboutScience,TechnologyandHumanSecurity			2004
	행사보고서	UNU global seminar Pohang session 2007 : Education for global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KNCU	2007
	행사보고서	UNU Global Seminar Seoul Session: Community Building in Northeast Asia			2003
	행사보고서	UNU-KNCU Global Seminar - Seoul Session : Community building in Northeast A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UNU Global Seminar - Seoul Sess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3
	행사보고서	UNU-KNCU Global Seminar 2008 : Asian Culture in Globalization	UNU-KNCU Global Seminar 2008	KNCU	2008
	행사보고서	UNU-KNCU Global Seminar 2009 Session : Model UNESCO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U-KNCU Global Seminar 2009 Session	KNCU	2009
	행사보고서	UNU-KNCU Global Seminar 2010 Session : Climate Change : Social and ethical dimensions	UNU-KNCU Global Seminar 2010 Session	KNCU	201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행사보고서	UNU-KNCU Global Seminar 2011 Session: Final Report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1
	행사자료집	UNU-KNCU Global Seminar 2011: Delegate Handbook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1
	행사보고서	UNU-KNCU Global Seminar Jeju Session 2005 : The Vision of a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UNU-KNCU global seminar Jeju session 2005	KNCU	2005
	행사보고서	UNU-KNCU global seminar Jeju session 2006 :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in a globalizing world	UNU(United Nations University)	KNCU	2006
	행사보고서	UNU-KNCUGlobalSeminar:JejuSession2006	·	·	2006
	워크숍자료집	갈등해결을위한학교평화교육프로그램-사례발표및자료집	·	·	2002
	워크숍자료집	갈등해결을위한학교평화교육프로그램교사워크숍자료집	·	·	2002
	단행본(타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둘 다 가능할 수는 없는가	·	도서출판 길	2012
	연구보고서	고교생들의 우방국가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에 관한 일연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	1967
	잡지(수록기사)	고아구제를 위한 국제운동	맛씨, J.G.	한국교육문화협회	1956
	단행본(교사지침서)	과학, 기술, 사회 통합 교육	이필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4
	교사자료집	관용 : 평화의 시작;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침서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워크샵보고서	교내연수현장장학의실제 : Unesco 교원 Workshop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1984
	연구보고서	교사가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 세대와의 동행	최돈형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본 (유가: 950원)	교실에서의세계문제 : 유엔의 과제	이구재 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5
	잡지(수록기사)	교원 연수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한 전국 장학사 연수회 지상 중계	편집자	문교부중앙교육행정연수원	1973
	연구보고서	교원양성기관 ESD 강화 방안 연구	김항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연구보고서	교원의 국제이해교육 증진에 관한 연구	박덕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포럼보고서	교육 ODA 현황과 정책과제 (I)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행사자료집	교육 공학 연수 교재	·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포럼보고서	교육ODA 현황과 정책과제(I) : 2007 국제교육협력포럼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세미나자료집	교육개혁을 위한 다학문적 접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위	1994
	단행본	교육계획 및 행정연수 과정 기본 지침 (1969) = Training programme of educational planning and administration : guidelin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9
	단행본	교육과정지침-UNKRA와 한미재단 후원 하의 1954년도 미국교육사절단의 보고서	미국교육사절단	대한교육연합회	1956
	포럼보고서	교육과학기술 ODA 현황과 정책과제(II) FORUM : 2008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포럼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 ODA 현황과 정책과제(III) : 2009 교육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연구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포럼자료집	교육과학기술 ODA 활성화와 향후전략 : 교육과학기술 ODA 정책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회의자료집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ESD 라운드테이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	2009
	연구보고서	국제 에너지 기후변화교육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참가보고서	국제교육 정부간회의, 대한민국 대표단 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잡지(수록기사)	국제교육정보-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의 헌장	윤형남 역	교육과학연구소	1947
	단행본	국제교육회의 보고서 33차	문교부	문교부	1971
	단행본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한명희	정민사	1996
	소책자	국제이해, 협력과 평화를 위한 교육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계된 교육에 관한 권고 (제18차 유네스코총회 채택)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연수자료집	국제이해교육교원연수 : 199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연수자료집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 1997.8.18~27 (파일링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연수자료집	국제이해교육교원연수-1998.8.17~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연수자료집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 1998.8.17~26(파일링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연수자료집	국제이해교육교원연수-2000.8.14~23	·	·	2000
	연구보고서	국제이해교육 발전계획연구	김종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5
	단행본	국제이해교육 방법론	이상주	사람생각	2001
	단행본	국제이해교육방법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2000
	연구보고서	국제이해교육 연구보고서 1994 년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단행본	국제이해교육 연구사례집	김종서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1
	단행본	국제이해교육과 협동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2
	단행본	국제이해교육의 길잡이	김종서	구미무역 출판부	1988
	연구보고서	국제이해교육의실태와국제비교연구 : 정책연구보고	김신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연구보고서	국제이해교육의실태와국제비교연구 : 정책연구보고	김신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단행본	국제이해교육지침서	유세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4
	연구보고서	국제이해교육현장 연구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7
	잡지(수록기사)	국제협동학교와 인권존중 지도	한기언	문교부	1962
	잡지(수록기사)	권두언-국제교육회의에 참가 하고자서	한상봉	문교부	1955
	단행본	기후변화교육 길잡이 : 현장 교육가를 위한 종합 안내서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세미나보고서	노인문제와 노인교육	고영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4
	회의보고서	도서벽지 초등교육의 향상을 위한 웍샵보고서	김난수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985
	잡지(수록기사)	문교 뉴우스 제34차 국제 교육회의 참석 귀국 보고〈설인수 전북교육감〉	편집자	문교부중앙교육행정연수원	1973
	잡지(수록기사)	문교부유관 기관 소식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편집자	문교부중앙교육행정연수원	1973
	워크샵보고서	문해.기초교육의 새로운 전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위	1992
	행사자료집	문화유산교육 교사워크숍 -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본 문화유산 교육 (파일링철)	·	·	2007
	단행본	미래를 향한 가정교육	김지자	양서원	1992
	잡지(수록기사)	민주우방의 한국교육원조	오재경	문교부	1953
	단행본(타관)	바다의 미래,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가	·	도서출판 길	2012
	·	박물관과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오름	1999
	교육자료집	박물관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오름	1999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연구보고서	방송통신중학교 교육과정 및 교재작성 원칙에 관한 연구	이용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1
	세미나자료	사회 속 박물관, 박물관 속 사회 (제10차 ESD 콜로퀴엄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11
	회의보고서	사회과 교육을 통한 국제이해 교육 : 유네스코협동학교 담당자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단행본	사회교육의조직과운영 : 유네스코 APPEAL 훈련자료를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민사	1995
	잡지(수록기사)	사회생활과와 학교계획	UNESCO	문교부	1954
	단행본(타관)	생물 다양성,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는가		도서출판 길	2012
	단행본	성공적인성인교육전략 : 유네스코 ATLP-CE 자료를 중심으로	유네스코아태지역사무처	교육과학사	1998
	연구보고서	성인교육발전에관한유네스코의건의와한국의성인교육 : 1978	한국사회교육협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
	단행본	세계 EFA 현황 보고서, 2009 요약본: 불평등의 극복, 왜 거버넌스가 중요한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단행본	세계 EFA 현황 보고서, 2010 (한국어판) 요약본: 소외계층 보듬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잡지(수록기사)	세계 여자 교육의 현상		한국교육문화협회	1955
	교사자료집	세계로열린교실 : 고등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교사자료집	세계로열린교실 : 중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교사자료집	세계로열린교실 : 초등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단행본	세계문화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도서출판심지	1998
	단행본	세계연구 : 1 : 아시아, 아프리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오름	1998
	단행본	세계연구 : 2 : 유럽, 아메리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오름	1998
	단행본	세계의영재교육 : 동향과 실제	김재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단행본	세계의취학전교육 : 동향과 실제	주정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단행본	세종의 꿈: 모두를 위한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잡지(수록기사)	아세아지역 교육계획을 위한 교육연구 전문가 회의보고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1964
	잡지(수록기사)	아시아의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쥬하스즈, W.	한국교육문화협회	1955
	사업계획	아태교육원의 과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
	회의보고서	아태지역고등교육학위인정협약국내이행강화방안연구및전문가회의 :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연구보고서	아태지역 국제교육협력 강화연구-유네스코를 중심으로 -	천세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
	단행본	아프리카의전망 : Africa prospect - 교육의 진전	Greenough, Richard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7
	단행본	여러나라 여러국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구미무역출판부	1988
	단행본	역사교본과 국제이해	Lauwerys, J.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4
	잡지(수록기사)	외국 원조기관의 변천과 문교분야에 있어서의 외원사업	박덕주	문교부	1959
	포럼자료집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10년 평가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사업보고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전국 종합보고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계명대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계명대학교	2010
	매뉴얼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운영가이드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평가세미나 발표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세미나자료집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평가세미나 발표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포럼자료집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포럼 Multicultural Educ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포럼자료집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포럼 Prospects and Retrospective of the 2009 CCAP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단행본?자료집?	우리나라의 국제이해교육활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8
	활동카드 및 그림	우리들의 평화만들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워크숍보고서	원격교육을통한직업교육 : 아태지역 워크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996
	잡지(수록기사)	유네스꼬 헌장	·	한국교육문화협회	1955
	잡지(수록기사)	유네스꼬관계서류전시회	·	한국교육문화협회	1953
	잡지(수록기사)	유네스꼬는 언제 생겼는가	·	한국교육문화협회	1955
	잡지(수록기사)	유네스꼬는 한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백낙준	한국교육문화협회	1955
	잡지(수록기사)	유네스꼬와 한국	·	한국교육문화협회	1955
	잡지(수록기사)	유네스코 교육 전문가 회의 보고서-동남 아세아 제국에서 교과서 및 교육 자료에서의 서양 취급	편수관실	문교부	1959
	잡지(수록기사)	유네스코 교육 전문가 회의 보고서-동남 아시아 제국에서 교과서 및 교육 자료에서의 서양 취급	편수관실	문교부	1959
	회의보고서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회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1
	브로셔/리플렛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홍보리플릿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잡지(수록기사)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가맹국 문교장관 회의에 다녀와서	홍웅선	문교부	1962
	회의자료집	유네스코 평생학습사회 콜로퀴움	·	·	2004
	잡지(수록기사)	유네스코 한국교육원조쿠우폰에 (이찰) 관하여	·	문교부	1954
	포럼자료집	유네스코 한일 교사 포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홍보책자	유네스코 협동학교 길잡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회의보고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발전을 위한 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홍보책자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홍보책자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세미나자료집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ASP) 40주년 기념 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3
	단행본	유네스코8회총회 한국대표단보고서	문교부	문교부	1955
	잡지(수록기사)	유네스코기구의 사명과 목적	김동은	문교부	1956
	단행본	유네스코와 교육 - 유네스코등 국제기구 교육사업과 한국의 참여전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오름	2006
	연구보고서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교육지원 ODA 사업 방안 연구	윤병순	한국연구재단	2010
	단행본	유네스코운크라파한교육계획사절단최종보고서-대한민국의 교육재건(문교월보 특집)	유네스코운크라파한교육계획사절단	문교부	1953
	잡지(수록기사)	유네스코의 활동-유네스코가 하는 일 운영방법	정재택	문교부	1959
	브로셔/리플렛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리플렛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내부문서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 의안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브로셔/리플렛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리플릿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회의자료집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행사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브로셔/리플렛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국문 홍보 브로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단행본(타관).비매	유엔바로알기 :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학습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오름	1998
	단행본(타관).비매	유엔바로알기 : 중학교 교사를 위한 학습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오름	1998
	단행본(타관).비매	유엔바로알기 :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학습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오름	1998
	연구보고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SD) 중간 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 연구	이선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단행본	인간화교육	오기형, 김현자 역	일조각	1975
	연구보고서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이명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워크샵보고서	인권교육을향한교사들의목소리 : 보고서	심성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지침서	인권교육의이론과실제 :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유엔인권센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워크샵보고서	일반계고등학생의진로지도 : 진로지도개선을 위한 웍샵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위; 한국카운슬러협회	1984
	단행본(타관)	전염병의 위협, 두려워만 할 일인가	·	도서출판 길	2012
	참가보고서	제 6차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 참가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3
	행사보고서	제10회 한-호 지구촌이해 영어교사연수 결과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행사자료집	제10회 한-호 지구촌이해 영어교사연수 행사 자료집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2
	회의자료집	제11차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회의자료집	제12차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회의자료집	제13차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잡지(수록기사)	제18차 국제교육회의보고	한상봉	문교부	1955
	회의자료집	제1차 유네스코 국제협동학교계획 전국연구대회 : 강의록	차재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2
	행사보고서	제1회유네스코지구촌영어교사연수 The First UNESCO AUSTRALIA-KORE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남호주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남호주교육청	2002
	행사보고서	제1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보고서	·	·	2003
	워크샵자료집	제1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집)	심성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잡지(수록기사)	제22차 국제 교육 회의-건의서 제48호 초등학교교과서의 마련 가려뽑기 및 쓰기에 관하여 제49호 과학 기술 요원의 충원과 양성에 관하여	이영훈, 민성기	문교부	1959
	회의보고서.타관	제2차 세계 직업기술 교육회의(Second International Congresson Technicaland Vocational Education):기본계획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행사보고서	제2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보고서	·	·	2004
	참가보고서	제37차 국제교육 회의 보고서	·	한국대표단	1979
	행사보고서	제3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보고서	·	·	2005
	참가보고서	제41차 국제교육회의 참가보고서	·	한국대표단	1989
	참가보고서	제42차 국제교육회의 참가보고서	·	·	1990
	참가보고서	제43차 국제교육회의 참가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2
	참가보고서	제44차 국제교육회의 보고서	국제교육회의	한국대표단	1994
	참가보고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 문교장관회의 보고서(한국대표단)	·	한국대표단	1978
	행사보고서	제4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행사자료집	제5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내부문서	제6차 ESD 한국위원회 정기회의 의안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내부문서	제7차 ESD한국위원회 정기회의 의안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잡지(수록기사)	제칠회 유네스꼬 총회 귀환보고강연	백낙준	한국교육문화협회	1953
	잡지(수록기사)	조 성옥 문교부차관 국제 교육회의 한국 대표로 참석	편집자	문교부중앙교육연구원	1975
	잡지(수록기사)	종합교육 입안에 관한 아시아지역「심포지움」참가기	백현기	문교부	1962
	사업보고서	주한외국인의 한국체험 자료집 2000년 〈일일한국문화체험〉 및 〈농촌문화체험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캠프) 보고서	센터		
	잡지(수록기사)	중등학교 수학교육에 관한 제19차 국제교육회의의 건의서	문교부	문교부	1957
	연구보고서	중학교 ESD 수업 모듈	모경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본	지리교육의 원리와 사례	이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단행본	지속가능발전교육 길잡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단행본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정책 및 실행 평가를 위한 도구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브로셔/리플렛	지속가능발전교육 영문 홍보브로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교육자료집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2007
	단행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최순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세미나자료집	지속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제6차 ESD 콜로퀴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연구보고서	지역사회단체 지도자를 위한 환경교육 지침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DP	1997
	회의자료집	창원-유네스코 국제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회의보고서	초등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	신세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6
	연구보고서	초등학교 ESD 수업 모듈	모경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본	카라치플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3
	연구보고서	통신중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용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1
	사업보고서	톺아보는 CCAP 15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단행본	특수교육의 연구현황과 동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6
	단행본	평생교육	랭그랑, 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회의자료집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평생교육과 가정교육		한국평생교육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회의보고서	평생교육발전세미나보고서 : 보고서	이규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
	단행본 (유가.타관)	평생교육의 기초와 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평생교육기구 공동편역	법문사	1983
	세미나자료	평생학습도시와 ESD (제8차 ESD 콜로퀴엄 자료집)			2011
	포럼자료집	평생학습사회 정책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평생학습사회 정책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연구보고서	학교 교육과정 ESD 강화 방안 연구	김호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본	학교시설 지침서	김영식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단행본(타관).유가	학교에서의'세계교육'어떻게할것인가:미국에서의세계교육성공사례	김현덕 역	오름	1990
	단행본	학교에서의 국제이해(=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t School)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5
	단행본(비매)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오름	1996
	단행본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Meyer-bisch, Patri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단행본	학교에서의'세계교육'어떻게할것인가 : 미국에서의 세계교육 성공사례	케네스 타이	오름	1997
	연구보고서	한국 DESD 후반기 추진전략 및 로드맵 연구	이일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연구보고서	한국 장기 교육 계획 보고서 (초) 1964.4.30		유네스코 아세아지역 교육계획 자문단	1964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교육	포럼자료집	한국, UNESCO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2005
	행사자료집	한국교사 일본초청 프로그램 참가자 오리엔테이션(2009년) Invitation Programme for Teachers from Kor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행사자료집	한국교사 일본초청 프로그램 참가자 오리엔테이션(2009년) Invitation Programme for Teachers from Korea ANNEX Ⅱ 강의 및 참고 자료 모음 (2008~200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회의보고서	한국교육혁신 평가회의 보고서	윤형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1984
	세미나보고서	한국대학교육발전의 좌표	김종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교육자료집	한국어	·	·	1999
	교육자료집	한국어 (개정판)	·	·	2001
	잡지(수록기사)	한국의교육,과학,문화-일구오이년파리유네스꼬총회개회연설	백낙준	사상계	1953
	강연자료집	한국의 문해운동의 과제와 전망	황종건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한유니세프대표부	1990
	행사자료집	한국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 - 세계시민포럼	·	·	2007
	연구보고서	한국형 ESD 평가지표(Indicator) 연구	박순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포럼자료집	한일 교사 포럼 :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 10주년 기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행사보고서	한일유네스코 학생 교환계획	한국유네스코학생방일국	한국유네스코학생방일국	·
	단행본	현대인의 삶과 참교육	강일선 역	나남	1989
자연과학	연구보고서	(AFollow-uptothe1999WorldConferenceonScience)AReviewofScienceandTechnologyinKorea:TowardsaNewContractbetweenScienceandSociety	STEPI	KNCU	1999
	단행본	(A) Sourcebook of chemical experiment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UNESCO/IUPAC	1976
	회의보고서	(Report) National Seminar on Science Policy			1974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방향: 세계과학회의('99, 부다페스트) 이후 한국과학기술의 성과와 과제	임현묵	한국연구재단	2010
	참가보고서	(유네스코 주최) 아시아 과학기술정책 쎄미나, 참가 보고서			1974
	회의보고서	1967년도 화학교육 시범사업 쎄미나 보고서			1967
	회의보고서	1968년도 화학교육 시범사업을 위한 쎄미나 보고서			1968
	회의자료집	1969년도 과학교육 개선 촉진 세미나 발표자료			1969
	회의보고서	1969년도 과학교육 개선 촉진 세미나 보고서			1969
	회의보고서	1969년도 화학교육 과정 연구 협의회 보고서			1969
	회의보고서	1970년도 과학교육 개선 촉진 세미나 보고서			1970
	연구보고서	1994년도교육부학술연구조성비지원유네스코연구사업진행보고서 과제명:농산폐기물분해미생물균주의탐색및이용	하영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연구보고서	1995년도학술연구조성비지원신청서연구 연구과제명:농산폐기물분해미생물균주의탐색및이용	하영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심포지움자료집	2000(이천)년대를 위한 생물다양성보전과 국가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4
	회의자료집	2005생명윤리춘계학술대회:모두를위한생명과학	한림대 법학연구소;		2005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자연과학			한국생명윤리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워크숍자료집	2006년도 유네스코 과학 프로그램 국내위원회 워크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워크숍자료집	2007년도 유네스코 과학 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워크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2007
	사업보고서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결과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컨퍼런스자료집	2010 전국환경자원봉사 컨퍼런스	2010 전국환경자원봉사 컨퍼런스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2010
	내부문서	2012 제1차 자연과학 분과위원회 의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내부문서	2012년도 제2차 자연과학분과위원회 의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내부문서	2013년도 제1차 자연과학분과위원회 의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단행본	A Decade of Dynamic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Republic of Korea, 2000-2009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연구보고서	A study on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east african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KNCU	UNESCO	1987
	회의자료집	AsianSymposiumonMedicinalPlantsandSpices : Proceedings	Han, Byung-hoon	KNCU	1984
	회의자료집	DMZ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원칙과 과제 : MAB 정책토론회	MAB 정책토론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컨퍼런스자료집	DMZ 일원 생태·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 DMZ 일원의 생태·평화·지역발전	DMZ 일원 생태·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2010
	연구보고서	Energy flow and conservation in urban systems	Kim, Kwi-Gon	UNESCO	1986
	연구보고서	EngineeringeducationandeducationindustrycooperationinKorea : new curriculum and forms of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industry cooperation	Lee,Chai-sung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6
	연구보고서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ower Tumen River area : Activity Report = 두만강하구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보고서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4
	회의자료집	Fermentation, process control and downstream engineering	UNESCO Regional Workshop on Bio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8
	포럼보고서	InternationalForumonReformandInnovationinScienceandEngineeringEducationintheAsia-PacificRegion(=아태지역과학·공학교육개혁및혁신을위한국제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ESCO; 한국과학재단		2005
	세미나자료집	International Seminar on "Sustainable Development - Its Ideology and Practice" : "지속가능한 발전 - 그 이념과 실천방안"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회의보고서	KoreanConsensusConferenceonCloning : Report 1999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9
	회의보고서	MAB의 성과와 미래 : 유네스코 MAB 40주년 기념	MAB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심포지엄 자료집	MAB의 성과와 미래 : 유네스코 MAB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MAB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회의보고서	National seminar on education-industry cooperation in university engineering education, Report			1975
	회의보고서	Natural disasters and science communication = 자연재해와 과학커뮤니케이션 회의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6
	회의자료집	Proceeding of UNESCO-IHP Session: Combining Rain Culture with Rainwater Harvesting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and East Asi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IWA-RWHM S.G; UNESCO-IHP		2009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자연과학	회의보고서	Regionalexpertmeetingonprimaryschoolscienceeducation : Final report	UNICEF	KNCU, UNICEF	1980
	행사보고서	RegionalTrainingCourseonEnvironmentalManagement-BiologicalWasteTreatmentandByproductUtilization : Final report	KNCU	KNCU	1978
	참가보고서	Report of the 1982 meeting the Unesco regional coordinating board for the network of microbiology in Southeast Asia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1982
	회의보고서	Report of the National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environmental studie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2
	심포지움보고서	Report of Unesco regional symposium on the comparative study of metropolis ecosystems in Asia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1990
	연구보고서	RESERCHREPORTONTheInternationalCollaborativeProject "ScreeningandUtilizationofAgriculturalWastesDegradingMicroorganisms" -UNESCORegionalNetworkforMicrobiologyinSoutheastAsia-	하영철	UNESCO ROSTSEA; KNCU	1995
	포럼자료집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1st UNESCO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회의보고서	SubregionalWorkshopontheApplicationofRadio-immunoassayinNaturalProductsChemistry : Final report	KNCU	KNCU 외	1982
	회의보고서	The9thmeetingofUNESCO-MABEastasianbiosphereserveservenetwork :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insular biosphere reserves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5
	회의보고서	The working part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research centre for the chemistry of natural products		KNCU:SNU	1978
	워크샵자료집	UNESCO Asia-Pacific Workshop on Strategic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ESCO Asia-Pacific Workshop on Strategic Innovation for Development	KNCU	2011
	워크샵보고서	UNESCORegionalWorkshopandPublicAwarenessofScienceandTechnology :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9
	회의보고서	UNESCO Regional Workshop on forcasting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Manpower Requirement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KAIST	1983
	회의보고서	UNESCO Regional Workshop on Protoplast Fusion in Microorganisms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
	워크샵보고서	UNESCO Regional Workshop on Public Awar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0
	워크샵자료집	UNESCO Science Education Workshop on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Follow-up to the 1st UNESCO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UNESCO Science Education Workshop on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회의보고서	UNESCOWorkshoponCoalGeologyinSoutheastAsia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
	세미나자료집	UNESCO-Internetwork Cooperative Regional Seminar and	Korean National	KNCU	1998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자연과학		Workshop on Bioassay Guided Isolation of Bioactive Substances from Natural Products and Microbial Products : Proceedings	Commission for UNESCO		
	단행본	Urban ecology applied to the city of Seoul	Kim, Kwi-gon	Korea National MAB Committee	1996
	회의보고서	Workshop on extraction seperation and purification techniques in natural products chemistr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회의보고서	Workshop on extra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iques in natural products chemistry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0
	단행본	가치를꿈꾸는과학 : 교실에서 함께하는 과학윤리수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당대	2001
	회의보고서	공업고등학교교육과정개발을의한웍샵 : 공고 기계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단행본	과학 우리시대의 교양	이필렬	세종서적	1992
	단행본	과학: 우리시대의 교양	이필렬	세종서적	2004
	소책자	과학과과학적지식의이용에관한선언 : 과학의제-행동강령	세계과학회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회의보고서	과학교육개선세미나 :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1
	단행본	과학교육지도자료	이창갑 외 옮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1
	단행본	과학연구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당대	2001
	단행본	과학의 진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6
	세미나보고서	과학정책세미나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4
	단행본	교양환경론 : 총체적 접근을 위한 하나의 시도	이필렬	따님	1994
	포럼자료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국제포럼 - 행동을 위한 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British Council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British Council	2010
	단행본	나무를 껴안아 숲을 지킨 사람들	김응서	웅진주니어	2011
	단행본	노아씨의정원 : 위협받고 있는 생물다양성	Deville, Quentin	따님	1996
	워크샵보고서	대학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이필렬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3
	연구보고서	대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연구	박승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회의자료집	동아시아의 환경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연구보고서	두만강하구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제안서 : UNDP 사업 최종보고서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연구보고서	두만강하구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제안서 : UNDP 사업 최종보고서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연구보고서	민통선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단행본	바다에 관한 백문백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
	연구보고서	반월지역 공업단지화가 그곳 자연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계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9
	연구보고서	백두산 자연자료 목록 작성 및 분석 : 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 연구결과보고서	KNCU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심포지엄 자료집	보호구역과 지역사회 : 유네스코 MAB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MAB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
	단행본	사례로 본 생물다양성	CSPNB	초록개구리	201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자연과학	회의보고서	산학협동을 위한 대학공업교육 연구 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5
	회의보고서	생명복제기술합의회의 : 종합보고서 1999	Korean Consensus Conference on Clonin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회의발표문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 전문가 패널발표문 모음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단행본	생명연구의 윤리성	Ribes, Bruno	구미무역	1981
	토론자료집	생명윤리 보편규범 선언을 위한 유네스코순회 토론회	생명윤리 보편규범 선언을 위한 유네스코순회 토론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교육자료집	생물 다양성 길라잡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
	단행본	생물권보전지역 : 인간과 자연을 위한 특별한 장소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연구보고서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국가계획안 : 한국생물자원의 보존, 연구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한 보전전략		생물다양성 보전계획연구 프로젝트	1994
	심포지움보고서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 국제심포지엄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 국제 심포지엄	국립공원관리공단	2010
	전시도록	생물다양성은 생명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연구보고서	생물보전지역설정에따른국내연구 : 종합계획과 운영을 위한 지침	오계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2
	포럼자료집	생태계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생태관광 그리고 갯벌의 보전과 이용	제3회 자연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전시도록	생활속의 생태학			1986
	연구보고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1차년도 보고서	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4
	연구보고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2차년도 보고서	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1995
	연구보고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3차년도 보고서	조도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연구보고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4차년도 보고서	조도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단행본	설악산 생태여행	현진오	도서출판 따님	1999
	단행본	세계과학정보유통체제 (UNISIS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회의보고서	세계과학정보유통체제세미나보고서	세계과학정보유통체제 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
	단행본	세계과학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과학기술활동의 점검	장회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포럼보고서	세계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자연포럼	세계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자연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회의자료집	세계생태관광총회 : 선언과 발표 자료집	World Ecotourism Summi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발표자료	세계지질공원 워크숍: 2009.3.20~21 : 세계지질공원 참여 및 활용	KNCU,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회의보고서	실생활경험과관련된과학교육 : 과학교육연구협의회 보고서	정연태	서울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0
	회의자료집	아시아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회의		에너지대안센터	2001
	워크샵보고서	에너지 및 환경교육 -연구워샵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교육자료집	우리모두를위하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환경교육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단행본	원자력의 정체	웬트, 제랄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55
	회의자료집	유네스코 과학 프로그램 국가위원회 협력 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자연과학	회의자료집	유네스코과학프로그램국내협력포럼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연구보고서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 필요성과 예상 주요쟁점 :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 제정 대비 국내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연구보고서	유네스코 장백산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관광개발 잠재력과 관광영향	황영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회의보고서	유전자조작식품의안전과생명윤리에관한합의회의 : 종합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포럼자료집	의료 및 생명과학 연구와 동의 : 2007 제1회 유네스코 과학기술 포럼		KNCU,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7
	단행본	인간과 생물권 계획 (MAB)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4
	세미나보고서	인간과생물권계획국내워샵보고서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모색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내 워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회의보고서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세미나 보고서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7
	회의보고서	자연과학과사회과학세미나 : 협동의 모색	박성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포럼보고서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제2회 자연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회의자료집	재생가능 에너지와 평화 Renewable Energy and Pea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에너지대안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에너지대안센터	2004
	포럼자료집	제1차 기후변화 윤리 포럼 기후변화와 윤리 - 기후변화가 왜 윤리적 문제인가?	기상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상청	2009
	회의보고서	제1차 쿠로시오 국제 합동 조사 조정관 회의 보고			1965
	참가보고서	제4차 국제해양자료 교환을 위한 IOC 실무단 회의 보고서			1968
	참가보고서	제4차 동남아지역 해양과학 전문가 회의 보고			1968
	참가보고서	제5차 정부간 해양과학 위원회, 한국대표보고서 1967.10.19~10.28			1967
	회의보고서	제5차 쿠로시오 국제 합동 조사 조정관 회의 보고서			1968
	심포지움보고서	지구환경문제와 새로운 국제질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2
	심포지움보고서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심포지엄	환경운동연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사업보고서	지역사회단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회의보고서	초등 과학교육을 위한 아세아지역 과학교육 전문가 회의 보고서			1980
	회의보고서	쿠로시오 조사를 위한 해양과학 심포지엄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해양과학위원회	1965
	회의자료집	평화와발전을위한세계과학의날(=WorldScienceDayforPeace&Development),기념학술대회		한국과학문화재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행사보고서	하나되는인간과환경 : 유네스코 환경학교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1
	단행본	한시민의쓰레기연구 : 도시 쓰레기, 지구적 문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따님	1996
	사례집	한국 지역사회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사례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포럼자료집	한국의 생태관광 발전 전략 모색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제주생태문화관광연구포럼, 생태관광포럼,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사례집	해외지역사회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사례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회의보고서	현대사회와과학기술 : 연구발표회	석현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단행본	현대사회와 과학연구	황정남	나남	1989
	회의보고서	환경교육연구협의회 : 보고서	환경교육연구협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9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단행본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	김귀곤	배영사	1980
	회의자료집	환경문제 연구 협의회 발표자료			1971
	회의보고서	환경문제 연구협의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청년	단행자료	유네스코 청년교육에 있어서의 관계장관 및 체육담당관 회의		외무부국제기구조약국국제기구과	1975
	영상	재외교포학생하계학교(경기도이천,유네스코청년원)		국립영화제작소	1987
	단행자료	1979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국무총리기획조정실	1979
	단행자료	1980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국무총리기획조정실	1980
	단행자료	1981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국무총리기획조정실	1981
	단행자료	1982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국무총리기획조정실	1982
	단행자료	1983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청소년대책위원회	1983
	단행자료	1984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청소년대책위원회	1984
	단행자료	1985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청소년대책위원회	1985
	단행자료	1986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청소년대책위원회	1986
	단행자료	1987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청소년대책위원회	1987
	단행자료	1988년 유네스코청년원 연수		청소년대책위원회	1988
	단행자료	2001년 국제청년야영		문화광광부	2001
	단행자료	2001년 주한 외국 청소년과의 교류-아리랑캠프		문화관광부	2001
	단행자료	2004년 국제청년야영		문화광광부	2004
	단행자료	2005년 국제청년야영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단행자료	2006년 국제청년야영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단행자료	2007년 UN 청소년정책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단행자료	2007년 국제청년캠프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단행자료	2008년 UN 청소년정책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단행자료	2008년 국제청년캠프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단행자료	2009 국제자원활동 에세이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단행자료	2009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화보집(영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단행자료	2009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단행자료	2009 제7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단행자료	2009년 UN 청소년정책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
	단행자료	2009년 국제청년캠프		보건복지가족부	2009
	단행자료	2010 유네스코 국제자원활동 Essa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자료	2010 유네스코협동학교 GuideBook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자료	2010 유네스코협동학교 Rainbow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모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자료	2010년 UN 청소년정책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10
	단행자료	2011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계획서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자료	2011 유네스코 국제자원활동 Essa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자료	2011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1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청년	단행자료	2012 우리 손으로 더듬고 보듬은 문화유산 그 두번째 이야기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2기 활동사례집		문화재청	2012
	단행자료	2012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2
	단행자료	2012년 유네스코 청소년사업 소개		여성가족부	2012
	단행자료	2013 UNESCO 국제워크캠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단행자료	2013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3
	단행자료	2013년 유네스코 청소년사업 소개		여성가족부	2013
	단행자료	2014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해외자원활동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2014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4
	단행자료	2014년 유네스코 청소년사업 소개		여성가족부	2014
	단행자료	2015 Voice of Youth on the History of Shared Understandin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2015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2015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2015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5
	단행자료	2015년 유네스코 청소년사업 소개		여성가족부	2015
	단행자료	2016 Voice of Youth on the History of Shared Understandin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단행자료	2016 유네스코 볼런티어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단행자료	2016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6
	단행자료	2017유네스코학생회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단행자료	2017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7
	단행자료	2018년 UN 청소년정책현황		여성가족부	2018
	단행자료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2011 Report = 2011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자료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2012 Report = 2012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0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1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2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3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4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5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6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7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18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0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0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1		운정재단	198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청년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2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3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5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6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7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8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29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3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4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5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6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7		운정재단	1980
	사진	김종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연설8		운정재단	1980
	문서(기록물건)	모두 다르게, 모두 소중하게-청소년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자료	모의유네스코총회 제5차 본회의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사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유네스코 제7회 학생지도자교육과정 참석1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유네스코 제7회 학생지도자교육과정 참석2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유네스코 제7회 학생지도자교육과정 참석3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유네스코 제7회 학생지도자교육과정 참석4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유네스코 제7회 학생지도자교육과정 참석5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유네스코 제7회 학생지도자교육과정 참석6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제7회학생지도자교육과정참석방명록서명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대표접견담화1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대표접견담화2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접견기념촬영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초청다과참석1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초청다과참석2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초청다과참석3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초청다과참석4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초청다과참석5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초청다과참석6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봉사단초청다과참석7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73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회대표및지도교수접견다과참석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회원일행접견다과참석1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회원일행접견다과참석2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영부인육영수여사유네스코학생회원일행접견담화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사진	박정희대통령유네스코학생회대표및지도교수접견다과참석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8
	단행자료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아동용)		보건복지가족부	2009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청년	단행자료	유네스코 국제 DMZ 필름 캠프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자료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자료	유네스코 국제자원활동 Essay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자료	유네스코 청년교육에 관한 관계관회의 자료		외무부국제기구조약국국제기구과	1975
	단행자료	유네스코 청년수련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6
	단행자료	유네스코청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4
	사진	육영수 여사 유네스코 봉사단 접견		운정재단	1973
	단행자료	자료로 본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1965-199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사진	전두환대통령유네스코청년회관관계자와악수1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85
	사진	전두환대통령유네스코청년회관관계자와악수2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85
	영상	젊음의여름봉사(서울농대생농가실습교육,고려대.이대.유네스코농촌봉사단)		국립영화제작소	1972
	단행자료	제16화 세로운 청년의 길을 찾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18화 세계의 젊은이 서로 어깨를 겯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23화 행진, 조국, 청년의 삼중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25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38화 나눔과 섬김으로 전한 희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3화 한국 청년 봉사 활동의 시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40화 미지의 꿈을 키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47화 미래 주역들의 향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58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59화 저개발국에 뿌린 희망의 씨앗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제63화 세계를 향해 꿈의 나래를 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단행자료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4기 활동사례집 (2014 우리손으로 더듬고 보듬은 문화유산)		문화재청	2014
	단행자료	청소년 학생활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6
	단행자료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4
	단행자료	평화로 가는 청년운동의 새 길을 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문서(기록물건)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인문사회과학	단행자료	Koera Journal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1~
	단행자료	Revue de Core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9-1997
	단행자료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The History of Kor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Traditional Performing Art of Kor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인류의 공동가치로 세계와 호흡하고 시대를 이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프로그램북과 발표논문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단행자료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프로그램북과 발표논문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단행자료	다산정약용해배200주년기념국제심포지엄자료집(1일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인문사회과학	단행자료	다산정약용해배200주년기념국제심포지엄자료집(2일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단행자료	2017 평화누리 볼런티어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단행자료	제4회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단행자료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 비전전략수립용역	김창수	인천광역시	2014
	단행자료	The Humanities and Healing(제2회 세계 인문학포럼 논문선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문서(기록물건)	부산선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단행자료	Korea Journal 창간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단행자료	UNU-KNCU Global Seminar 2009 Sessi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 Rep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자료	세계인권선언 교본	Ford, Boris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4
	단행자료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아동용)		보건복지가족부	2009
	문서(기록물건)	만국인권선언일기념에 관한 유네스코 통첩에 관한 건		국무총리비서실	1951
	문서(기록물건)	인권에 관한 유네스코 전략		국가인권위원회	2003
	문서(기록물건)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협약 및 권고위원회에서의 한국인권문제 토의		외무부	1980
	문서(기록물건)	유네스코 후원 세계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2003
	문서(기록물건)	유네스코후원세계인권포럼위원회참석검토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서(기록물건)	2011년도 제1차 자연,인문사회과학 분과위원회 의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문서(기록물건)	2011년도 제2차 자연,인문사회과학 분과위원회 의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문서(기록물건)	2012년도 제3차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분과위원회 의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단행자료	유네스코기후변화윤리원칙선언토론회결과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단행자료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 / 권고 안내문 포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단행자료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단행자료	생명윤리 보편규범 선언을 위한 유네스코순회 토론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단행자료	제1차 기후변화 윤리 포럼 기후변화와 윤리 - 기후변화가 왜 윤리적 문제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단행자료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보고서 (한/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단행자료	2009 제2차 기후변화윤리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문서(기록물건)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ICPES(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3차. Paris.		외무부	1982
	문서(기록물건)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ICPES(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2차. Paris.		외무부	1980
	문서(기록물건)	제4차유네스코 정부간 체육위원회 참가보고서 송부		문화체육관광부	1984
	문서(기록물건)	유네스코 체육교육 및 스포츠장관 원탁회의 결과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03
	문서(기록물건)	제4차 유네스코 생명윤리정부간이사회 및 이사회/생명윤리위원회 합동회의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서(기록물건)	유네스코 생명윤리 보편규범에 관한 선언 문안 1차 개요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서(기록물건)	유네스코 생명윤리 보편규범에 관한 선언문(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서(기록물건)	유네스코 생명윤리 보편규범에 관한 선언문(안)에 대한 미국측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서(기록물건)	체육및스포츠분야유네스코인력은행및국제직업안정제도안내및협조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1984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인문사회과학	단행자료	제3회 유네스코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단행자료	NESCO World Social Science Report 연구분석: 유네스코 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단행자료	사회과학 활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6
	단행자료	사회과학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4
	단행자료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단행자료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문서(기록물건)	폭력에 관한 세비야 선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단행자료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문서(기록물건)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단행자료	국제 인권 조약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단행자료	2018유네스코 전략 연구:변화의 시대,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 비전		외교부	2018
	단행자료	유네스코우수지역센터개소식및아,태지역직업교육훈련국제회의(2000.10.18-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문서(기록물건)	유네스코 정부간 정보학 이사회(IIP)		외무부	1985
커뮤니케이션	단행본	(교과서에 나오는)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 대한민국	이형준	시공사.	2011
		(유네스코 아·태 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 제2, 3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청주시,유네스코,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청주고인쇄박물관,세계직지문화협회,유네스코아·태지역기록유산보호훈련워크숍,유네스코아·태지역기록유산보호훈련워크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단행본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신광철	일진사	2012
	단행본	(유네스코지정)한국의세계기록유산	김문기	글누림.	2015
	단행본	(유네스코가 선정한 인류의 보물)우리 나라 세계 기록 유산	장용준, 이다운	지경사	2012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 조선왕조의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문화재청, 서울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	2007
	사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영남지역 유교 목판 :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사진자료		한국국학진흥원.	2012
	단행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목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결과 보고서	한국국학진흥원, 남권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2010
	문서	[승정원일기] 세계기록유산 등록 추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승정원일기]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서 작성 협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승정원일기]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서 작성 협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 권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영상물	〈KTV 중계석〉 조선왕조실록, 그 숨은 이야기 -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기특한 토크 콘서트			2017. 5. 16.KTV
	영상물	〈대전기록관 기획전시〉 기록, 세상을 바꾸는 힘!			2017. 12. 28.
	문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 협조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8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문서	〈제5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후원 명칭 사용 협조 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단행본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 되다 :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편], 새날.	2013
	단행본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 되다-5.18 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광주광역시	2013
	문서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 되다-5.18 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광주광역시	2013
	문서	1981년 유네스코 쿠폰 계약물품중 미납품에 대한 조치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1983
	문서	1981년 유네스코쿠폰 계약 물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지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1983
	문서	1981년 유네스코쿠폰 계약물품 미납자(김00)에 대한 향후조치 지시요청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1983
	문서	1981년 유네스코쿠폰 계약물품중 미납품에 대한 향후조치 지시요청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1983
	문서	2015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의 세계기록유산을 향한 기록관리		경기도 이천시	2015
	단행본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1
	논문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부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장경준	조선통신사 연구, vol. 26,	2018
	문서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2018
	단행본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2018
	문서	UNESCO 커뮤니케이션 문제 연구위원회 보고서 검토		외무부	1980
	문서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강연회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2007
	문서	구매입찰공고〈유네스코 쿠폰 입찰〉(한국해양대학교공고 제1993-36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3
	영상물	국가기록원, 세계기록유산 유치전 본격 돌입			2009. 7. 23.노컷뉴스
	신문기사	국가기록원-유네스코 "기록유산 보존 협력"		시정신문	2009. 7. 22.
		국제기구(OECD,UNESCO등)와의공동연구(2003):정보통신기술인력의능력개발과인력교류활성화	이정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국제정보질서문화론	유네스코編;김영석譯	나남신서	1990
	문서	기록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장은진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6
	문서	기록유산 보호 워크샵:제2차 유네스코 아, 태 지역 200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4
	논문	기록유산 자료(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사진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박경환	국학연구, vol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사진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01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사진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0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커	사진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0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사진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04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사진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05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사진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07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사진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10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단행본	김황식 총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전달식(전남광주)11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 정책광고과	2011
	단행본	난중일기 - 전장의 기록에서 세계의 기록으로		정부간행물	2013. 7. 1.
		남한산성 :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나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4
	문서	뉴미디어와 초정보화 사회: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 기초 자료집	강현두, 원용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오름	1994
	단행본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보건복지가족부 대변인 홍보기획담당관	2009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가치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정부간행물	2005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 제1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포럼 : 디지털아카이빙 학술심포지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보트러스트센터[공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팀.	2004
	문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제2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단행본	모니터 활동 보고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요구되는 해인사대장경판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무형유산 정보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문서	보고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계기 홍보 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문서	보고서: 승정원 일기 세계기록유산 등록 대비 홍보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보고서: 제5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세계기록유산 관련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문화제 현판제작 설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내부검토 회의 결과 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2005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부호 선정 내부검토회의 실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2005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옥외홍보물 제작, 설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옥외홍보물 추가 제작, 설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홍보 팜플렛 제작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 홍보자료 배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계기 홍보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관련 자문회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록에 따른 홍보 협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신규 등록 신청대상 공모 안내문 배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2005
	문서	세계기록유산 신규등록 관련 협조 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8
	문서	세계기록유산 신규등록 추진 검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8
	문서	세계기록유산 신청 후보유산 선정 자문단 회의 참석요청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문서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및 사진첩 제작: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자문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회 알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2005
	문서	세계기록유산 자문단 구성, 운영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2005
	문서	세계기록유산 자문단 제1차회의 개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2005
	문서	세계기록유산 자문단 제1차회의 결과 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2005
	문서	세계기록유산 후보 선정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후보 추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등 인터넷 오탈자 정정 협조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8
	문서	세계기록유산등록 경축행사 옥외 홍보물 제작 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문서	세계기록유산등록관련 자문회의 개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세계기록유산등록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세계는 진정 새로운 정보질서를 원하는가 :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전망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1
	영상물	승정원 일기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서 작성 협조에 대한 회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승정원의 일기는 왜 세계기록 유산이 되었나		한국방송미디어,KBS미디어, 역사스페셜, 2002.03.23 [비디오 녹화자료].	2006
	문서	여론마당: 세계기록유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여론마당: 세계기록유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여론마당: 세계기록유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여론마당: 세계기록유산 목록 재차 부탁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논문	역사기록관 "조선왕조실록실" 개관 안내			2010. 10. 8.
	문서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유네스코 쿠폰용)		문화공보부	1970
	문서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유네스코 쿠폰용)		문화공보부	1970
	문서	외국정기간행물(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수입업 허가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 출판진흥과	1970
	문서	유네스코 IPDC 7차 이사회 자료송부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IPDC 관련 방글라데시 노트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1
	문서	유네스코 IPDC 이사국 입후보 교섭자료 송부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IPDC 이사회 초청장 송부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IPDC 정부간 위원회 2차 회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1
	영상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세계최초' 한국 유치		KTV	2017. 11. 14.
	문서	유네스코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 정부간 이사회 이사국 피선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계획위원회 제6차 회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단행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기원전 1700년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	유네스코,김윤경	예문사.	2015
	논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과 현황	한태문	항도부산,vol36,	2018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념우표발행 자료 송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1996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문화재교류과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홍보 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후보 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후보유산 최종선정 알림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제작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영상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집 . 4부 , 승정원일기, 잠들어 있는 조선의 역사를 깨우다 [비디오녹화자료]		유희원,김세연,김나경,최원정,유근,김현정,김문식,최광희,장민혁,한국방송공사,역사저널그날;[36],2014년7월26일KBS1TV에서방송	2014
	문서	유네스코 아시아, 대양주 지역 공보 정책에 관한 회의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제기구1과	1978
	문서	유네스코 아시아, 대양주 통신정책회의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제기구1과	1978
	문서	유네스코 언론통계에 관한 설문조사 회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본부 문화미디어진흥단 미디어정책팀	2004
	논문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국제정치 : 한중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7
	문서	유네스코 정보학 계획 위원회 위원국 피선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정보학 위원회 대표 선정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정부간 정보하 위원회(IIP)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정부간 정보학 이사회(IIP)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1985
	문서	유네스코 주최 아세아, 대양주 통신 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 개최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제기구1과	1978
	보고서	유네스코 지역 센터 Network 구축을 위한 해외유관기관 기초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문서	유네스코 출판물 교환 국제협정에 관한 건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조약과	1958
	문서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 개발 회의		외무부	1980
	문서	유네스코 쿠뽕제도 가입의견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61
	문서	유네스코 쿠뽕제도 가입의견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61
	문서	유네스코 쿠폰 관계업무 처리 태만		감사원 제2국 제2과	1986
	문서	유네스코 쿠폰 구매시 수입통관 제비 정산		문교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80
	문서	유네스코 쿠폰 도입 기자재 인수 촉구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1983
	문서	유네스코 쿠폰 및 외환수표에 의한 외국정기간행물 직송 불법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 출판진흥과	1965
	문서	유네스코 쿠폰 배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1991
	문서	유네스코 쿠폰 배정에 관한 협조		문화공보부	1970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문서	유네스코 쿠폰 배정을 위한 긴급 오파 입찰공고(경상대학교공고 제68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4
	문서	유네스코 쿠폰 배정을 위한 오파 입찰공고(경상대학교공고 제20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5
	문서	유네스코 쿠폰 부당배정 신청		감사원 제2국 제2과	1979
	문서	유네스코 쿠폰 부당신청		감사원 제2국 제2과	1986
	문서	유네스코 쿠폰 수입실적 보고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과	1981
	문서	유네스코 쿠폰 수입실적 보고(82년1월-10월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과	1981
	문서	유네스코 쿠폰 수입실적 보고(83년1월)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과	1981
	문서	유네스코 쿠폰 수입에 관한 유권질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981
	문서	유네스코 쿠폰 수입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981
	문서	유네스코 쿠폰 오파 입찰공고(한국체육대학공고 제16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5
	문서	유네스코 쿠폰 오파 입찰공고(한국체육대학공고 제3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6
	문서	유네스코 쿠폰 오파 입찰공고(한국체육대학공고 제7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6
	문서	유네스코 쿠폰 오파 재입찰공고(한국체육대학공고 제7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1
	문서	유네스코 쿠폰 오퍼 입찰공고(한국체육대학공고 제5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0
	문서	유네스코 쿠폰 오퍼 입찰공고(한국체육대학공고 제6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1
	문서	유네스코 쿠폰 오퍼 재입찰 공고(한국체육대학공고 제6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0
	문서	유네스코 쿠폰 운용실태 감사결과 통보서		감사원 제2국 제2과	1986
	문서	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물품 구매 입찰공고(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공고 제90-11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0
	문서	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물품의 통관심사(회신)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1978
	문서	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		문화공보부	1970
	문서	유네스코 쿠폰제도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태만		감사원 제2국 제3과	1986
	문서	유네스코 쿠퐁을 통한 시험기기 구입에 대한 질의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	1963
	문서	유네스코 통신개발에 관한 정부간 회의		외무부	1980
	문서	유네스코 통신정책 회의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제기구1과	1978
	문서	유네스코 통신정책 회의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제기구1과	1978
	문서	유네스코 통신정책 회의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제기구1과	1978
	문서	유네스코, 세계저작권 협약 관련 문서 송부		외무부 조약국 조약과	1984
	문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실태 점검결과 보고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정보화지원과	2004
	문서	입찰공고(유네스코 쿠폰 입찰)(부산수산대학공고 제32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5
	문서	저작권에 관한 UNESCO/WIPO 합동협의위원회 1차회의		외무부	1981
	문서	저작권에 관한 유네스코/WIPO 합동 협의위 1차 회의		외무부	1981
	문서	저작권에 관한 유네스코/WIPO 합동 회의		외무부	1981
		정보사회정상회의및유네스코총회아젠다분석연구	임성호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2006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발표논문집	
		정보화 사회와 교육		유네스코, 홍재성역, 나남	1985
	문서	제2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샵 개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2004
		제3차 유네스코 아·태 지역 기록유산 보호 훈련 워크숍		청주시 ,UNESCOKoreanNational Commission,UNESCO,청주고인쇄박물관, 세계직지문화협회,유네스코 아·태지역기록유산보호훈련 워크숍	2006
	문서	제5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제5차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사진	제5차 아시아 방송사회의 참석 유네스코 관계자 1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3
	사진	제5차 아시아 방송사회의 참석 유네스코 관계자 2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1963
	문서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개최 지원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단행본	조선왕릉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조선왕릉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 Appendix 4. 기록문헌	2007
	단행본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한일문화교류기금 [편], 경인문화사.	2018
	단행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2006일의 기록		부산문화재단 편, 부산문화재단.	2018
	문서	지역의 소중한 기록물, 국민들과 함께 찾아 나서기로, 민간기록조사위원 위촉 및 발대식			2011. 7. 4.
		직지상2.0 기록유산 라운드 테이블 : 직지, 세상을 깨우다		청주시, 직지코리아 조직위원회, 2016년9월2일(금) 10:00~15:00, 청주예술의전당대회의실	2016
	문서	직지심경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 경과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8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내용 건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8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 추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 추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 추진 실적 및 계획 제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관련 관계기관회의 결과 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 관련보고 협조요청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1998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 관련보고 협조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1998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커뮤니케이션				문화재교류과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현황 송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후보등록 관련 의견 제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후보등록 관련 의견검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2001
	문서	질의응답: 다른 나라의 세계기록유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질의응답: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천을 받은 기록유산목록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질의응답: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에 대한 정보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9
	문서	질의응답: 팔만대장경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9
	문서	참고자료: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6
	문서	참고자료: 세계기록유산이 된 훈민정음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문서	팔만대장경 유네스코등록 기념행사계획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국제교류과	1995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2018
	문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의 세계기록유산등록에 따른 홍보계획 보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류과	1997
지자체 제출자료	공문	ESD 프로젝트 인증서(광명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공문	GNLC 가입 인증서(광명시)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6
	공문	GNLC 가입 인증서(안산시)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6
	공문	GNLC 가입 인증서(구미시)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6
	공문	GNLC 가입 인증서(군산시)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6
	공문	GNLC 가입 인증서(이천시)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6
	공문	GNLC 가입 인증서(동두천시)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6
	공문	GNLC 가입 인증서(연수구)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6
	공문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		동두천시	2016
	선언문	글로벌학습도시 아시아태평양회의 광명 선언문		광명시	2017
	팸플릿	글로벌 학습도시 아시아태평양회의 팸플릿		광명시	2017
	사진	글로벌브릿지 포럼		안산시	2019
	사진	동두천시 학습도시 현판		동두천시	2016
	동영상	안산시평생학습홍보동영상		안산시	2018
	공문	통영시 음악 창의도시 신청서		통영시	2015

분야	자료형태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팸플릿	통영시 유네스코창의도시 홍보책자			2018
	보고서	진안 매사냥 결과보고서			2019
	공문	2019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과	2019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회고와 전망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환보 교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정준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두원 박사(경기문화재단)
한유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연락처 02-6958-4268
전자우편 kocom@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편집 서현숙 안신정
교열 안신정
디자인 신세계기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IR-2019-DI-2

이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